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도시계획학 석사학위논문

서울 도성 안 동북부 지역의
신흥부촌 형성 과정

2017년 2월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환경계획학과 도시및지역계획전공
유 슬 기

서울 도성 안 동북부 지역의 신흥부촌 형성 과정

지도교수 김 경 민

이 논문을 도시계획학 석사 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16년 12월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환경계획학과 도시및지역계획전공
유 슬 기

유슬기의 석사 학위논문을 인준함
2016년 12월

위 원 장 _____ (인)

부위원장 _____ (인)

위 원 _____ (인)

국문초록

서울은 조선시대부터 일제강점기를 거쳐 현재까지 수도(首都)로 그 명맥을 이어왔다. 한양과 경성, 서울의 행정경계가 각 시대마다 점차 확대되어 변화하는 중에서도 조선시대 한양 도성 안 공간은 600여 년이 넘는 기간 동안 수도의 공간으로 있어왔다. 역사적으로 오래된 도시 공간에 대한 연구는 어떠한 변화를 거쳐 지금의 공간을 형성하게 되었는가를 살펴보기 위한 기본 바탕이 되므로 그 연구 가치는 상당하다. 이러한 이유로 지금까지 조선시대 한양과 일제강점기 경성의 도시공간에 대한 연구는 꾸준히 진행되어왔다. 그러나 대부분의 연구가 조선시대 왕가 및 권세가들의 공간, 또는 일제강점기 대표적인 일본인과 조선인 밀집지역에 한정되었다.

본 연구는 지금까지의 연구 대상지역에서 소외되었던 서울 도성 안 동부지역, 특히 동북부 지역(현재의 혜화동, 명륜동, 동숭동, 연건동)에 초점을 두었다. 조선시대부터 개항기 및 일제강점기 동북부 지역의 변화과정과 이러한 과정을 거쳐 형성되는 지역의 정체성을 파악하는 도시사 연구로, 문헌연구와 함께 지리정보시스템(Geographic Information System)을 연구방법으로 활용하였다. 이를 통해 각 시대에 동북부 지역에 존재했던 시설 및 적용된 도시계획을 확인하였고, 지역의 변화에 따라 영향 받은 동북부 지역민에 대하여 파악하였다.

조선시대 지형적 요인으로 인하여 민가(民家)가 들어서지 못했던 동북부 지역은 다른 지역에 비해 저발전된 지역이었다. 그러나 조선 중후기 상업도시화 과정 속에서 동북부 지역은 기존에 설립되어 있던 시설들과 이와 관련된 거주민들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변화를 겪는다. 혜화문은 북문(北門)을 대신해 사람과 물자의 도성 안과 밖을 오가는 이동통로가 되었다. 성균관은 성균관 노비인 반인(泮人)에게 소를 도살할 수 있는 권한과 쇠고기를 판매할 수 있는 현방(懸房) 운영의 독점권을 부여해 이들의 경제적 성장을 도왔다. 정조는 즉위 후 경모궁을 조성하는 과정에서 유

입된 모민(募民)에게 여객주인권(旅客主人權)을 제공함으로써 이들의 상업적 성장을 도모했다. 이 같은 요인들은 동부지역의 상업 부흥을 야기해 18세기 조선의 3대 시장 중 하나인 이현시장(梨峴市場)이 혜화문에서 종로로 이어지는 길목에 형성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개항기 도성 안 다른 지역에 비해 비교적 외세의 영향을 받지 않은 동부지역은 여전히 저발전 지역으로 남아있었다. 저렴한 지가(地價)로 대규모 부지를 확보할 수 있었기 때문에 총독부는 동북부 지역에 병원과 관립학교, 제국대학을 설립했다. 또한 대규모의 독일 수도원이 조성되어 이국적 풍경을 만들었다. 더불어 이곳에서 종사하거나 이용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동북부 지역의 도로 정비 및 전차 노선을 확충해나갔다. 그 결과, 관료와 교수, 언론인 등 소수의 중간 계층 이상의 사람들이 몰려들어 주거지를 형성해 문화촌을 이루었다.

즉, 조선시대 동북부 지역민은 신분적 제한에도 불구하고 상업적 특권을 바탕으로 경제적으로 성장한 집단이었고, 일제강점기 동북부 지역민은 고위공직자 혹은 대자본가는 아니지만 일정 수준 이상의 경제력을 지닌 집단이었다. 동북부 지역에 자리한 시설과 지역민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당시 시대적 상황 속에서 새로운 신흥계층이 성장하게 되고, 이들이 거주하는 동북부 지역은 곧 신흥부촌으로 그 정체성을 형성하게 된다.

◆ 주요어: 신흥계층, 이현시장, 문화촌, 한양, 경성, 한양도성, 조선시대, 일제강점기

◆ 학 번: 2015-24812

목 차

I. 서론	1
1. 연구 배경	1
2. 연구의 범위	3
1) 시간적 범위	3
2) 공간적 범위	4
3. 연구의 방법	9
1) 문헌연구	9
2) GIS	10
II. 선행연구 고찰	11
1. 신흥계층 연구	11
1) 부르주아(Bourgeois)의 탄생	11
(1) 서양 국가	11
(2) 한국	13
2) 조선시대 상업 연구	14
3)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16
2. 도시사 연구	18
1) 도시계획 및 도시 공간 연구	18
(1) 조선시대	18
(2) 일제강점기	19
2) 동북부 지역 내 입지한 시설 연구	21
3) 동북부 지역 연구	25
4)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26

Ⅲ. 조선시대 동북부 지역 28

- 1. 혜화문 29
- 2. 성균관과 반촌 36
- 3. 경모궁과 모민 46
- 4. 이현시장 형성 55

Ⅳ. 개항기-일제강점기 동북부 지역 62

- 1. 1900년대 62
 - 1) 기존 동북부 지역민의 향방 64
 - 2) 경성공업전습소 67
 - 3) 대한의원 68
 - 4) 백동 수도원 72
- 2. 1910년대 77
 - 1) 중앙시험소와 관립학교 78
 - 2) 조선총독부의원 80
 - 3) 시구개수사업 83
- 3. 1920년대 87
 - 1) 경성제국대학 88
 - 2) 시구개수사업 95
- 4. 동북부 지역의 변화 101
 - 1) 주거지 개발 102
 - 2) 주민구성 112

Ⅴ. 연구 결과 122

- 1. 결과 요약 122

2. 연구의 의의 및 한계	124
■ 참고문헌	127
<부록>	136

표 차례

[표 1] 도성 안 동북부 지역의 행정구역 변화	8
[표 2] 조선시대 지도에 표기된 입지시설	22
[표 3] 일제강점기 지도에 표기된 입지시설	23
[표 4] 1396년 성곽 축조 당시의 성문 명칭과 속칭	29
[표 5] 19세기 현방의 수와 위치	38
[표 6] 경모궁 모민의 여점	51
[표 7] 김포 1郡8面 여객주인권 매매 가격	53
[표 8] 경모궁 모민의 시전 가설	54
[표 9] 동부의 방제 변화	55
[표 10] 지도상 나타나는 동부지역의 물리적 변화	57
[표 11] 1909년과 1910년 국적별 대한의원 이용률 비교	71
[표 12] 1912년 경성시구개수예정계획노선	83
[표 13] 1915년 공진회 전까지 완공된 시구개수 노선	87
[표 14] 경성제대 직원 수	90
[표 15] 경성제대 입학생 수	91
[표 16] 경성제대 본과 건물들 사진	93
[표 17] 1919년 경성시구개수예정계획노선	96
[표 18] 1915-1932년 완공된 시구개수 노선	100
[표 19] 경성부 인구 수 변화	103
[표 20] 1917년에서 1927년으로의 필지 수 변화량	104
[표 21] 1917년과 1927년 지목별 토지 비율	105
[표 22] 1930년 동북부 지역 국유 임야 불하 청원 목록	108
[표 23] 1917년과 1927년 국적별 토지 소유자 비율	113
[표 24] 사유지 중 임대되는 토지 비율	116
[표 25] 1920-30년대 직업별 월급액	119
[표 26] 동북부 지역 인구 수	136

그림 차례

[그림 1] 연구의 시간적 범위	3
[그림 2] 한양도성 안 동북부 지역의 위치	4
[그림 3] 1936년 동북부 지역	5
[그림 4] 2016년 동북부 지역	6
[그림 5] 「漢陽圖」 중 일부	22
[그림 6] 「首善全圖」 중 일부	22
[그림 7] 「最新京城全圖」 중 일부	23
[그림 8] 「大京城精圖」 중 일부	23
[그림 9] 「朝鮮城市圖」 중 일부	30
[그림 10] 동북부 지역의 지형	35
[그림 11] 반인과 성균관 유생의 공생관계	43
[그림 12] 『泮中雜詠』을 통해 추정된 반촌 영역 범위	46
[그림 13] 『景慕宮儀軌』를 통해 추정된 경모궁 모민 거주지 범위	49
[그림 14] 한양의 상품유통 과정	52
[그림 15] 「漢陽圖」	57
[그림 16] 「朝鮮城市圖」	57
[그림 17] 「首善全圖」	57
[그림 18] 「首善全圖」 상에서의 이현(★) 위치	59
[그림 19] 1936년 혜화공립보통학교 교사	66
[그림 20] 공업전습소	68
[그림 21] 「最新京城全圖」에 표기된 영희전과 마등산	70
[그림 22] 대한의원	71
[그림 23] 혜화동의 명물인 풍차를 소개한 기사	73
[그림 24] 1920년대 백동 수도원 모습	75
[그림 25] 백동 수도원의 영역 범위 추정도	77
[그림 26] 전문학교가 될 의학강습소와 공업전습소 건물	80
[그림 27] 조선총독부의원 전경	83
[그림 28] 1912년 경성시구개수예정계획노선도	85
[그림 29] 1926년 경성제국대학계획예정도	89
[그림 30] 경성제대 정문	93
[그림 31] 경성제대 도서관	93
[그림 32] 경성제대 법문학부 본관	93

[그림 33] 경성제대 의학부 본관	93
[그림 34] 경성제대 부속 의원	93
[그림 35] 경성제대 관사	93
[그림 36] 1936년 동북부 지역 내 존재하는 학교	94
[그림 37] 1919년 경성시구개수예정계획노선도	97
[그림 38] 1932년까지 완공된 시구개수 노선도	101
[그림 39] 1927년 지목 현황	106
[그림 40] 문화주택지가 있는 경성부 내 행정동	111
[그림 41] 1927년 국적별 토지 소유자 현황	115
[그림 42] 연건동 조선일보 사옥	121
[그림 43] 연구 결과 요약	124
[그림 44] 1927년 경성제대 평면도	137
[그림 45] 1937년 경성제대 평면도	138
[그림 46] 동숭동 산2번지 평면도	139
[그림 47] 「大京城精圖」 상에 표기한 동숭동 산2번지	139
[그림 48] 혜화동 산4-4번지 평면도	140
[그림 49] 「大京城精圖」 상에 표기한 혜화동 산4-4번지	140

I. 서론

1. 연구 배경

서울은 조선시대 수도(首都)가 된 이래로 일제강점기를 거쳐 현재까지 수도로서 그 명맥을 이어가고 있다. 현재 서울의 행정경계와 조선시대 한양, 일제강점기 경성의 행정경계는 각각 다르지만, 공통적으로 수도 서울이었던 공간은 성곽으로 둘러싸인 도성(都城) 안 이었다. 지난 600여 년이 넘는 기간 동안 서울의 도성 안은 수많은 사람들이 생활하던 공간으로 무수히 많은 변화를 겪어왔다.

도성 내 지역에 대한 연구는 도심부를 중심으로 먼저 이루어졌다. 조선시대부터 주요 중심지였던 종로와 일제강점기 일본인 중심지역이 된 진고개 일대가 그것이다. 이후 주거지역에 대한 연구가 시작되어 조선시대 왕가(王家) 및 권세가(權勢家)의 거주지인 서촌과 북촌, 그리고 일제강점기 일본인의 거주가 상당했던 남촌까지 연구범위를 확장해갔다. 이러한 연구 흐름 속에 아직까지 지역적 의미를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고 외면받는 곳이 있다. 그곳은 바로 동촌(東村) 지역이다. 한양과 경성의 도성 안은 5부(部)로 나눈 행정체계를 가지고 있었는데, 동부(東部)·서부(西部)·남부(南部)·북부(北部)·중부(中部) 중 동부에 대한 연구가 상대적으로 미비하다.

동부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이유는 조선시대부터 사람의 거주를 허용하지 않았던 곳이어서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발전(低發展) 지역이었기 때문으로 보인다.¹⁾ 그러나 동부의 끝에 있었던 혜화

1) 동부에 사람이 살지 않았던 이유에 대해 오세현(2015)은 임진왜란 후 창덕궁이 정궁의 기능을 함으로써 그 주변에 일반인의 거주가 용이하지 않았을 것이라 말한다. 또한 지형의 원인으로 작용했을 것으로 보인다. 낙산과 현재 서울대학병원의 위치는 동부에

문(惠化門)은 도성의 사대문 중 지리적 요인으로 이용하지 않았던 북문(北門)을 대신하여 도성 북쪽 밖으로 이동할 수 있었던 성문이었다. 이것은 사람과 물자의 이동이 활발했던 지역이었음을 의미한다. 18세기 형성된 이현시장(梨峴市場)은 혜화문에서 종로로 가는 길목에 조성된 것으로, 이 지역이 사람과 물건의 왕래가 잦았던 지역임을 말해준다. 더욱이 동부에 위치한 성균관과 경모궁은 이곳에서 역(役)을 수행하는 이들에게 상업적 독점권을 부여하는 특혜를 줌으로써 동부 지역에서 상업이 부흥하는 촉진제 역할을 했다. 이현시장은 조선시대 3대 시장 중 하나로, 자연적으로 발생한 도성 안의 유일한 시장이라는 점에서 의미 있다.²⁾ 이후 개항기를 거쳐 일제강점기에 접어들어 동부는 급격히 변화한다. 특히 동부의 북쪽인 동북부 지역은 종로와 맞닿은 동남부보다 더 발전하지 않은 곳이었기 때문에 저렴한 땅값으로 대규모 시설이 입지할 수 있었던 요인으로 작용했다. 그 결과, 독일 수도원과 총독부에 의한 병원, 관립학교 및 제국대학 설립됨으로써 지역의 변화를 야기했다. 이와 더불어 지역 내 각종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들과 거주민들의 이동성을 위한 새로운 도로 및 전차노선을 확보해나갔다. 이러한 동북부 지역의 변화는 사람들의 관심을 샀고, 임야와 밭으로 이루어졌던 토지가 주거지로 개발되면서 새로운 개발지역으로 각광받아 중간 계층 이상의 사람들이 몰려드는 양상을 보였다. 이로써 도성 안 동북부 지역은 신흥부촌으로 그 정체성을 형성하게 된다.

본 연구는 상대적으로 발전이 미비했던 동북부 지역이 신흥부촌으로 형성되는 과정을 서술하는 도시사 연구이다. 지역에 입지해있던 시설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상업 활성화를 이룬 거주민들이 부를 축적해나가는 과정, 부와 사회적 지위가 있는 사람들이 총독부의 지역 개발에 의해 동북부 지역으로 모여드는 과정, 이 두 가지를 통해 동북부 지역이 신흥부

서 고도가 높은 곳이기 때문에 이 일대에 사람이 거주하면 왕이 거주하는 궁을 위에서 내려다볼 수 있는 지형이다. (참고 : 「最新京城全圖」(1907))

2) 조선시대 3대 시장으로 꼽히는 시장은 종로 육의전(六矣廛), 남대문 부근의 칠패시장(七牌市場)이다. 이중 육의전은 한양 천도부터 국가에 의해 계획적으로 조성된 시장이고, 이현시장과 비슷하게 18세기에 형성된 칠패시장은 남대문 밖에 위치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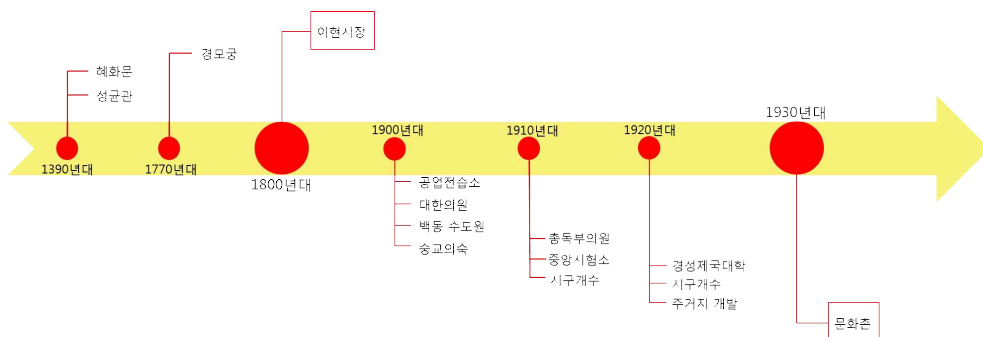
촌이었음을 서술하고자 한다. 이는 융복합적 도시사 연구로 다음과 같은 연구 가치를 갖는다. 첫째, 기존의 조선시대와 일제강점기 지역연구에서 보이는 편향된 대상지역에서 벗어난 도성 내 동북부 지역 연구, 둘째, 기존에 알려진 권력이 및 재력가들의 거주지로 북촌과 남촌이 아닌 동북부 지역을 신흥부촌으로 봄으로써 지역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재해석한다.

2. 연구의 범위

1) 시간적 범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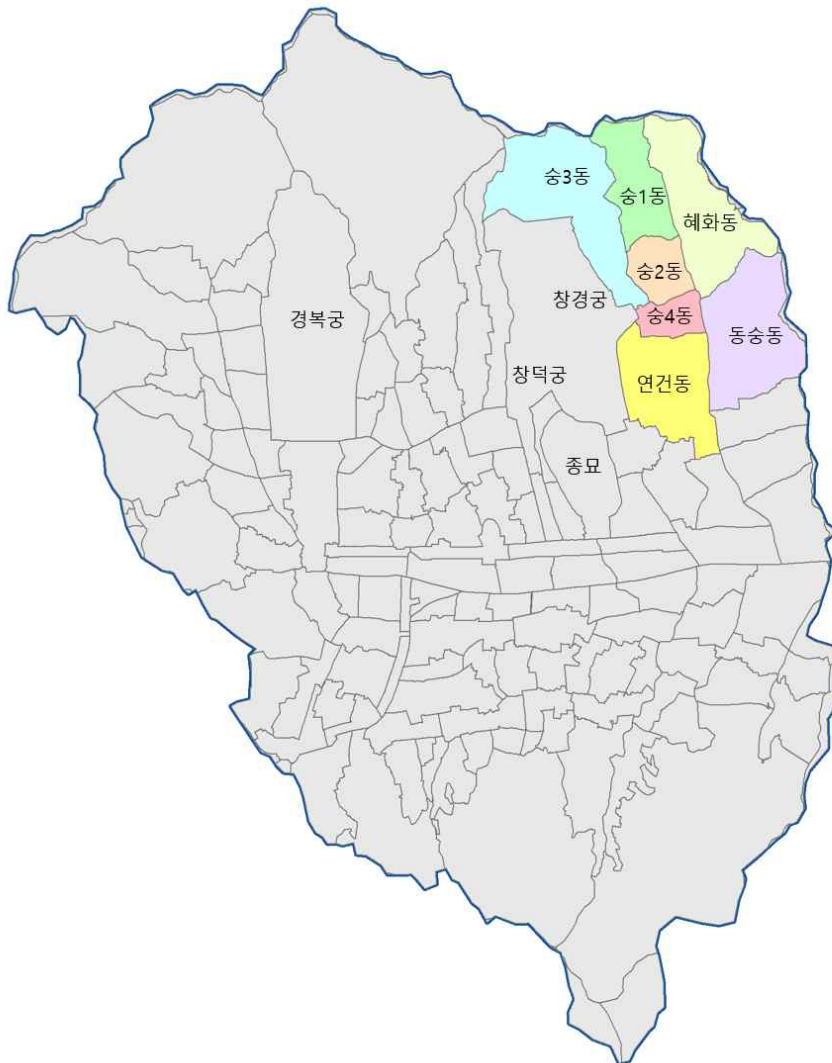
본 연구의 시간적 범위는 조선시대부터 개항기를 거쳐 일제강점기까지 이다. 시기적 범위가 길기 때문에 조선시대에서는 이현시장이 형성하게 된 요인, 개항기 및 일제강점기에서는 문화촌을 이루게 된 요인을 선별해 서술할 것이다. 이를 통해 도성 안 동북부 지역의 신흥부촌의 연속성을 살펴본다.

[그림 1] 연구의 시간적 범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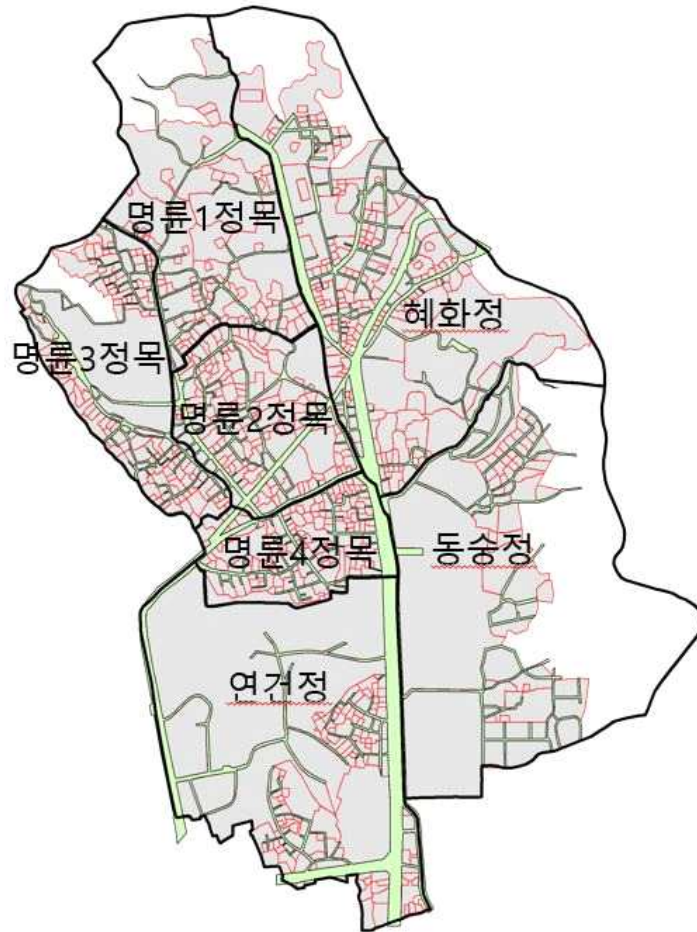


2) 공간적 범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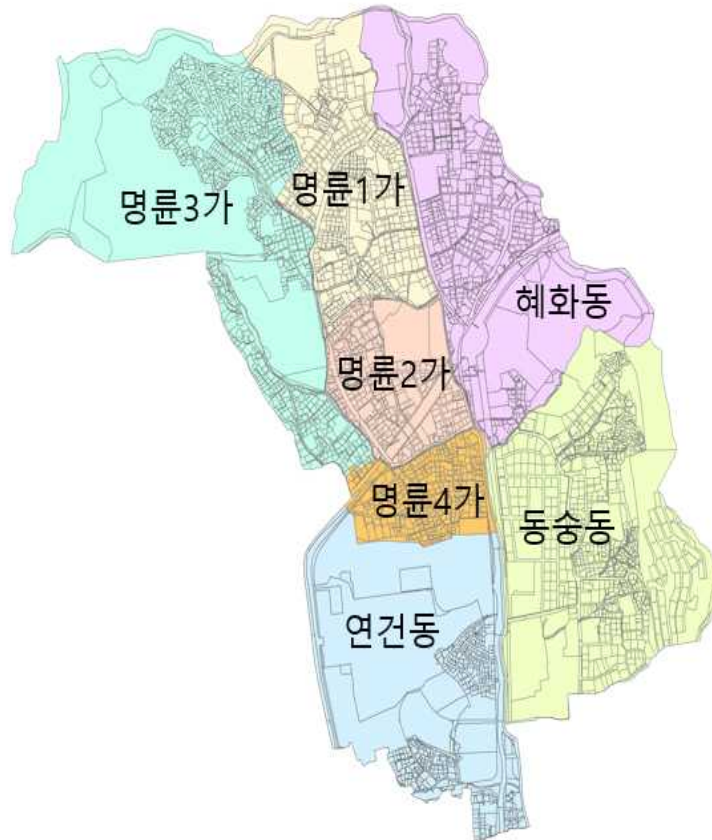
[그림 2] 한양도성 안 동북부 지역의 위치



[그림 3] 1936년 동북부 지역



[그림 4] 2016년 동북부 지역



출처 : 서울 열린데이터광장(data.seoul.go.kr)

본 연구의 대상 지역은 현재의 서울 종로구 혜화동·명륜동·동숭동·연건동 일대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 지역을 통틀어 동북부 지역으로 지칭한다. 한양 도성을 기준으로 성내(城內) 지역에서 동부, 그 중에서도 성문과 닿아있는 북쪽에 해당하기 때문에 동북부 지역이라 한다. 도성 안 지역은 한양과 경성에서 공통적으로 포괄하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도성 안 동북부 지역은 조선시대와 일제강점기 동안 지칭하는 공간이 동일하다.

한양은 1396년(태조 5년) 5部 52坊으로 행정구역을 구획하였다. 5부는

동부(東部)·서부(西部)·남부(南部)·북부(北部)·중부(中部)로 나뉜다. 태조 이후의 행정구역은 큰 변화를 보이지 않다가 1865년(고종 2년)에 편찬된 『六典條例』에서 큰 변화가 보인다.³⁾ 그중 동부에서는 6방이 폐지되고 경모궁방(景慕宮坊)이 신설되었다. 갑오개혁 때 5부를 폐지하는 대신에 5署를 설치하였고, 東署에서의 특징은 경모궁방이 폐지되었다. 이후 일제강점기로 넘어와 대대적인 체제변화가 나타난다. 1910년 경성부로 명칭이 변경되었고, 1911년 도성 안을 동부(東部)·서부(西部)·남부(南部)·북부(北部)·중부(中部) 5부로, 도성 밖을 용산(龍山)·서강(西江)·송신(崇信)·두모(豆毛)·인창(仁昌)·은평(恩平)·연희(延禧)·한지(漢芝) 8面으로 구획하였다. 이후 1914년 두 차례에 걸쳐 경성부 구역이 축소되고, 1936년 경성부 관할구역을 변경해 다시금 경성부가 확대되었다. 이러한 경성부의 행정경계 및 구역의 변화는 도성 밖 지역에 대한 것으로, 기존의 도성 안 지역은 변함없이 경성부 관할이었다.

위와 같은 한양과 경성의 행정구역 변화에 따라 동부에 소속된 동(洞)의 통·폐합이 이루어졌다. 특히, 본고에서는 동북부 지역으로 한정된 혜화동·명륜동·동숭동·연건동의 변화에 주목한다.

조선시대부터 1914년·1936년 변경을 거쳐 현재까지 동북부 지역의 행정구역 명칭은 아래 표와 같다.

3) 서울특별시 시사편찬위원회(2013), 『국역 경성부사』 제2권, 서울 : 서울특별시 시사편찬위원회, p.403

[표 1] 도성 안 동북부 지역의 행정구역 변화

현재	1936년	1914년	조선시대
혜화동 (惠化洞)	혜화정 (惠化町)	혜화동 (惠化洞)	송동(宋洞) · 상토교(上土橋) · 하토교(下土橋) · 상백동일부(上柏洞一部)
명륜동 (明倫洞)	명륜정1정목 (明倫町1丁目)	송1동 (崇一洞)	송동일부(宋洞一部) · 흥덕동일부(興德洞一部) · 피마동일부(避馬洞一部) · 식당동(食堂洞) · 수지동(水之洞) · 도덕동(道德洞) · 포동(浦洞) · 상정동(上井洞)
	명륜정2정목 (明倫町2丁目)	송2동 (崇二洞)	송동일부(宋洞一部) · 상토교동일부(上土橋洞一部) · 광례교동일부(廣禮橋洞一部) · 궁내정동(宮內井洞) · 사현동(四賢洞) · 피마동일부(避馬洞一部) · 선문동(旋門洞) · 산천동(山川洞) · 흥덕동일부(興德洞一部) · 궁내동(宮內洞) · 박정동(朴井洞) · 관기교동(觀旂橋洞)
	명륜정3정목 (明倫町3丁目)	송3동 (崇三洞)	양현동(養賢洞) · 서반동(西伴洞) · 제옥동(濟玉洞) · 홍문동(紅門洞) · 영동(營洞) · 이문동(里門洞)
	명륜정4정목 (明倫町4丁目)	송4동 (崇四洞)	한정동(寒井洞) · 광례교동일부(廣禮橋洞一部) · 사악교(思樂橋) · 전석현(磚石峴)
동송동 (東崇洞)	동송정 (東崇町)	동송동 (東崇洞)	상백동일부(上柏洞一部) · 신대동(新垓洞) · 하백동(下柏洞) · 쌍계동일부(雙溪洞一部)
연건동 (蓮建洞)	연건정 (蓮建町)	연건동 (蓮建洞)	과동(果洞) · 함춘동일부(含春洞一部) · 장동(牆洞) · 남미탑동(南彌塔洞) · 신교동일부(新橋洞一部) · 독갑현(獨甲峴) · 반송정동(盤松井洞)

출처 : 「朝鮮總督府京畿道告示第7號」, 『朝鮮總督府官報』, 1914.04.01.; 「朝鮮總督府京畿道告示制32號」, 『朝鮮總督府官報』, 1936.03.30.

3. 연구 방법

연구를 시작하기 앞서, 본 연구는 융복합적인 도시사 연구를 추구하기 위해 연구의 순서를 설정하였다. 어떠한 계획에 의해 지역이 형성되었는가를 살펴보고, 그 과정에서 나타나는 물리적 변화와 그것과 사람들과의 상호작용 및 연관성을 파악하고자 한다. 지역의 변화가 지역민에게 미치는 영향은 그들의 생활상 및 사회적·경제적 특성에서 발현될 수 있으므로 이것을 종합하여 지역의 정체성을 정립할 수 있다. 이를 밝혀내기 위한 연구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문헌연구

역사 연구에서 가장 기본은 사료 해석이기 때문에 본 연구는 사료를 통해 당시의 모습을 확인한다. 물리적 변화를 살펴보기 위해 지역에 적용되는 도시계획과 그 변화의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지도를 사료와 선행연구를 통해 확인한다. 특히 지도의 경우, 고지도를 통해 위치와 변화를 확인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주변에 입지해 있는 시설들과 지리적 특징을 고려한 분석이 가능하다. 변화하는 지역과 지역민과의 상호작용을 통한 지역적 특성은 정부 보고서 및 신문·잡지·문학작품에 대한 분석으로 파악 가능하다. 문학작품의 경우, 작가의 상상력에 의해 구성되는 것이지만, 사회상을 바탕으로 만들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을 주인공으로 하여 시대상을 표현한다는 측면에서 일상생활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된다.⁴⁾

4) 김영근(1999), 『일제하 일상생활의 변화와 그 성격에 관한 연구 : 경성의 도시공간을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p.25

2) 지리정보시스템

본 연구는 융복합적 도시사 연구로, 기존과는 다른 서술 방식을 위해 지리정보시스템(GIS)을 연구 방법으로 활용한다. 도시사는 과거의 모습을 연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 모습과의 연장선상에서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연구에 도입하는 GIS는 과거의 지도와 현재의 지도와의 맵핑 작업을 통해 현재의 관점에서 과거의 모습을 떠올릴 수 있도록 한다. 본 연구에서는 현재와 과거의 비교를 위해, 특히 과거 모습의 시각화를 위해 당대(當代)에 제작된 지도를 GIS 파일로 생성하여 내용 설명에 활용하였다. 특히, 1936년 「大京城精圖」는 지번이 입력된 지도이기 때문에 해당 지도를 바탕으로 GIS 파일을 구축하였고, 각 지번에 해당하는 정보는 1927년 『京城府管內地籍目錄』을 사용했다. 또한 이와 같은 연구방법을 통해 지도 위에 표시된 시설과 도로 등을 각각 별개의 것으로 이해하지 않고 주변 지역과의 조화를 바탕으로 관찰함으로써 도시공간 속에서 각각의 것들이 의미하고 바를 유추할 수 있다.

Ⅱ. 선행연구 고찰

1. 신흥계층 연구

1) 부르주아(Bourgeois)의 탄생

(1) 서양 국가

새롭게 부상하는 계층을 연구하기 위하여 서양 국가에서 출현한 부르주아에 대한 연구를 고찰하였다. 성백용(2006)은 ‘부르주아’라는 용어를 간단히 정의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라 표현하였다. 그 이유는 긴 시간에 걸쳐 사회사(社會史)를 이끌던 집단으로 존재해 와서 시기에 따라 혹은 상황에 따라 여러 의미를 포괄하면서 지속되어 왔기 때문이다. 그의 주장에 따르면, 유럽의 역사상 지칭된 부르주아의 특징은 귀족과 민중과는 다른 제 3의 계층으로, 자신의 노동의 산물을 상품화하지 않았다. 또한 상업으로 번 돈을 부동산에 투자하고, 교육을 통해 귀족 및 국왕과 대등한 위치에 올라서고자 했다. 영주로부터 인정받은 부르주아가 되면 특권을 부여받기 때문에 그 조건으로 부르주아는 모두 일정 거주기간과 일정 금액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었다.

17세기 후반부터 20세기 초반까지 근대 영국을 주도한 엘리트 집단으로 조용욱(2003)은 토지귀족과 부르주아를 꼽았다. 그는 토지귀족이 상당한 규모의 토지를 소유해 이것으로부터 얻는 소득으로 생계를 이어가고, 토지를 통한 이윤추구 뿐 아니라 도시개발과 제국 확장에도 참여하는 적극적인 부르주아적 지주였다고 표현한다. 한 편, 또 다른 엘리트 집단인 부르주아는 1688년 명예혁명 과정에서 발생한 재정혁명으로 잉글랜드 은

행(Bank of England) 설립되고 증권거래가 활성화되어 상업과 금융 엘리트의 성장으로 형성된 부류이다. 이들은 18세기 영국 해외무역과 국제금융을 바탕으로 더 많은 부와 권력을 차지하게 되었다. 이후 19세기 후반 급격한 수적(數的) 증가를 보인 전문직 종사자들은 런던 근교에 거주하면서 부르주아로 합류하게 되었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부르주아는 포괄하고 있는 의미가 다양하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어떻게 부르주아가 되었는가를 보기 위해서 위의 선행연구를 참고하였다. 위의 연구에서 공통적으로 부르주아에 속하는 이들은 상업을 통해 부를 축적한 사람들이었다. 따라서 상인을 곧 부르주아라고 보고, 상인에 대해 초점을 두어 이들이 부르주아로 나아가는 과정을 살펴보았다.

초창기 이루어진 Unwin의 연구는 학계에서 정설로 이어져왔다. 그는 선대제⁵⁾적(先貸制的) 독점 상인이 자본주의를 이끈 산업자본가가 된 것이 아니라, 농촌으로 탈주한 숙련 장인이 형성한 소독립생산자층(小獨立生産者層)이 산업자본을 축적하여 영국 자본주의의 근간이 되었음을 주장한다.⁶⁾ 그러나 이후의 연구에서는 Unwin의 생산자가 산업자본을 형성하였다는 것에 반대하는 의견이 개진된다.

오주환(1990)은 여러 상인 계층을 두루 살펴보면 상업자본이 자본주의를 이끌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는 영국의 15-16세기를 연구함으로써 14세기에 생산보다 유통에 초점을 둔 전문적인 직업적 상인과 해외무역 상인이 출현하고 이때의 상인계층은 행상(行商), 소매상, 중개상인, 국내의 대상인(大商人), 해외무역상인으로 분류되었음을 밝혔다. 이후 이들은 일정한 재산을 축적하여 정부로부터 특허장을 받아 ‘company’라는 새로운 산업조직을 형성하였다. 허순철(1975)은 Unwin의 주장과는 반대로 상업 자본을 통해 산업자본가로 성장한 사례를 소개

5) 선대제도(先貸制度)는 상업자본가가 수공업자에게 미리 원료와 기구를 빌려주고 임금을 지불한 후 여기에서 생산되는 상품을 독점해 판매하는 제도이다. (출처 : 한국고중세사사전 [검색일 : 2016.05.20.]

6) George Unwin(1904), *Industrial Organization in the 16th and 17th Centuries*, Oxford : At the Clarendon Press

하였다. 그는 직조공장(織造工場)을 예로 들면서, 선대제도가 발달함에 따라 가내수공업(家内手工業)을 이루던 독립적인 소생산자들은 선대상인의 지배하에 들어가게 되고 이들의 관계가 긴밀해져 점차 가내수공업자들이 한 장소에 모여 협업하게 됨을 설명한다. 이것은 곧 기업화되어 산업자본을 형성하게 된다.

한 편, 상업 자본을 바탕으로 토지 귀족이 된 사례 연구도 있다. 손후자(1989)는 14세기 왕실과의 결합을 통해 상업 자본을 축적하여 처음에는 대금업으로 토지를 소유하게 되다가 후에는 본격적으로 토지를 매입해갔던 영국 상인을 소개하였다. 선행연구에서 알 수 있듯이, 서양 국가에서 상업은 부를 축적할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업종이었다. 그리고 상업을 통해 축적한 부는 각 개인마다 산업자본으로, 혹은 토지매입비용으로 전환하여 지속적으로 부를 축적하는 계기를 만들어갔다.

(2) 한국

한국 사회에서 부르주아 계층이 형성된 시기에 대해서는 연구자마다 그 시작점이 다르다. 초창기 대다수의 연구에서는 부르주아 형성 시기를 한국전쟁 이후로 보고, 상업을 통해 부를 축적했던 이들이 정경유착(政經癒着)의 형태로 재벌이 된 것이라 한다.⁷⁾ 이는 첫째,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북한과의 대결 구도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간 선진 국가임을 내세우기 위한 것, 둘째, 1970년대 ‘한강의 기적’을 돋보이기 위한 사회경제 연구의 필요성이 이유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 이후의 연구에서는 한국 부르주아의 기원을 일제강점기라고 주장하는 것이 많아졌다. Eckert(1991)는 조선 사회 내에서 자본주의의 맹아가 존재하고 있었다는 자본주의 맹아론을 비판하며, 일제강점기 하에서

7) 전상인(1998), 「양반과 부르조아」, 『한국과 국제정치』 14(1); 공제욱(1993), 『1950년대 한국의 자본가 연구』, 서울 : 백산서당; 박준식·김영근(2000), 「한국전쟁과 자본가계급」, 『아시아문화』 16

조선인 자본가로 성장해나갔던 경성방직 김성수 일가를 서술하였다. 후속 연구자인 이승렬(2007)은 19세기 조선 사회에서 일제강점기로 넘어가면서 한국의 자본주의 근대화가 시작된 것이고, 이 과정에서 부르주아의 역할이 두드러졌다고 한다. 그에 따르면, 은행가·산업자본가로 전환한 부를 축적한 상인들과 선진 지식을 습득한 지식인층이 부르주아 계층으로서 갑오개혁과 광무개혁에 참여하면서 정치·사회적 역할을 수행하였다.

한 편, 조선시대 후기의 인물들을 통해 부르주아 기원을 찾는 연구자도 드물게 있다. 홍성찬(2014)은 19세기 후반 종로의 시전상인으로, 경강상인으로 시작하여 일제강점기 하에서도 상업적 명맥을 이어간 김 씨 일가를 소개하였다. 이 사례를 통해 한국의 부르주아가 일제 강점 후에 출현한 것이 아니라 조선에서부터의 연장선상에서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이고, 한국의 자본주의와 부르주아의 내재적 기원과 연속적 성격을 말하고자 한다. 윤종일(1986)은 갑신정변을 주도한 김옥균을 부르주아 개혁운동가로 보았다. 갑신정변은 부르주아적 사고방식에서 비롯된 자유민권사상과 산업발전을 통한 부국강병이 목표인 개혁운동이었기 때문이다. 또한 그는 갑신정변이 민중에서 시작된 것이 아닌 위로부터의 개혁이었기 때문에 부르주아 혁명이었다고 비판을 받기도 한다고 말한다. 이 연구에서 말하는 부르주아는 위의 다른 연구들과 달리, 상업적인 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행동을 의미한다.

2) 조선시대 상업 연구

한양은 수도로 계획되면서부터 종로 일대에 시장을 형성하도록 했다. 1405년(태종 5) 천도(遷都)를 완료한 후 종로의 육의전은 본격적인 시전(市廛) 형태를 갖추며 발전해나갔다. 그러나 곧바로 상업 발달은 주춤하였다. 이상기온현상으로 인하여 흉년이 계속되었고, 임진왜란(1592년

-1598년)과 병자호란(1636년-1637년)으로 두 차례의 전쟁을 치렀기 때문이다.⁸⁾ 본 연구는 상업 발달이 지지부진하던 시기를 겪고 난 후 어떻게 18세기 한양이 상업도시로 변모해갈 수 있었는지, 그리고 상업은 어떻게 발전해 나갔는지에 대한 선행연구 고찰에 집중하였다. 이태진(1994)은 상업자본의 발달이 도시공간을 확대시키고 이것은 곧 한양의 변화와 같다고 하였다. 이는 곧, 조선 후기 한양을 연구함에 있어서 상업 발달사를 주목해야 하는 이유이다. 더욱이 앞선 선행연구를 통해 서양의 부르주아 계층이 형성되고 성장해가는 과정에서 발견한 상업과의 밀접한 연관성에 따라 조선에서의 상업발달사를 재고할 필요가 있다.

임진왜란과 병자호란 이후 한양으로의 인구 증가와 대동법 시행은 18세기 한양의 상업도시화를 촉진했고, 교통발달로 인한 한양도성 밖 경강(京江)지역의 상업발달 또한 한양의 변화를 야기했다(고동환, 1998a). 이후 상업활동이 활성화되면서 사상(私商)이 출현하고, 정조의 신해통공(辛亥通共) 정책으로 금난전권(禁亂廛權)이 폐지되어 그들의 상업 활동이 더욱 활발해졌으며 이는 기존 시전체제의 유통구조를 뒤흔드는 계기가 되었다(노혜경, 2014). 19세기 세도정치(勢道政治) 하에서의 상업은 사상(私商)이 권력가에게 편승하여 사상도고(私商都賈)로 성장하고 독점적 이익을 얻을 수 있었다(고석규, 1998). 그러나 1876년 강화도 조약에 의한 개항은 종래와 다른 새로운 경제체제를 야기했다.⁹⁾ 외세의 유입으로 인하여 조선시대 유지되어오던 기존의 상업경제체제는 무너지고, 1904년 러일전쟁 이후 사실상 일본의 식민지가 되면서 새로운 모습의 경성을 만들어갔다.¹⁰⁾

조선 후기 상업발달사에 관한 연구를 비롯하여, 본 연구에서 추가적으로 살펴본 선행연구는 연구대상 지역과 관련한 상업 부분이다. 동북부 지역에 관한 연구는 드물기 때문에 이와 관련한 상업 연구 역시 논의된

8) 이태진(1996), 「‘小氷期’(1500~1750년)의 天體 現象의 원인 - 『朝鮮王朝實錄』의 관련 기록 분석 -」, 『國史館論叢』 72; 고동환(1998), 「18세기 서울의 상업구조변동」, 『서울상업사연구』, 서울 : 서울학연구소

9) 한우근(2001), 『韓國開港期の 商業研究』, 고양 : 한국학술정보, pp.45-46

10) 이태진 외 7인(1998), 『서울상업사연구』, 서울 : 서울학연구소, pp.14-15

바가 거의 없다. 선행연구로 주목한 동북부 지역 상업 연구는 현방(懸房)과 경모궁 모민(募民)의 상업 활동, 이현시장(梨峴市場)의 형성이다. 이는 조선시대 지도를 통해 확인된 동부 지역 내 입지한 시설과 장소에서 비롯된 것이다. 현방은 성균관 노비들이 소를 도살할 수 있는 권한과 쇠고기 판매에 대한 독점권을 얻어 운영하는 시전의 하나이다. 성균관과 성균관 노비인 반인(泮人)의 관계를 고찰할 수 있고, 현방 운영을 통한 반인들의 경제적 성장을 확인할 수 있다(최은정, 1996). 정조 즉위 후 경모궁을 조성하면서 이루어진 모민을 통해 경모궁 근처로 이주한 이주민들이 국가로부터 받은 상행위(商行爲) 독점 혜택과 그것을 바탕으로 한 상업 활동을 확인하였다(김동철, 2001). 이현시장에 대한 단독 연구는 이루어진 바가 없지만, 전우용(2001a)은 광장시장의 설립 배경과 전개과정을 서술하면서 광장시장의 모태인 이현시장의 형성 배경에 관해 언급한 바 있다.

3)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부르주아의 어원은 프랑스에서 온 것이고, 용어가 사용되기 시작한 곳 또한 유럽이다. 이러한 이유로 서양에서 사용되어온 부르주아 용어가 어떤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지 살펴보았다. 그러나 부르주아가 정확히 어떤 계층을 의미하는지 모호하고, 용어가 오랜 시간동안 사용되어져 오면서 오늘날 통용되는 부르주아의 개념인 ‘보통 수준 이상의 물질적인 부를 소유하는 것’으로 그 의미가 축소되어 정의되어졌다.¹¹⁾ 한국의 부르주아 연구에서도 부르주아의 개념이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부르주아 출현 시기에 대해 연구자에 따라 조선시대, 일제강점기 또는 한국전쟁 후로 보고 있는데, 이는 부르주아를 어떤 개념으로 두는가

11) 성백용(2006), 「중세의 부르주아 : ‘새로운 인간’에서 ‘새로운 귀족’으로」, 『프랑스사연구』 14, p.28

에 따라 서로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본 연구에서는 부르주아 용어를 사용하지 않는 대신 부를 축적하여 새롭게 성장한 계층이라는 의미로 ‘신흥(新興) 계층’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신흥계층은 새롭게 부흥한 계층이라는 뜻으로, 새로운 변수를 계기로 하여 기존의 사회체제를 구성하는 계층과는 구분되는 집단으로 정의한다. 한국의 부르주아 개념은 서양의 부르주아 개념의 일부분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축약되어 정의된 현대적 의미로만 부르주아를 생각한다면 과거의 시점에서 부르주아를 지칭할 수 있는 것들이 한정적일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과거의 시점을 논하는 연구에서 오늘날의 개념으로만 용어를 사용하는 것은 보다 넓은 시야로 역사를 서술하는 것에 방해 요소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한 편, 조선시대 상업에 관한 선행연구를 통해 18세기 한양이 상업도시로 변모해가는 과정과 경제체제가 변화해가는 과정을 살펴보았다. 이러한 전반적인 조선시대 상업 발달 과정 속에서 연구자들은 상업의 발전상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로 경강(京江) 지역을 꼽는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알려진 도성 밖의 경강지역이 아닌, 도성 안에서의 상업 발달상을 보여주는 사례로 동북부 지역에 초점을 두어 서술한다. 특히, 동북부 지역 거주민들의 상업 활동을 중심으로 해당 지역에서의 상업이 성행함을 밝힐 것이다. 이 지역의 상업이 성장하였음을 나타내는 근거는 18세기 동부에 형성된 이현시장이다. 전우용(2001a)의 연구에서 광장시장을 설명하기 위해 그 모태인 이현시장을 소개하였으나, 광장시장을 연구하기 위한 배경으로 설명되었을 뿐이다. 또한 그의 연구에서는 이현시장 형성 요인으로 군인의 상업 행위 허용이라는 단일 사례를 꼽았는데, 본 연구는 이와 더불어 동북부 지역 거주민들의 상업 활동과의 연관성에 주목해 한양 동부의 종합적인 해석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바이다. 조선 초기부터 동북부 지역에 거주해 온 반인들의 현방 운영과 경모궁 개건(改建) 이후 거주하게 된 주민들의 상업 활동은 타지역민들과는 다른 동북부 지역만의 특이점이기 때문이다.

2. 도시사 연구

1) 도시계획 및 도시 공간 연구

(1) 조선시대

조선시대 한양은 비어있던 땅을 수도(首都)로 계획한 신도시로, 도시 구성 및 조직은 풍수지리와 『周禮』 「考工記」 편에 따라 결정되어 유지되었고, 1396년(태조 5) 5부(部) 52방(坊) 체계로 행정구역을 나누었다.¹²⁾ 한양의 수도 결정 논의와 풍수지리에 의한 국가시설 설립, 고려시대의 수도인 개경(開京)과의 비교 등 한양의 도시계획 연구는 다수 존재한다.¹³⁾ 특히, 김동수(2009)는 조선 왕조가 한양으로 천도(遷都)하는 배경 및 과정, 한성부(漢城府)가 성립되어 발전해나가는 모습을 기반시설과 행정체제 정비, 그리고 인구 증가 및 경제발전 양상을 통해 밝힌 것으로, 한양의 전반적인 변화상을 살펴볼 수 있는 연구이다.

조선 초기의 모습과 달리 중·후기에 들어서면 한양의 도시공간이 변화하기 시작한다. 한양은 새로운 신도시에 타지의 사람들을 이주시켜 온 것이기 때문에 조선 초기의 모습은 계획에 의한 모습이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도시 공간 안에서 사람들의 생활이 보태져 도시의 모습은 변화해나갔다. 본 연구에서는 조선시대 초기보다 중·후기에 공간구성이 변화하고 있다는 점에 집중하였다. 특히, 조선 후기는 앞서 살펴보았듯이 상업도시로 발전해가는 시기임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조선 후기 상업도시

12) 『朝鮮王朝實錄』 太祖 5년(1396) 4월 19일 (출처 : 한국고전번역원 [검색일 : 2016.06.27.]

13) 장지연(2000), 「개경과 한양의 도성구성 비교」, 『서울학연구』 15; 김홍순(2009), 「조선 개국 초 한양 천도(遷都) 논쟁」, 『국토계획』 44(4); 고동환(2011), 「조선시대 한양의 수도성-도시의 위계와 공간표현을 중심으로」, 『역사학보』 209; 박정해·한동수(2011), 「서울 문묘입지의 풍수적 특징 분석」, 『동방학』 21

화로 인해 한양이 여러 가지 변화를 겪고 있고, 이에 따라 새로운 공간구분 유형이 나타났다(고동환, 2006). 다양한 공간구분 유형에 따라 도시공간을 분류하는 작업은 한양의 초기 모습보다 공간이 복잡해지고 다양한 요소들이 혼재해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도시가 변화함으로 인해 새로 신설된 정부관서와 왕실기구들이 어느 공간에 입지해있는가에 따라 5부의 공간 구조가 변화했다(최주희, 2012). 19세기 말 고종의 도시개조사업에서 이루어진 경운궁 위주의 도시 구조 변화와 이를 통한 도시 근대화를 향한 노력 역시 한양의 도시 공간을 바꿔갔다(이태진, 1994).

이와 같은 도시의 발전과 노력에도 불구하고 개항 이후 조선은 외세의 유입에서 주도권을 갖지 못하고 일본에 의해 식민지배를 받게 된다. 외부세력에 의해 또 다시 한양의 5부는 각각 변화를 겪는다(박은숙, 2009). 북부와 서부는 개화정책의 주도세력이 밀집한 공간과 자본주의적 상업 활동이 성행한 공간으로 바뀌어갔고, 중부는 토착세력의 강성으로 외세의 힘이 닿지 않았으며, 남부는 청(淸)과 일본의 침략거점지로 변모해갔다. 그러나 그 변화 속에서 동부는 쇠락하거나 소외되었다.

(2) 일제강점기

일제강점기 경성은 일본에 의한 근대적 도시계획에 따라 변화해 갔다. 손정목은 도시계획사를 연구한 최초의 연구자로서, 조선시대 한양의 모습에서 개항기를 거쳐 일본의 도시계획에 의한 변화상까지 상세하게 기록하였다.¹⁴⁾ 특히, 일제강점기 도시계획에 대해 산재해있던 자료를 모아 저술함으로써 후대의 연구자들에게 도시계획의 기초 자료로 참고된다. 손정목의 연구를 뒤이어 경성 도시계획을 연구한 연구자는 염복규

14) 손정목(1977), 『朝鮮時代 都市社會 研究』, 서울 : 一志社; 손정목(1982), 『(韓國開港期)都市變化過程 研究 : 開港場・開市場・租界 居留地』, 서울 : 一志社; 손정목(1986), 『(韓國開港期)都市社會經濟史研究』, 서울 : 一志社; 손정목(1990), 『(日帝強占期)都市計劃 研究』, 서울 : 一志社; 손정목(1996a), 『(日帝強占期)都市社會相研究』, 서울 : 一志社; 손정목(1996b), 『(日帝強占期)都市化 過程 研究』, 서울 : 一志社

(2009)가 대표적이다. 그는 경성시구개수 사업의 전개과정과 경성시까지 계획의 특징 및 이를 통한 도시공간의 확장 및 재편 등 역사적 사실들을 나열한 기존의 연구에서 나아가 실제 사료와 함께 역사적 의미를 보충하여 재정리한 것으로 그 의미가 있다. 이 외에도 1920년대 경성도시계획의 성격을 경성도시계획연구회와 도시계획운동을 통해 설명한 연구, 경성의 도시계획에서 공원녹지를 다룬 연구, 전차노선과 부영버스 노선 연구 등 행정학과 역사학, 조경학, 건축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연구되고 있다.¹⁵⁾ 일제의 도시계획을 다룬 연구는 도시의 변화를 분석하기 위한 기초자료가 되므로 본 연구에서도 위의 선행연구를 토대로 경성의 도시계획을 파악한다.

도시 공간 및 사회상에 관련한 연구는 더욱 분야가 다양해진다. 역사학과 사회학, 경제학, 국문학, 건축학 등 다양한 관점에서 다수의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기존의 경성 도시 공간 연구에서는 일본인 구역인 남촌과 조선인 구역인 북촌을 대조하여 연구된 바가 많았고, 이들의 연구는 경성의 도시공간을 이분법적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기저에 깔려있었다.¹⁶⁾ 그러나 근래의 연구에서는 기존의 시각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지금까지의 연구와는 다르게 해석되고 있다. 김종근(2010)은 종래의 경성 내 일본인과 조선인 지역으로 분류되는 남촌과 북촌, 이

15) 五島 寧(1996), 『日本統治下 「京城」の都市計画に関する歴史的研究』, 東京工業大学 博士(工学)請求論文; 박세훈(2000), 「1920년대 경성도시계획의 성격 : 경성도시계획연구회와 도시계획운동」, 『서울학연구』 15; 최인영(2007), 「1928~1933년 京城府의 府營버스 도입과 그 영향」, 『서울학연구』 29; 최인영(2014), 『서울지역 電車교통의 변화양상과 의미(1899~1968)』, 서울시립대학교 일반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조세호(2016), 『경성부 도시계획에서 나타나는 공원녹지의 계획 양상』, 서울시립대학교 일반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6) 식민도시 내에 지배자의 공간과 피지배자의 공간으로 분리된다는 주장인 이중도시론은 세계적으로 1960년대 이후 식민도시의 공간구조를 설명하는 기본적인 틀로 이용되었다(김종근(2010), 「식민도시 京城의 이중도시론에 대한 비판적 고찰」, 『서울학연구』 38, p.2). 경성의 남촌과 북촌에 집중하여 서술한 연구는 대다수가 이중도시론을 바탕으로 둔 연구이다. 대표적으로 손정목(1996b), 「일본인의 도심부 점거와 남촌·북촌 현상」, 『(日帝强占期)都市化 過程 研究』, 서울 : 一志社; 김영근(1999), 『일제하 일상생활의 변화와 그 성격에 관한 연구 - 경성의 도시공간을 중심으로 -』,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전우용(2001b), 「종로(鐘路)와 본정(本町) - 식민도시 경성(京城)의 두 얼굴 -」, 『역사와 현실』 40; Hashiya Hiroshi, 김제정 옮김(2005), 『일본 제국주의, 식민지 도시를 건설하다』, 서울 : 모티브북 등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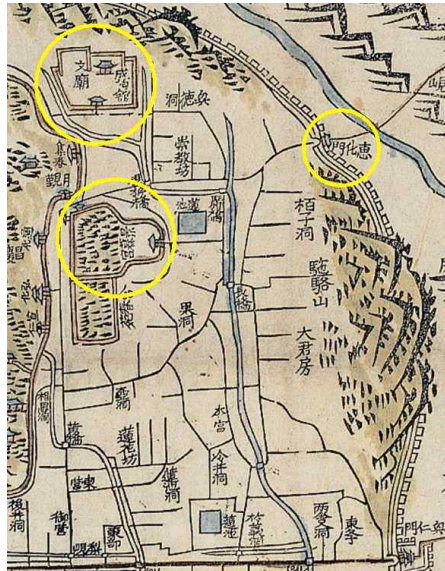
것을 의미하는 ‘이중도시’에 대해 비판적인 견해를 보인다. 식민도시가 이분법을 뛰어넘는 다양성을 지닌 도시임을 입증하기 위해 그는 상상지리(imaginative geographphies) 개념을 설명하면서 지배자에 의해 피지배자와 분리되도록 의도하는 이분법화 된 도시공간이 이루어졌음을 지적했다. 즉, 지배 권력의 공간을 우월하게 돋보이기 위해 피지배집단의 공간을 의도적으로 평가절하 했음을 의미한다. 김백영(2007)은 일본이 조선의 맥(脈)을 끊기 위해 경복궁 내의 총독부 청사와 남산의 조선신궁을 건설하였다는 ‘일제 단맥설(斷脈說)’에 대해 부정했다. 그의 주장은 경성 도심부의 버려진 노른자 땅을 이용하려는 경제적 합리성에 의한 입지선택이었고, 19세기 파리의 오스만(E. Haussmann) 지사(知事, préfet)가 이룬 도시개조사업을 경성에 도입하기 위한 실천 사례 중 하나였다는 것이다. 또한 조선신궁의 경우, 원래부터 일본의 신사는 공원처럼 이용되는 것이었기 때문에 경성 도심의 공원화계획을 가지고 있던 남산에 신궁을 배치한 것이라 말하며, 일제 단맥설은 과도한 해석이라고 보았다.

일제강점기 도시공간에 대한 연구 중 식민지적 근대화의 특징을 살펴보기 위해 경성 도심의 근대적 변화와 이를 일상 속에서 경험하는 사람들의 일상생활을 분석한 김영근(1999)은 기존의 연구와 차별을 두기 위해 당시에 발행된 신문 기사와 잡지, 문학작품을 통해 시대상을 확인하려 하였다. 김대한(2015)은 전차 개설로 인해 훼손되는 한양도성 문루 주변지역의 도시 변화를 살펴봄으로써 기존에 편향되어 있던 도시공간에 대한 연구대상지인 남촌과 북촌에서 벗어나 다른 지역의 변화상을 살펴 보았다. 두 연구는 기존의 연구와는 다른 차별성을 가지고 있어 본 연구를 수행함에 있어서 참고했으나, 일상적인 거주지역에서의 생활모습이 아닌 남촌과 북촌이라는 변화한 도심에서의 모습을 일상생활로 보았다는 점, 그리고 도시의 변화를 필지의 변화에 국한하였다는 점에서 각각의 연구에 대한 아쉬움이 남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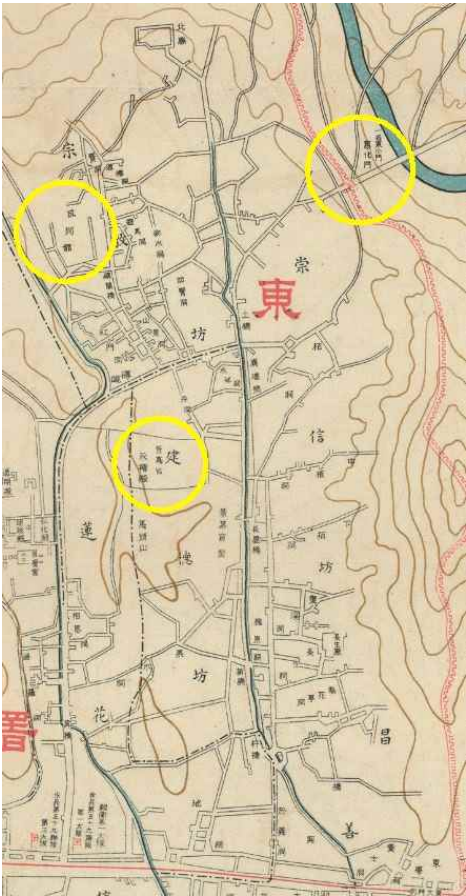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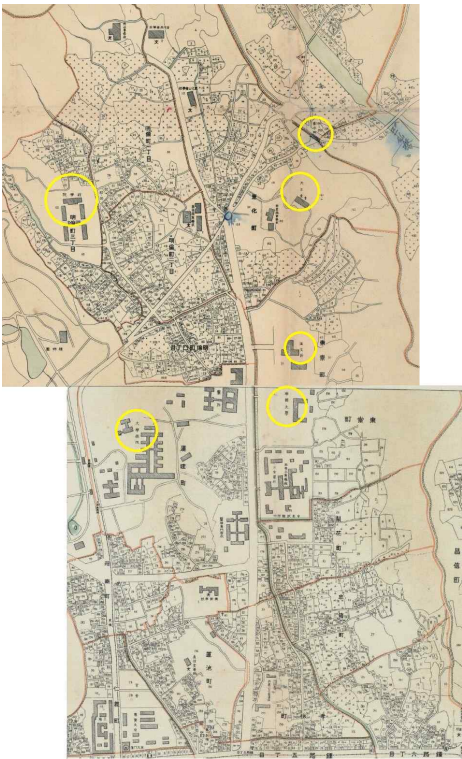
2) 동북부 지역 내 입지한 시설 연구

지역 내에 어떠한 시설이 존재했는가에 따라 지역민들의 생활 모습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당시 고지도에 표기된 시설은 무엇이 있는지 확인했다.

[표 2] 조선시대 지도에 표기된 입지시설

<p>[그림 5] 「漢陽圖」 중 일부</p> 	<p>[그림 6] 「首善全圖」 중 일부</p> 
<p>18세기 중반 제작 혜화문, 성균관 비고 : 지도를 바탕으로 필자가 표시함</p>	<p>1861년 제작 혜화문, 성균관, 경모궁</p>

[표 3] 일제강점기 지도에 표기된 입지시설

<p>[그림 7] 「最新京城全圖」 중 일부</p> 	<p>[그림 8] 「大京城精圖」 중 일부</p> 
<p>1907년 제작 혜화문(일명 동소문), 성균관, 경모궁</p>	<p>1936년 제작 동소문, 성균관, 천주당, 제국대학(법 문과, 대학의원)</p>

비고 : 지도를 바탕으로 필자가 표시함

위의 시설들의 경우, 국가에 의해 입지하게 된 것으로 이것들이 동북부 지역에 자리하게 된 요인과 입지 후의 모습을 통해 지역의 특성과 변

화를 파악할 수 있다. 이에 대한 선행연구를 고찰하고 입지 시설과 지역의 변화상과의 연관성을 유추하는 기초 자료로 삼았다.

성균관에 관련한 연구는 성균관 유생들의 생활 활동에 관련한 연구, 성균관을 둘러싼 반촌(泮村)과 반인(泮人) 연구가 있다. 김보영(2008)은 당대에 기록된 『泮中雜詠』과 『太學志』를 통해 유생들의 생활적 측면에서의 활동을 연구해 성균관 유생이 주변의 반촌과 어떤 연관을 맺을 수 있었는지 추론할 수 있었다. 장재천(2010, 2011)의 경우, 반촌의 특성과 반인들의 경제적 활동인 현방(懸房) 및 그들의 놀이문화에 대해 연구하였다. 박지영(2013)은 조선 초기부터 있었던 반촌이 조선 후기로 갈수록 공간적으로 확대되고 재정 위기를 겪는 성균관이 유지되기 위해 그 역할이 더욱 커지는 변화하는 양상을 연구하였다.¹⁷⁾

혜화문에 관련한 연구는 이에 대한 단독 연구는 없으나, 한양 도성의 성문 중 하나로 연구된 바가 있다. 그러나 건축적 측면에서 성문을 다룬 연구가 다수이고, 성문의 의미를 분석한 연구는 구본현(2012)의 연구가 있다. 그는 한양 성문에 대한 한시(漢詩)를 통해 각각의 성문이 조선인들에게 어떤 의미로 작용했는가를 분석하였다.

경모궁에 관련한 연구는 경모궁 의궤, 경모궁 제례악, 경모궁의 입지 관련 연구로 분류할 수 있다. 본 연구와 관계가 있는 경모궁의 입지에 대한 선행연구는 정송이(2014)의 경모궁이 입지하게 된 배경과 그 과정, 그리고 변화된 공간 구성을 다룬 연구와 앞서 언급한 김동철(2001)의 경모궁 입지과정에서 있었던 모민(募民)과 그들의 경제활동을 다룬 연구가 있다.

「大京城精圖」(1936년)에서 보이는 천주당은 본래 백동 수도원으로 1907년 설립되었다. 백동 수도원에 관련한 연구는 독일의 베네딕도회가 한국으로 진출하게 된 배경과 그 활동을 다룬 연구가 있다. 특히, 장정

17) 김보영(2008), 『18세기 成均館 儒生の 생활과 활동 : 『泮中雜詠』과 『太學志』를 중심으로』, 숙명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장재천(2010), 「조선시대 성균관의 반촌과 주변 환경 연구」, 『인문사회논총』 17; 장재천(2011), 「조선후기 성균관 반인의 현방과 본산대놀이」, 『韓國思想과 文化』 58; 박지영(2013), 『조선후기 泮人의 존재양상과 泮村의 공간 변화』, 부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란(2003)은 백동 수도원에 한하여 당시 그들이 실천했던 선교 활동인 교육 사업에 대해 연구하여 혜화동 인근에 미친 영향을 다루었다.

경성제국대학(이하 경성제대)에 관련한 연구는 역사학·교육학·사회학·국문학·철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연구된 바 있다. 본 연구를 진행하기 앞서 살펴본 선행연구는 당시 사회에서의 경성제대에 대한 의미를 알아보기 위한 것에 초점을 두었다. 경성제대의 설립 배경과 과정, 운영 및 교육 등 종합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이러한 내용을 담은 이충우(1980)의 『京城帝國大學』을 참고하였다. 특히, 차남희·이진(2010)의 연구는 경성제대 학생들의 출신배경을 조사하여 졸업 후 이들의 사회적 지위가 상승하였다는 결과를 도출함으로써 조선인이 느끼는 경성제대의 의미, 졸업생들의 생활모습 유추를 가능하도록 하였다.

3) 동북부 지역 연구

동북부 지역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극히 드물다. 조선시대와 일제강점기 대다수의 지역 연구는 관료들의 거주지역인 북촌과 서촌, 그리고 도심부인 종로와 진고개에 대한 연구이다. 따라서 동북부 지역의 역사를 밝히는 작업은 기존의 알려진 사실 외의 새로운 면을 모색할 수 있는 작업이 될 수 있음을 의미하고, 이를 통해 기존의 통념과는 다른 지역의 정체성을 재정립할 수 있는 기초 자료가 될 것이다.

조선시대 연구 중 오세현(2015)은 한양 동부 관동(館洞)에 기반을 둔 연안이씨(延安李氏)를 다루었다. 그의 연구에서는 관동의 지리적 변화와 대표적 거주민을 밝히고 15세기 관동에 터를 잡은 연안이씨와 관동파(館洞派)의 형성·확산 및 분파를 설명하였다. 안순태(2013)는 영조代 동촌파(東村派)로 불리는 문인(文人)들의 교유양상을 밝혔다. 두 연구를 통해 당시 동부에 거주하던 사대부를 확인할 수 있었고 동부의 전반적인 모습을 살펴볼 수 있었다.

일제강점기 해당 지역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지역의 물리적 변화를 주로 다룬 연구이다. 강창우(2015)는 도시공학적 측면에서 일제강점기 해화동의 가구(家口)와 필지를 통한 도시조직 변화과정을 서술하였다. 이 연구는 기존 일제강점기 도시변화를 분석하는 주된 연구들의 대상지에서 벗어나 새로운 지역을 연구한 것으로, 변화한 도심 외에도 사람들이 사는 일상생활 공간 역시 변화하였음을 시사한다. 주상훈(2012)은 현재의 대학로 지역 즉, 동숭동과 연건동 일대에 설립된 일제강점기 관립 학교들의 입지 배경과 특징, 설립 이후의 도로 정비 과정을 연구하였다. 즉, 동북부 지역의 도로 정비는 학교의 입지와 연관이 있음을 밝힌 연구이다.

4)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선행연구 검토 결과, 다음과 같은 특징 및 한계가 있었다.

첫째, 연구자의 전공에 따른 연구 결과이다. 예를 들면, 역사학계에서 진행한 연구들은 밝혀지지 않은 사실을 서술해 알리는 정보제공 형태의 연구, 사회학계에서의 연구는 당시 사람들의 모습에 초점을 둔 시대상 연구, 건축 및 도시공학의 연구는 건축물의 변화 및 필지 단위의 변화를 주로 검토하였다. 지금까지의 연구는 연구자의 전공에 따라 하나의 시각으로만 도시의 역사를 바라본 것이다. 도시는 무수한 활동들에 의해 변화해가는 유기체적인 공간이기 때문에 어느 한 가지의 연구만으로는 도시의 변화 모습을 설명하는데 한계가 있다. 이러한 한계점을 보완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종합적 시각에서 분석하는 융복합적 도시사 연구를 진행한다.

둘째, 피지배자의 입장에서 바라본 이분화된 식민 도시 또는 일본의 계획은 조선 말살을 위한 것으로 귀결시키는 연구가 다수이다.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김종근(2010)과 김백영(2007)은 이러한 사고방식을 탈

피할 것을 주장하지만 아직까지 이러한 생각은 연구의 기저에 반영되어 있다. 기존 연구들의 바탕이 되었던 식민사관(植民史觀)과 민족사관(民族史觀)의 인식에서 벗어나, 지배국가의 민(民)도 피지배국가의 민(民)도 아닌, 그 시대를 살았던 일반 민(民)으로서 시대상을 바라볼 필요가 있다. 근대 도시 경성에서 근대 도시민으로 살아가는 사람의 입장에서 관찰할 수 있도록 선입견 없이 역사적 고증을 통한 연구를 진행하겠다. 이는 남촌과 북촌, 상류층과 하류층, 지배자와 피지배자로 분리된 개념 하에서 연구하는 방식을 벗어나 하나의 지역에 어떠한 사람들이 살았는지 그 모습을 다루는 연구가 될 것이다.

본 연구는 역사적 사료와 위에서 살펴본 선행연구에서 이루어진 분석을 바탕으로 비판적 수용과정을 거쳐 한양도성 안 동북부 지역에 기반한 도시사를 서술한다. 즉, 연구 대상 지역으로 선정한 동북부 지역에 실현된 도시계획에 의해 물리적으로 변화해나가는 지역상을 밝히고, 지역의 변화가 지역민에게 미치는 영향을 통해 지역의 정체성을 파악하는 종합적 연구이다. 이것은 도시계획 분야에서 상대적으로 미비한 지역의 역사를 채우는 연구이고, 미래의 도시계획을 함에 있어서 지역의 특성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가 될 것이며, 도시와 도시민의 유기적 연관성을 다시 한 번 환기시키는 연구가 될 것이다.

Ⅲ. 조선시대 동북부 지역

1392년 조선 왕조가 건국된 이후, 1394년 한양을 조선의 도읍지로 결정하고 도성 건설을 본격화한다. 이후 정종代 개경으로 환도하였으나, 1405년 다시 태종代 한양으로 옮겨와 도읍지 조성을 위한 대대적인 정비 사업을 시작한다. 한양은 중국의 『周禮』 「冬官考工記」를 반영한 종묘사직과 궁궐, 시장 등의 위치가 정해짐으로써 기본적인 도시 구조의 뼈대를 갖추어갔다. 한양은 약 100여 년의 기간 동안 조선의 수도로 지속해오면서 조선 초에 형성된 도시 구조 속에서 변화와 발전을 해왔다.

본 장에서는 앞서 2장(선행연구 고찰) 중 동북부 지역 내 입지한 시설 연구에서 고지도를 통해 확인한 동북부 지역의 시설에 대한 연구를 바탕으로 조선시대 지역의 변화상을 살펴본다. 조선시대의 경우, 불충분한 자료로 인하여 일반민들에 대한 정보를 파악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지역에 입지한 대표적인 시설물을 바탕으로 주민들과의 연관성을 살펴보는 것을 연구의 시작으로 삼는다. 지역 내에 시설이 들어서면서, 그리고 그것이 지속되면서 지역 주민과의 교류가 형성되어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앞선 선행연구를 통해 고지도에서 확인한 동북부 지역 내 입지한 국가시설과 관련한 주민들의 경제활동을 통해 지역의 정체성을 파악한다.

북문을 대신하여 대문의 역할을 한 혜화문을 통해 동북부를 포함한 동부 전반의 지리적 역할과 동부지역의 모습을 살펴본다. 조선 초부터 자리한 성균관을 통해 성균관 노비인 반인의 존재를 확인하고, 정조 즉위 후 경모궁을 조성해가는 과정에서 실시한 모민을 통해 이들의 경제활동을 바탕으로 동북부 지역민의 모습을 확인한다. 위의 세 가지 요소는 18세기 한양의 상업발달과 맞물려 동부지역의 이현시장이 형성될 수 있었던 가능성을 제기한다.

1. 혜화문(惠化門)과 동부(東部)

1396년(태조 5년) 9월 24일, 도성 축조가 끝나고 한양 성곽에 8개의 문의 이름이 붙여졌다.¹⁸⁾ 당시 기록에 의한 성문의 명칭과 속칭은 아래 [표 4]와 같다. 혜화문(惠化門)은 동북쪽의 성문으로, 원래 정식 명칭이었던 홍화문(弘化門)에서 1511년(중종 6년)에 바뀐 것이다.¹⁹⁾

[표 4] 1396년 성곽 축조 당시의 성문 명칭과 속칭

방위	명칭	속칭	비고
북	숙정문(肅淸門)		현재 숙정문(肅淸門)
동북	홍화문(弘化門)	동소문(東小門)	현재 혜화문(惠化門)
동	흥인문(興仁門)	동대문(東大門)	
동남	광희문(光熙門)	수구문(水口門)	
남	숭례문(崇禮門)	남대문(南大門)	
서남	소덕문(昭德門)	서소문(西小門)	
서	돈의문(敦義門)		
서북	창의문(彰義門)		

출처 : 『朝鮮王朝實錄』 太祖 5년(1396년) 9월 24일(한국고전번역원 [검색일 : 2016.07.25.]

4개의 정방위에 대문을 세우고 그 사이에 4개의 소문을 세웠다. 한양 종로를 중심으로 그 북쪽에는 북문인 숙정문(肅淸門)²⁰⁾, 서북쪽의 창의문(彰義門), 동북쪽의 혜화문(惠化門) 총 3개의 문이 있다. 실질적으로 숙정문은 정북방향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4대문에 해당하지만 다른 동·서·남대문과 달리 대문의 역할을 수행하지 못했다. [그림 9]에서 볼 수 있듯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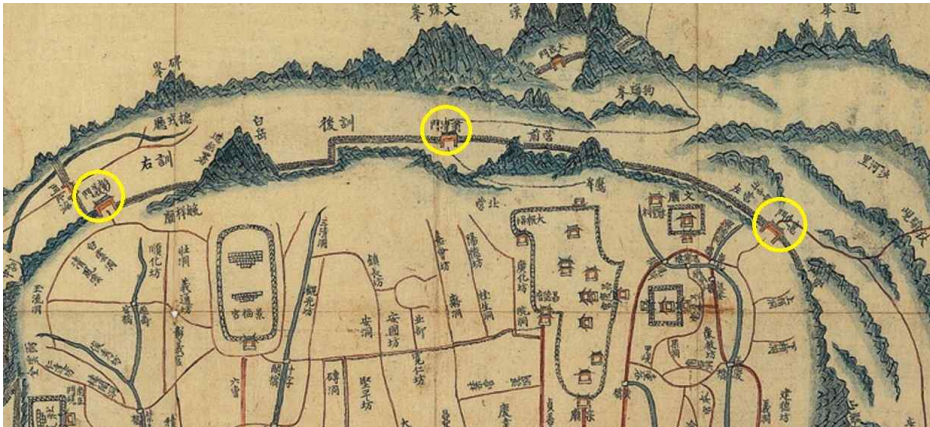
18) 『朝鮮王朝實錄』 太祖 5년(1396년) 9월 24일 (한국고전번역원 [검색일 : 2016.07.25.]

19) 『東國輿地備攷』 제1권 (출처 : 한국고전번역원 [검색일 : 2016.07.25.]

20) 원래의 이름은 [표 4]에서와 같이 숙정문으로 정해졌으나 언제 숙정문으로 변경되었는지에 대한 정확한 기록은 알 수 없다.

이, 숙정문을 통과하는 길은 양 옆의 창의문과 혜화문을 통과하는 길에 비해 그 선이 얇고 선명함의 정도가 약하게 나타나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곧 사람들의 통행이 그만큼 활발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그림 9] 「朝鮮城市圖」 중 일부



비고 : 「朝鮮城市圖」(1830) 지도를 바탕으로 필자가 위치를 표시함. 왼쪽부터 창의문, 숙정문, 혜화문

조선시대의 사료에서도 숙정문의 기능은 사람이 오고가는 통로가 아닌 주술적인 의미로 작용했음을 알 수 있다.

“승례문(崇禮門)을 닫고 숙정문(肅靖門)을 열었다. 또 시장을 옴겼다. [비가 안 올 때에 항상 하는 일이다.]”²¹⁾

“이번은 온갖 곡식이 장차 성숙(成熟)하게 되었는데 가뭄 기세가 이러하여, 이 달에 비가 오지 않으면 추수할 가망이 없게 되었으니 위에서도 깊이 우려스럽다. 승례문(崇禮門)을 닫고 숙정문(肅靖門)을 열며 피고(皮鼓)를 치지 않고 시장을 옴기는, 비를 비는 것에 관계되는 모든 일들을 시급하게 거행해야 할 것이다.”²²⁾

21) 『朝鮮王朝實錄』 中宗 22년(1527년) 5월 9일 (출처 : 한국고전번역원 [검색일 : 2016.07.25.]

22) 『朝鮮王朝實錄』 中宗 23년(1528년) 7월 24일 (출처 : 한국고전번역원 [검색일 :

“가뭄이 극심했기 때문에 숭례문(崇禮門)을 닫고 숙정문(肅靖門)을 열었다.”²³⁾

“예조에서 아뢰기를, ‘춘당대(春塘臺)에서 석척 동자(蜥蜴童子)가 기우제를 지낼 때 숭례문(崇禮門)을 닫고 숙정문(肅靖門)을 열어 3일 만에 그치도록 하소서.’ 하니, 임금이 옳게 여겼다.”²⁴⁾

위의 기록에서 공통적으로 숙정문에 대해 시행한 일은 비가 오지 않을 때 숙정문을 열어두는 일이었다. 평소에는 문을 닫아두었다가 기우제의 일환으로 그 문을 열어둠으로써 숙정문은 주술적인 기능으로 활용되었다. 이는 음양오행의 논리에 따라 불의 기운이 많은 숭례문을 닫고 물 기운인 숙정문을 열게한 것이다.²⁵⁾

4대문으로써의 기능을 수행하지 못했던 숙정문을 대신한 성문은 혜화문이었다. 신증동국여지승람 기록에 따르면 “대개 숭례문·홍인문·돈의문·혜화문이 정문이고 나머지 네 문이 사잇문이다.”²⁶⁾라고 하였다. 정방위 4대문에 해당하는 동·서·남대문과 함께 혜화문이 북문의 자리를 대신하고 있다. “도성(都城) 8문·목멱산 봉수(烽燧)·오간수문(五間水門)에 금군(禁軍)을 분배하여 입직(入直)하도록 하는데 4개의 정문 숭례·홍인·혜화·돈의에는 호군(護軍) 1명, 부장(部將) 1명, 4개의 유문(維門) 창의·숙정·소의·광희에는 부장(部將) 2명, …”²⁷⁾ 사료에서도 알 수 있듯이, 혜화문이 숙정문을 대신하여 정문의 역할을 하고 있고, 그만큼 중요한 성문이기 때문에 가장 우수한 군인으로 뽑힌 호군 16명

2016.07.25.]

23) 『朝鮮王朝實錄』 宣祖 9년(1576년) 5월 4일 (출처 : 한국고전번역원 [검색일 : 2016.07.25.]

24) 『朝鮮王朝實錄』 英祖 19년(1743년) 5월 16일 (출처 : 한국고전번역원 [검색일 : 2016.07.25.]

25) 김현욱(2003), 『『조선왕조실록』에 의한 한양의 입지와 도성관리』,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p.77

26) 『東國輿地備攷』 第1卷 (출처 : 한국고전번역원 [검색일 : 2016.07.25.]

27) 『萬機要覽』 軍政篇2 「各處入直」 (출처 : 한국고전번역원 [검색일 : 2016.07.25.]

중 1명을 배치하는 것이다. 숙정문이 혜화문에게 북문의 역할을 내어준 이유는 주술적인 이유 외에, 지리적으로 북악산 고개에 위치해 있어 많은 사람들의 왕래가 힘들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숙정문의 문루가 없는 것으로 보아, 숙정문의 성격 자체가 적에게 발각되지 않기 위한 암문(暗門)의 성격을 가지고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²⁸⁾ 마지막으로 보행자의 효율성 측면에서, 숙정문을 지나 이어지는 길인 경원가도(京元街道)는 혜화문을 통해서도 갈 수 있는 길임을 감안한다면 숙정문 보다 비교적 평지에 위치한 혜화문을 이용하는 것이 편리했을 것이다.²⁹⁾

“혜화문으로 들어오는 어상(魚商)과 시태(柴駄)는 모두 백동(柏洞)의 지름길을 경유하라고 명하였다.”³⁰⁾

“... 근래 조정에서 동춘에 새로이 정착한 백성들을 특별히 진념하여 어상의 여객주인으로 만들어 매 태(駄)에 그 연세(烟稅)를 받아 생활할 수 있게 하였으니 그 은혜가 컸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오히려 부족하다고 여기어 작당하여 누원(樓院)과 흥인지문·혜화문에서 기다렸다가 동북 지방에서 온 어상(魚商)들을 자기들 집으로 몰아가서 억지로 염가(廉價)를 매기는데, ...”³¹⁾

“... 오늘 이후로는 한결같이 처음에 정한 절목에 따라 단지 혜화문을 통하여 들어온 북도 상인의 물건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세금을 거두도록 ...”³²⁾

28) 구본현(2012), 「漢詩文에 나타난 漢陽城門의 성격과 의미」, 『서울학연구』 47, p.46

29) 김현욱(2003), p.75

30) 『日省錄』 正祖 5년(1781년) 12월 15일 (출처 : 한국고전번역원 [검색일 : 2016.06.27.]

31) 『日省錄』 正祖 14년(1790년) 10월 21일 (출처 : 한국고전번역원 [검색일 : 2016.06.27.]

32) 『承政院日記』 高宗 5년(1848년) 4월 9일 (출처 : 한국고전번역원 [검색일 : 2016.06.27.]

한양은 도시 내에서 자급자족이 불가능하였기 때문에 한양을 둘러싼 성문을 통해서 물자를 받아들여야 했다. 이러한 이유로 성문은 사람과 물자의 왕래가 빈번하였고, 그 인근에 사람들이 사는 마을이 형성되거나 시장이 형성될 가능성이 농후했다. 혜화문 역시 위의 사례들에서 알 수 있듯이 사람과 물자의 이동이 활발하였으나, 조선 중기까지 혜화문 일대에는 인가가 들어서지 못하였고 시장이 형성되지 않았다. 한양을 둘러싼 내사산 가운데 동부에 위치한 낙산은 나머지 북악산과 인왕산, 그리고 남산에 비해 고도가 낮다. 이러한 지형적 요인은 동부에 인가와 시장이 형성하지 못하는 배경이 되었다. 아래의 사료를 통해 그 내용을 자세히 유추할 수 있다.

“우리 국초(國初)에는 경복궁을 세워 담 밖 백 척(尺) 안에 집을 짓지 못하게 하였고, 창덕궁은 처음에 이궁(離宮)이었으므로 좁아서 제도를 갖추지 못하였으나, 이제는 이어서 오래 거처하매 이미 정궐(正闕)이 되었거늘, 성군관이 궁장(宮牆)에 다가 가까우니, 국가의 체모가 온편치 못하다.”³³⁾

“선인문(宣仁門) 안에 담을 가로로 쌓으라. 또 함춘원(含春苑) 동쪽부터 시작하여 비껴 이어가서 동으로 동소문까지 쌓고 그 모퉁이에 문을 만들어서 내원(內苑)으로 통하게 하라. 또 동소문까지 바깥 담을 쌓으라. 또 그 밖의 인가 뒤에 민호(民戶)로 하여금 각자 담을 쌓아 올라가서 내원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라.”³⁴⁾

“이현(梨峴)을 지나는 사람들이 대궐을 내려다보니 매우 불가하다. 문을 세워 거동할 때에만 열도록 하라.”³⁵⁾

33) 『朝鮮王朝實錄』 燕山君 10년(1504년) 7월10일 (출처 : 한국고전번역원 [검색일 : 2016.07.25.]

34) 『朝鮮王朝實錄』 燕山君 10년(1504년) 7월 23일 (출처 : 한국고전번역원 [검색일 : 2016.07.25.]

35) 『朝鮮王朝實錄』 燕山君 9년(1503년) 11월 2일 (출처 : 한국고전번역원 [검색일 :

“궁궐은 엄밀하여 내외(內外)가 현격(懸隔)하여야 하는데, 창덕궁은 담이 낮다. 바깥 사람이 환하게 보지는 못하지만, 모서리만 보이더라도 불가한 일이니, 옛 담대로 더 쌓아야겠고, 또 이현(梨峴)에 문을 만들되 일이 없을 때는 항상 닫아두는 것이 어떠한가?”³⁶⁾

“경복궁이 내려다보이는 곳과 타락산(馳駱山) 밑의 인가를 다시 살펴본 뒤에 철거하고, 우선은 이현(梨峴)에 문을 세우며 궁궐 담을 높이 쌓도록 하라.”³⁷⁾

“높은 곳 인가의 철거해야할 것을, 내일까지 먼저 동소문에서 타락산·인왕산 등처에 이르기까지 살피되, 만약 일찍 끝나치면 남산 높은 데의 인가도 살피도록 하라.”³⁸⁾

조선 초 연산군(燕山君)은 창덕궁에 거주하면서 경복궁 담 밖으로 일정 거리만큼 일반민의 인가를 허락하지 않았던 것처럼 창덕궁 내부가 백성들에게 보일 것을 염려하여 인근의 마을을 철거하였다. 그는 창덕궁 주변의 지대가 높은 곳은 최대한 봉쇄하고자 했던 것으로 보인다. 임진왜란 때 경복궁이 불타면서 전란 후 창덕궁을 정궁(正宮)으로 한 이래로는 이곳에 마을이 들어서게 되면 창덕궁을 내려다 볼 수 있다는 근거로 동부에 인가가 들어서는 것을 방지하였다. 이는 한양의 동쪽 성곽을 이루는 낙산 주변은 물론, 창경궁과 낙산 사이에 언덕이 있었기 때문이다. 지형적 요인으로 동북부 지역에는 인가가 들어설 수 없었고, 이는 민에

2016.06.2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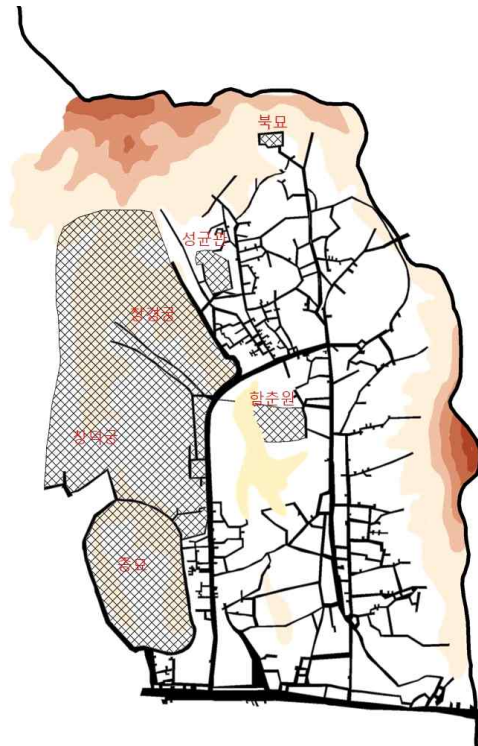
36) 『朝鮮王朝實錄』 燕山君 9년(1503년) 11월 4일 (출처 : 한국고전번역원 [검색일 : 2016.06.27.]

37) 『朝鮮王朝實錄』 燕山君 9년(1503년) 11월 18일 (출처 : 한국고전번역원 [검색일 : 2016.06.27.]

38) 『朝鮮王朝實錄』 燕山君 10년(1504년) 9월 7일 (출처 : 한국고전번역원 [검색일 : 2016.06.27.]

의한 자연적인 개발이 이루어지지 않은 채 저개발 지역으로 남을 수 있는 요인이 되었다.

[그림 10] 동북부 지역의 지형



비고 : 「最新京城全圖」(1907)에 표기된 등고선을 바탕으로 필자가 GIS 작업을 통해 제작함

대문의 역할을 하면서 사람과 물자의 활발한 이동량을 보인 혜화문의 덕을 보지 못하고 동부의 미발전 상태는 영조代까지 이어졌다. 영조 27년 이전으로 추정되는 행정 구역 개편에서는 한성부 내의 행정조직 정비 과정에서 다른 部에 비해 동부만 12개의 방(坊)에서 6개의 방으로 축소되었다.³⁹⁾ 이는 나머지 4개의 部와 비교하면 동부의 거주인구가 적음을

39) 오세현(2015), 「조선 후기 한양 동부(東部) 관동(館洞)의 인문지리와 연안이씨(延安李氏) 관동파(館洞派)」, 『서울학연구』 61, p.35-36

알 수 있다. 아래의 사료는 동부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 남소문(南小門)이 닫히게 된 뒤에는 그 곳에 사는 백성들이 생업을 잃어버렸고, 사람들이 집을 짓는 것도 모두 동쪽을 피하여 서쪽으로 나아갔기 때문에 남쪽으로 한강부터 북쪽으로 관동(館洞)⁴⁰⁾에 이르기까지 사람과 물산이 날로 쇠퇴하여 평시의 여염집들이 대부분 빈터가 되었습니다. 한 도성에서 동쪽과 서쪽이 부실한 것과 실한 것이 고르지 못하여 이익과 손해가 현격하게 다르니, ...”⁴¹⁾

“대대로 전해 내려오던 집을 팔아 동촌(東村)의 구석진 곳으로 이사를 하여 세상을 멀리할 뜻을 보였습니다.”⁴²⁾

삶의 터전을 잃은 사람들은 다른 곳으로 이동해야 했는데, 그들에게 동부는 선택지가 아니었다. 동부에는 거주인구가 비교적 적어 대부분 빈터라는 점에서 동부지역이 얼마나 한산하고 발전하지 못한 지역인지 유추할 수 있다. 두 번째 인용 사료에서 보는 바와 같이, 동부는 한양도성 안에 있는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구석진 곳으로 인식되어 상당히 외진 지역이었음을 나타낸다.

2. 성균관(成均館)과 반인(洋人)

40) 관동(館洞)은 성균관에 인접한 지역을 의미하는 동명(洞名)으로, 행정구역 상 동부의 연화방과 숭교방 사이에 위치한 지역이다. (출처 : 오세현(2015), p.39)

41) 『承政院日記』 英祖 1년(1725년) 1월 11일 (출처 : 한국고전번역원 [검색일 : 2016.06.27.]

42) 『朝鮮王朝實錄』 英祖 51년(1775년) 9월6일 (출처 : 한국고전번역원 [검색일 : 2016.06.27.]

성균관(成均館)은 국가가 설립한 최고의 국가기관으로, 고려시대 개경에 입지해 있다가 조선 건국 이후 1397년 한양 숭교방 지역으로 이전해 왔다. 성균관 주변 지역은 성균관을 중심으로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반촌(泮村)이 형성되었다. 반촌은 성균관에서 역을 수행하는 반인(泮人)들이 거주하는 곳이자 성균관 유생들이 성균관 밖에서 숙식(宿食)을 해결할 수 있는 곳이기도 하였고, 유생들이 바둑과 같은 여가생활을 즐길 수 있는 공간이기도 하였으며, 지방에서 과거시험을 치르기 위해 상경한 이들을 위한 임시 거처이기도 했다. 여기서 반인과 반촌은 성균관의 별칭인 반궁(泮宮)에서 그 이름을 따온 것이다. 반인은 고려시대 안문성공(安文成公)이 학교가 쇠퇴함을 안타까워하여 국학을 세우면서 노비 100명을 헌납한 이들이 대대로 이어져 내려온 입역노비이다.⁴³⁾ 이들은 문묘수호(文廟守護)와 유생공궐(儒生供饋)를 위하여 사역하는 노비로, 입역의 편리성과 성균관의 노비 지배 효율성을 위해 성균관 주변에서 거주하였다.⁴⁴⁾

반인은 노비의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성균관에 입역하는 노비라는 이유로 국가로부터 중요성을 인정받아 특권이 존재했다. 그들이 문묘수호와 유생공궐을 실행하기 위해 주어진 임무 중 성균관에서 올리는 제사와 유생들의 식사 준비는 쇠고기를 필요로 하였다. 당시 조선은 우금정책(牛禁政策)을 펴고 있었기 때문에 국가의 허락에 의해서만 소를 도살할 수 있었다. 그러나 성균관은 위와 같은 이유로 쇠고기가 필요했고, 이 명목 하에 성균관 내에 도사(屠肆)를 설치해 반인이 그 일을 담당하게 되었다. 또한 국가는 반인의 성균관에 대한 신공(身貢)으로 인해 농업 및 수공업 등과 같은 생계유지를 위한 업(業)을 별도로 행할 수 없기 때문에 반인의 생계유지를 위하여 남은 쇠고기 및 부산물들을 판매할 수 있도록 허락하였다. 이는 다른 각사노비와 같이 역(役)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동일한 의무를 가지고 있지만, 특히 반인에게는 경제적 혜택이 주어

43) 尹櫓, 『無名子集』 詩稿 2冊「泮中雜詠」17수 (출처 : 한국고전번역원 [검색일 : 2016.06.27.]); 박지영(2013), p.2

44) 박지영(2013), 『조선후기 泮人의 존재양상과 泮村의 공간 변화』, 부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1

저있음을 알 수 있다.

[표 5] 19세기 현방의 수와 위치

지역	수	현방의 위치
동부	3곳	광례교(廣禮橋) · 이교(二橋) · 왕십리(往十里)
서부	7곳	태평관(太平館) · 소의문밖(昭義門外) · 정릉동(貞陵洞) · 허병문(許屏門) · 치주현(治鑄峴) · 육조앞(六曹前) · 마포(麻浦)
남부	4곳	광통교(廣通橋) · 저동(苧洞) · 호현동(好賢洞) · 의금부(義禁府)
북부	3곳	의정부(議政府) · 수진방(壽進坊) · 안국방(安國坊)
중부	5곳	하량교(河良橋) · 이전(履塵) · 승내동(承內洞) · 향교동(鄉校洞) · 수표교(水標橋)

출처 : 『東國輿地備攷』卷2 漢城府 舖肆

도사가 18세기에 현방(懸房)으로 체제를 변환하면서부터 반인에게 주어진 경제적 혜택은 더욱 극명히 나타났다. 현방은 시전(市廛)의 형태로 한양 내 쇠고기 판매에 대한 독점권을 가지고 있던 점포이고, 그 운영주체는 반인이었다. 도사와 현방의 명칭이 혼재되어 사용하기 시작하여 도사가 현방으로 시전화(市廛化)된 정확한 기록은 없으나, 1744년 흥년으로 하여금 반인의 생계유지를 위해 현방을 창출하였다는 기록으로 보아 이때부터 공식적인 상업점포가 되었음을 알 수 있다.⁴⁵⁾ 성균관 내부에서 사용하기 위해 도살하던 소를 시장에서 판매하기 위한 용도로 공급을 확대한 것은 당시의 시대적 배경 때문이다.

당대의 상황을 살펴보면 16세기 말 임진왜란과 정유재란 그리고 17세기 초 정묘호란과 병자호란으로 인하여 국가의 기강이 무너졌을 뿐 아니라 전쟁으로 인한 재정 악화와 사람들의 피난에 의해 사회가 극히 어지러운 때였다. 이러한 와중에 찾아온 평년과 다른 불안정한 기후는 농업 생산량에 영향을 미쳐 국가에서 거둘 수 있는 세금도, 백성들의 경제적

45) 박지영(2013), p.21 재인용

상황도 불황기였다. 혼잡한 사회적 상황은 성균관 운영에 영향을 미쳤다. 전쟁으로 인하여 토지가 황폐화되고, 왜란 후 폐지된 직전제(職田制)는 토지의 사적 소유를 가능하게 하여 각 아문(衙門)과 궁방(宮房)으로부터 성균관 소유의 토지를 침탈당하게 되었다.⁴⁶⁾ 이로 인해 성균관의 주요 재원인 학전(學田)에서의 수세(收稅)가 이전의 상황에 미치지 못했다. 또한 반인의 신공(身貢)으로 하여금 성균관에서 필요한 각종 물자를 공급받았던 성균관의 재원(財源)에 피해가 발생했다. 전쟁 후 전체적으로 노비의 수가 감소하였고, 특히 성균관 노비의 경우 다른 각사노비에 비하여 잡역이 없다는 이유로 신공을 늘려 그것이 과중하다는 이유로 도망 노비의 수가 증가하였다.⁴⁷⁾ 더욱이 임진왜란으로 하여금 성균관 건물이 동·서재의 세 네 개 방만 남고 모두 불타버렸다.⁴⁸⁾ 이를 복구하기 위하여 많은 양의 자금이 투입되었고, 30여 년에 걸친 재건작업과 그 이후의 거듭된 확장사업을 이어갔다.⁴⁹⁾ 성균관 복구 작업을 위한 자금 마련책은 항상 고민이었을 것이다.

한 편, 성균관 밖에서의 사회적 상황을 살펴보면, 전쟁 후 대동법(大同法)이 시행되기 시작하여 점차 18세기 중반까지 전국적으로 확대되면서 교환경제체제로 전환되어갔다. 교환경제체제는 한양이 상업도시로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한 계기가 되었다. 이에 따라 경제적 부를 축적해나가며 성장한 중인층(中人層)은 한양에서 양반 문화를 모방해나가며 쇠고기 수요량을 증가시켰다.⁵⁰⁾ 이러한 사회적 변화상은 이전까지 국가에 의해 제한되었던 소 도살과 비싼 가격으로 인하여 상류층만 누릴 수 있던 쇠고기 수요층을 변화시켰다. 이와 같은 시대적 배경과 당시의 성균관 재정 위기로 인하여 반인에게 허용되었던 도사는 본격적으로 시

46) 최은정(1997), 「18세기 懸房의 商業活動과 運營」, 『梨花史學研究』 23-24, pp.85-87

47) 최은정(1997), pp.86-88

48) 성균관대학교 교사편찬위원회(1998), p.185; “예조 관서 이증(李增)을 보내어 유생들을 거느리고 문묘의 터에 국읍하게 하였다.”(『宣祖修正實錄』 宣祖 26년(1593년) 10월 1일 (출처 : 한국고전번역원 [검색일 : 2016.06.27.]))

49) 성균관대학교 교사편찬위원회(1998), 『成均館大學校六百年史 : 1398-1998』 天, 서울 :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p.187

50) 최은정(1997), p.89

전체제인 현방으로 운영됨으로써 그 판매에 따른 수입의 일부를 성균관 재원으로 활용하게 되었다.

본래 도사는 반인들의 생업을 위해 국가에서 부여한 경제적 혜택이었기 때문에 현방 운영 수입 중 성균관의 재정으로 충당되는 것을 제외한 나머지는 반인의 몫이 된다. 여기서 현방이 시전으로 운영됨은 시전의 특권인 취급물중 구입과 판매에서 독점권을 가질 수 있었음을 의미한다.⁵¹⁾ 이는 곧 반인에게 한양 내에서 소를 도살할 수 있는 기존의 독점적 혜택과 쇠고기 판매에 대한 독점권이 있음을 뜻한다. 도살할 수 있는 소의 수는 하나의 현방에서 매일 한 마리씩 도살할 수 있도록 제한되어 있었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쇠고기에 대한 수요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었기 때문에 제한된 쇠고기의 양은 그 가치와 가격을 상승시켰을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쇠고기를 제외하고 지방(脂肪)과 우피(牛皮)와 같은 소의 부속물들은 우방전(牛肪廛)과 창전(昌廛)에 판매할 수 있었으므로 현방의 운영 수익은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당시 기록을 보면, 반인이 성균관의 잡일을 모두 수행했을 뿐만 아니라, 현방 운영 수익으로 성균관의 재정을 충당하였다.⁵²⁾ 그렇기 때문에 성균관 유생들은 반인에게 상당 부분 의지하고 있었다.

“성묘(聖廟)를 지키는 일은 무릇 전복(典僕)에게서 나오고 전복(典僕) 신역(身役)의 책임은 도사(屠肆)에서 나오니, 만약 도사(屠肆)가 실업하여 망함에 이르면 만 천 인구의 생명은 끊길 것이요, 백관(百官)의 역(役)을 책립(責立)할 길이 없으니, 비단 전복(典僕)의 근심일 뿐 아니라 본관(本館)의 근심이고, 본관(本館)의 근심일 뿐 아니라 또한 조선이 마땅히 생각하여야 할 것이다.”⁵³⁾ (→필자 번역)

51) 최은정(1997), p.95

52) 박지영(2013), pp.33-34

53) “聖廟守護之凡事 專責於典僕 而典僕身役之策應 專靠於屠肆 設若屠肆失業 終至毀敗 則萬千人口生命頓絕 凡百官役責立無路 是則不但典僕輩之憂 乃本館之疾患也 不但本館之患 亦朝家之所宜加念者也.” (『承政院日記』 肅宗 38년(1712년) 2월 7일)

“성균관 전복(典僕)들은 거처도 없이 분주히 살 계책을 세우는 일반인들과는 달라, 현방을 한번 철폐하면 아침저녁 사이에 당장 쫓쫓 굶을 걱정이 닥치므로 항상 길을 막고 호소하였습니다. 성묘(聖廟)를 수직(守直)하고 많은 선비들을 대접하는 일을 모두 전복에게 의지하고 있는데 그들이 점점 흩어지게 되면 어떻게 다시 모으겠습니까.”⁵⁴⁾

“... 물력이 조잔(凋殘)해져 매달 지급해야 하는 것도 잇대어 줄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한성부에서 거두는 현방(懸房)의 속전(贖錢) 30냥을 본관으로 이송해 보충해 쓰도록 하였습니다. 그런데 일전에 연신이 아뢰어 다시 본부로 도로 보냈기 때문에 선비들을 양성하는 태학(太學)이 모양새를 갖추 수 없게 되었으니 ...”⁵⁵⁾

반대로, 반인 또한 성균관에 의지하여 경제적으로 성장해갔다. 현방의 운영에 따라 성균관의 재정 상황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성균관 유생들은 반인의 현방 운영을 적극 지원해야 하는 이유가 있었다.

“성묘(聖廟)를 공경히 배알(拜謁)하고 돌아왔으니 ... 전도(前導)한 사지수복(事知守僕)은 규례대로 가자(加資)하고, ... 현방의 속전은 5일 동안 봉입(奉入)하지 말라고 분부하라.”⁵⁶⁾

“본관(本館)의 전복(典僕)은 그 수효가 몇 천 명이나 되는데, 성묘(聖廟)의 수호(守護)와 양현고(養賢庫)의 재원(財源) 조달 등 제

54) 『承政院日記』 英祖 卽位年(1724년) 10월 30일 (출처 : 한국고전번역원 [검색일 : 2016.06.27.]

55) 『承政院日記』 英祖 1년(1725년) 4월 21일 (출처 : 한국고전번역원 [검색일 : 2016.06.27.]

56) 『日省錄』 正祖 2년(1778년) 7월 27일 (출처 : 한국고전번역원 [검색일 : 2016.06.27.]

반 책응(策應)하는 일들을 대부분 이자들에게 의지하고 있습니다. …삼사(三司)에 속전(贖錢)을 내도록 하며 본관에서 응역(應役)하도록 함으로써 그들로 하여금 이윤을 남겨 살아갈 수 있도록 한 것은 법의(法意)가 매우 중한 것입니다. 그런데 근년 이래로 여항(閭巷)에서 사사로이 도살하는 사례가 날로 성해지고 있는데 … 결국에는 생업을 잃고 살아가기 어려운 폐단이 모두 전복에게 돌아가고 있습니다.”⁵⁷⁾

위의 기록들을 통해 보면, 성균관 노비였기에 그 중요성을 인정받아 나라에 경사스런 날이 있을 때마다 속을 면제해주고, 임금이 문묘에 다녀온 이후에도 그들의 공을 인정해 경제적인 측면에서의 포상을 하사했다. 또한 성균관 유생과 조정 신하들은 속전 면제 요청과 현방 가설 청원, 그리고 이들의 생계를 위협하는 폐단을 막음으로 반인들의 현방 운영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뒷받침해주었다. 게다가 현방은 성균관과 관계된 시전이기 때문에 소를 구입하는데 필요한 자금 마련을 위한 대부(貸付) 요청을 할 경우 쉽게 공화(公貨)를 지급받을 수 있었다.⁵⁸⁾ 이는 현방의 운영 수익이 채무를 상환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함을 의미하는 것과 더불어 성균관의 지속을 위해 필요한 재원이기 때문에 현방 운영의 어려움을 해결해주고자 함이다. 조정에서 다른 상인들과 달리 반인의 현방 운영 세금을 감하거나 면제한 것은 고종代까지도 계속되었다.⁵⁹⁾ 반인은 이와 같은 성균관과의 상호보완관계를 통해 현방 운영으로 하여금 경제적으로 성장할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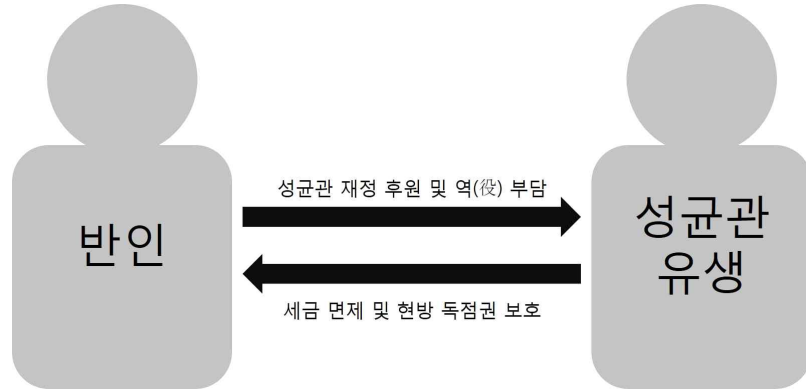
57) 『日省錄』 正祖 5년(1781년) 2월 3일 (출처 : 한국고전번역원 [검색일 : 2016.06.27.]

58) 최은정(1996), p.26-27

59) “정월 초하룻날에 성대한 의례를 거행하니, … 시민(市民)의 한 달 동안의 요역(徭役)과 반인(洋人)의 열흘 동안의 현방속(懸房贖) … 모두 특별히 탕감하게 하라.” (『朝鮮王朝實錄』 憲宗 13년(1847년) 1월 1일 (출처 : 한국고전번역원 [검색일 : 2016.06.27.]));

“정전(正殿)이 완성되었다. 아들처럼 와서 일하는 정성에 힘입어 백성의 도움이 많았으니, … 서울 백성의 요역(徭役)과 반인(洋人)의 현방속(懸房贖)을 큰 경사 때의 예에 따라 감면하고 …” (『承政院日記』 고종 4년(1867년) 11월 18일 (출처 : 한국고전번역원 [검색일 : 2016.06.27.]));

[그림 11] 반인과 성균관 유생의 공생관계



반인이 현방 운영에 매진하면서 경제적 부를 축적할 수 있었음을 알 수 있는 근거는 아래의 사료를 통해 알 수 있다.

“근년에는 재력이 고갈되어 온갖 폐단이 층층이 발생하더니 식당(食堂)이 도고(都庫)에 의해 운영되면서 극에 달하였습니다. 많은 선비에게 아침저녁의 식사를 제공하는 일은 1000호 가까운 전복(典僕)을 정간(井間)의 차례에 따라 배정하여 식당의 운영을 맡도록 정해 놓고 서로 돌아가며 의무적으로 담당하도록 한 것이 불변하는 옛 규례입니다. 그런데 수십 년 전부터는 성균관 전복들이 신역에 이바지하는 것을 싫어하여 멋대로 도고를 만들었는데, ... 대체로 고립(雇立)들은 모두 가난하고 일정한 생업이 없는 자들로, 많은 선비들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일 덕분에 생활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 2년 시간이 갈수록 이들이 포핍(逋欠) 낸 곡물이 산처럼 쌓였으므로 관아에서 독촉하여 거두어들이려고 해도 징수할 길이 없었습니다. 그러자 전복들이 말썽이 생길 것을 우려하여 여러 가지 방법으로 보조해 주어 해마다 거두어 지급해 준 것이 많게는 1000여 금(金)이나 되지만, 지급하는 대로 다 써 버려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므로 조식당(朝食堂)

은 정오가 지나서야 설치되고 석식당(夕食堂)은 대부분 밤중이 되어야 설치되는 등 언제나 지체되어 전혀 모양새를 이루지 못하였습니다.”⁶⁰⁾

위의 기록을 통해 알 수 있는 첫 번째는 성균관에서 수행해야 하는 반인의 역을 반인에 의해 고용된 사람이 대신 수행하였다는 점이다. 반인은 그들의 의무 중 하나인 성균관 식당 일을 피하기 위해 고립(雇立)으로 사람을 두어 대신 일하게 하고, 이로 말미암아 발생하는 문제 역시 돈으로 해결하고자 하였다.

“거모장 등(等)이 도살을 해서 살아가는데 …”⁶¹⁾

“제향에 쓸 포를 봄가을에 만들 때에 도살한 소의 가죽은 그 당시에 일한 거모장들에게 내주라. … 가죽을 벗기는 장인은 다른 각종 공장(工匠)에 비할 것이 못 되어서 모두 반인(泮人)의 노예들 인데 …”⁶²⁾

위의 기록에서 알 수 있는 두 번째는 현방을 운영함에 있어서 전문 도살업자를 고용한 점이다. 현방 경영에 있어서 각각의 현방마다 4명의 전문 도살업자인 거모장(去毛匠)을 고용해 일의 부담을 덜었다.⁶³⁾ 특히, 거모장을 ‘반인의 노예’로 표현한 것은 현방 운영자인 반인보다 지위상 그 아래에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다. 두 근거를 통해 반인은 노비의 신분이지만 일을 대신할 수 있는 사람을 돈으로 고용할 만큼 어느 정도의 경제적 여유가 있는 계층으로 성장했다. 조선 후기 이들의 의

60) 『日省錄』 正祖 17년(1793년) 4월 1일 (출처 : 한국고전번역원 [검색일 : 2016.06.27.]

61) 『日省錄』 正祖 8년(1784년) 8월 20일 (출처 : 한국고전번역원 [검색일 : 2016.06.27.]

62) 『承政院日記』 英祖 1년(1725년) 12월 18일 (출처 : 한국고전번역원 [검색일 : 2016.06.27.]

63) 박지영(2013), p.24

복과 혼인을 통한 사치스러운 생활은 신분이 낮아도 부를 축적한 신흥계층으로 부상하였음을 방증한다.⁶⁴⁾

위와 같은 반인이 보유하고 있는 경제적 혜택은 전국 각지에서 사람을 끌어 모았다. 반인과 같은 혜택을 갖기 위하여 성균관 노비가 되겠다고 찾아오는 사람들, 반인의 성균관 역을 대신할 고용자들이 바로 그들이다. 고용된 이들의 경우 엄밀히 말하면 반인이라 정의할 수는 없지만, 대부분 빈곤한 사람들이므로 매일 이루어져야 하는 식사준비를 성균관과 멀리 떨어진 곳에 거주하면서 수행하는 것은 불가능했을 것이다. 일종의 반인의 노비로 이 사람들 역시 반촌 혹은 그 인근에 거주하였을 확률이 높다. 다음의 기록이 이를 뒷받침한다. “마을에 사는 사람은 성균관 전복과 여염잡인으로 400여 호에 이른다.”⁶⁵⁾ 기록에서 알 수 있듯이, 여염잡인(閭閻雜人)이 고용된 사람들을 의미하여 반인과 함께 반촌에 거주하였을 것이다. 조선 초 성균관에 노비 300명을 하사한 것으로 시작한 반인의 수는 1682년 340호(戶), 약 2,000여명으로 증가하였다.⁶⁶⁾ 1698년 약 500호로 기록된 것으로 보아, 반인의 수는 전란 이후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⁶⁷⁾ 이러한 반인의 증가는 반촌의 영역확장에 영향을 미쳤고, 동북부 지역에 있어서 반촌은 거대한 범위를 확보함으로써 반인의 세를 명시화할 수 있었다. 이로써 반인은 성균관을 배후에 두고 현방을 운영하는 강력한 집단으로 조선 말기까지 유지해갔다.

64) 尹愔, 『無名子集』 詩稿 2冊「泮中雜詠」20수 (출처 : 한국고전번역원 [검색일 : 2016.06.27.]); “…近來尤爲失業者, 蓋有其由, 一則豬肉廩多出, 頓然失利, 一則館人亦學奢侈, 婚嫁所費無限, 以致倒懸矣.” (『承政院日記』 英祖 卽位年(1724년) 9월 26일)

65) “村中所居者, 成均典僕及閭閻雜人, 竝至四百餘戶…” (『承政院日記』 肅宗 18년(1692년) 3월 9일)

66) 『太學志』 卷9 (출처 : 한국고전번역원 [검색일 : 2016.06.27.]); “…館典僕都合三百四十戶, 其男女老弱, 不下二千餘名…” (『承政院日記』 肅宗 8년(1682년) 12월 25일)

67) “…而第泮村人戶, 不過五百戶…” (『承政院日記』 肅宗 24년(1698년) 1월 21일)

[그림 12] 『泮中雜詠』을 통해 추정한 반촌 영역 범위



사료를 통해 추정한 반촌의 영역은 위의 그림과 같다. 본래 성균관을 중심으로 하여 인근에 조성되어 있다가 점차 반인의 수가 증가하고, 반인의 일을 대신하는 고용인의 수가 늘어 반촌의 영역이 확대되었다. 조선시대 지도가 실제와는 다르게 왜곡되어 제작된 것임을 감안하여 본다면, 본래 반촌의 범위는 숭2동과 숭3동, 숭4동 일부로 볼 수 있다. 인구가 밀집되어 마을을 형성한 반촌은 인가가 드문 동북부 지역에서 가장 번잡하게 주거지가 몰려있는 공간이었다.

3. 경모궁(景慕宮)과 모민(募民)

경모궁(景慕宮)은 정조의 아버지인 사도세자⁶⁸⁾의 사당이다. 이것은

1764년 한양 북부 순화방(順化坊)에 있던 사도묘(思悼廟)를 동부 숭교방(崇教坊)으로 이전하면서 수은묘(垂恩廟)로 개칭, 1776년 정조 즉위 후 사도세자의 위상을 드높이기 위하여 그의 사당인 수은묘를 경모궁으로 승격(昇格)하였다. 경모궁은 현재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자리에 위치하여 창덕궁과 창경궁에 머물던 정조가 항상 가까이 할 수 있는 거리에 있었다. 수은묘에서 경모궁으로 승격하면서, 그리고 그 후 경모궁을 정비해 나가는 과정에서 규모를 확장하고 주변의 경관까지 신경 쓴 것은 경모궁에 대한 정조의 마음이 각별했음을 알 수 있다.⁶⁹⁾ 또한 정조는 경모궁 주변에 민가(民家)를 추가하여 이곳에 이주해 거주할 모민(募民)을 실시해 주변 경관 및 분위기를 정비하였다.

경모궁을 개건(改建)하면서 실시한 모민은 그 특징에 의해 한양 동북부에 거주하는 주민들로 하여금 동부 지역 전반의 상업 활성화에 영향을 미치는 또 하나의 요소가 되었다. 모민을 실시하게 된 배경과 과정을 당시의 기록을 통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길가의 인가가 이처럼 드문드문하니 널찍하게 미어 있는 곳에 모두 민가를 들여 길 좌우를 끼고 즐비하게 줄을 이루게 하되 ...” 70)

“경모궁 문밖은 지세(地勢)가 널찍하게 비어 있는데 민가가 하나도 없어 보기에 매우 황량하기 때문에 ... 만일 인가를 많이 모집하여 좌우로 취락을 이룰 수 있다면, 평상시에도 보기 좋을 뿐만 아니라 동가(動駕)하거나 친향(親餉)할 때 제관(祭官)과 진배관(進排官)이 머무르며 묵을 수 있는 장소가 될 만하니, 또한 어찌 편하고

68) 영조에 의해 사도세자(思悼世子)라 칭해진 정조의 아버지는 정조가 즉위한 후 장헌(莊獻)이라는 존호를 올려 장헌세자(莊獻世子)가 되었다.

69) 오세옥·박헌순 옮김(2013), 『경모궁의궤』, 서울 : 한국고전번역원, pp.27-28 · 385-386

70) 『日省錄』 正祖 5년(1781년) 12월 11일 (출처 : 한국고전번역원 [검색일 : 2016.09.05.]

좋지 않겠는가.” 71)

한양의 동북부 지역은 앞서 본 연구의 3장 1절(혜화문과 동부)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지형적 요인에 의해 사람의 거주가 적었다. 그렇기 때문에 정조는 경모궁 주변에 인가가 없어 황량하다는 표현을 사용한 것이다. 경모궁을 승격시키기 위하여 그 주변 일대의 환경은 깨끗하고 보기 좋아야 하고 경모궁 관리 또한 철저히 이루어져야 했다. 정조는 이를 모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으로 경모궁 모민을 실시한 것이다. 모민을 통해 입주하게 된 사람들은 경모궁 유지를 위하여 경모궁에 대한 역(役)을 수행하는 대신, 특권을 제공받았다. 이에 대해서는 후술하도록 하겠다. 모민에게 제공할 집은 관(官)에서 금영(禁營)의 재목을 가져다 집을 지었다.⁷²⁾ 백성이 바라는대로 지으면 초가의 형태가 되어 화재에 대한 염려로 군문에서 기와집을 지어 입주할 백성이 내부를 짓는 것으로 하였다.⁷³⁾ 경모궁의 위엄을 살릴 수 있도록 인가는 화려하게 지어졌다.⁷⁴⁾ 이렇게 하여 경모궁으로 모여든 이들은 궁문과 직방 근처에 10호, 담장 밖과 그 인근에 107호가 있었다.⁷⁵⁾ 사료를 통해 모민의 거주지를 추정하면 아래 그림과 같다.⁷⁶⁾ 조선시대 지도가 실제와는 다르게 왜곡되어 제작된 것임을 감안하면, 거주지는 송4동 일부와 연건동 일부로 볼 수 있다.

71) 『日省錄』 正祖 5년(1781년) 12월 11일 (출처 : 한국고전번역원 [검색일 : 2016.09.05.]

72) 『日省錄』 正祖 5년(1781년) 12월 13일 (출처 : 한국고전번역원 [검색일 : 2016.09.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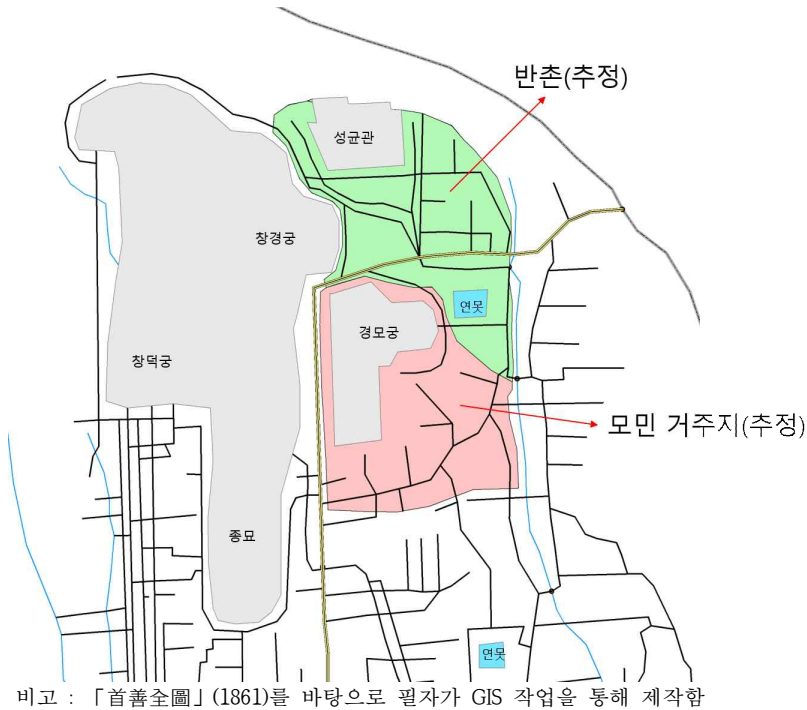
73) 『日省錄』 正祖 5년(1781년) 12월 11일 (출처 : 한국고전번역원 [검색일 : 2016.09.05.]); 『日省錄』 正祖 5년(1781년) 12월 13일 (출처 : 한국고전번역원 [검색일 : 2016.09.05.]

74) 『日省錄』 正祖 7년(1783년) 7월 2일 (출처 : 한국고전번역원 [검색일 : 2016.09.05.]

75) 오세옥·박헌순 옮김(2013), p.390

76) “민가 10호를 모집하여 궁문 좌우 및 각소 직방 남북에 주거하도록 명하였다.” (오세옥·박헌순 옮김(2013), p.390); “...長慶橋以西, 許民入居, 以東仍成班村...” (『承政院日記』 正祖 6년(1782년) 8월 7일)

[그림 13] 『景慕宮儀軌』를 통해 추정한 경모궁 모민 거주지 범위



정조는 모민을 실시하기 위해서 이들에게 합당한 혜택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였다. 이들은 자신들의 터전을 떠나와 새로운 곳으로 이주해오는 것이기 때문에 이로운 것이 없으면 모집에 응하는 사람이 없을 것이라 보았다. 이에 따라 “*혜화문으로 들어오는 어태(魚馱)와 포상(布商)을 모두 이곳에 취접(聚接)하게 하여 새로 모집한 백성들로 하여금 이익을 얻는 것이 있게*”⁷⁷⁾하였다. 모민에게 이익이 되는 것, 그것은 이들에게 여객주인권(旅客主人權)을 부여하는 것과 시전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한 것이었다. 여객주인은 상품매매를 중개하고 직접 거래의 당사자가 되기도 하는 특수한 상인 계층으로, 모민에게 부여된 여객주인권은 혜화문을 통해 들어오는 물자에 한하여 주어졌다.⁷⁸⁾ 시전의 경우, 경모궁 인근에 현방과 우방전(牛肪廛) 증설(增設)을 허락하여 시전을 확대할 수 있는 운

77) 『朝鮮王朝實錄』 正祖 5년(1781년) 12월 13일 (출처 : 한국고전번역원 [검색일 : 2016.09.05.]

78) 이병천(1983), 「조선후기 상품유통과 여객주인(旅客主人)」, 『經濟史學』 6, p.101

영 혜택을 주었다.

“너희들을 궁 주변에 모집해 들인 것은 대개 소중히 여기는 것을 위해서였다. 그리고 모집해 들인 뒤에는 너희들의 살림을 진념해야 하므로 반인은 현방(懸房)을 허락하였고 전민(廛民)은 어물전(魚物廛)에서 매매토록 허락하였으니, 이를 통해 너희들은 충분히 지탱해 살 수 있을 것이다. 요역(徭役)과 현방속(懸房贖)도 일정 연한 제해 줄 것이니, 그리 알라.”⁷⁹⁾

정조가 모민을 위하여 특권을 제공한 것은 동북지역 상인들의 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⁸⁰⁾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새로운 곳에 정착해 상업활동을 다져갈 수 있도록 일정기한 역을 면해주고 세금을 감해주었다.

『景慕宮儀軌』에 기록된 여점(旅店)은 아래와 같다.

79) 『日省錄』 正祖 6년(1782년) 2월 19일 (출처 : 한국고전번역원 [검색일 : 2016.09.05.]

80) 김동철(2001), 「18세기 말 景慕宮 募民과 그들의 상업활동」, 『지역과 역사』 8, p.19

[표 6] 경모궁 모민의 여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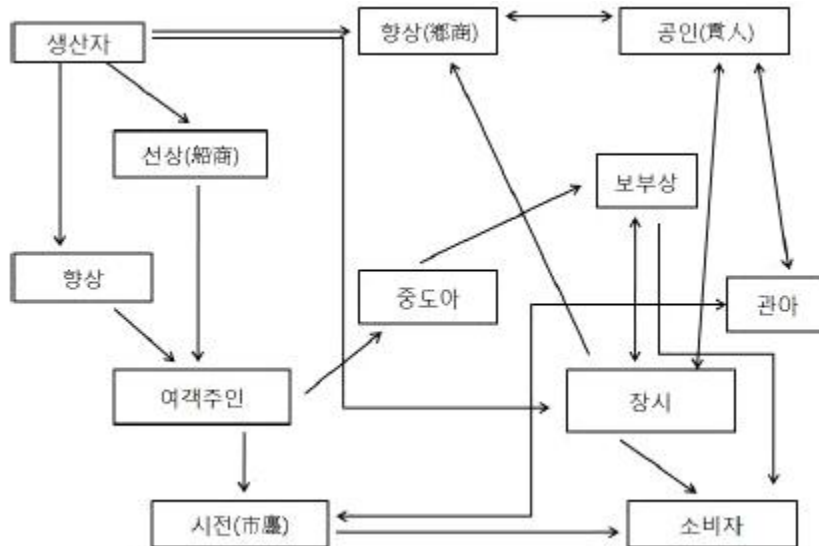
점포	시기	호수	위치	비고
연초 여점 (煙草 旅店)	1782.01	17호	장경교(長慶橋) 아래 대로변 동서쪽	
승혜 여점 (繩鞋 旅店)	1782.01	2호	장경교(長慶橋) 아래	
초물 여점 (草物 旅店)	1782.01	1호	장경교(長慶橋) 아래	
내건어 여점 (內乾魚 旅店)	1782.01	3호	궁 연못 남쪽 전계비(塵界碑) 아래	기와집
외건어 여점 (外乾魚 旅店)	1782.01	3호	궁 안 오른쪽 산록 앞	기와집
생선전 도가 (生鮮廬 旅店)	1782.01		장경교(長慶橋) 남쪽	기와집, 점주(店主 40호)

출처 : 오세옥·박현순 옮김(2013), pp.391-392; 김동철(2001) p.17 재구성

정조가 모민을 실시하던 1780년대, 18세기 후반은 조선, 특히 한양이 상업도시로 변성해있는 시기이다. 앞서 선행연구를 통해 본 결과 18세기는 한양이 상업도시의 절정기에 이르렀을 시기로, 사상(私商)의 난전(亂廛)활동이 활발하던 때이다.⁸¹⁾ 모민의 이익을 위해 제공한 혜택의 첫 번째 형태인 여객주인권은 기존의 상업 활동에서 살아남아 이윤을 창출할 수 있도록 한 당시 상업체제에서 최상의 권한이었다. 경모궁 주변에 설치한 모민들의 여점은 기존의 육의전 시전 상인들의 상업활동과 다른 체제를 구성하였다. 원산지로부터 상품을 실어와 시전상인에게 납품하는 기존의 방식에서 중간 유통 단계에 여객주인이 포함됨으로써 시전의 유통체계와는 다른 양상을 가진다.

81) 노혜경(2014), 「조선후기 사상(私商)의 활동과 유통구조의 변화」, 『역사와실학』 54, p.85

[그림 14] 한양의 상품유통 과정



출처 : 노혜경·노태협, 「경상(京商)과 송상(松商)의 상거래 유통망에 관한 비교 연구」, 『경영사학』 25(2), p.9

위의 그림에서 알 수 있듯이, 주인권을 소유한 자는 상품매매를 중개하는 중간 유통을 통해 꾸준한 이득을 확보할 수 있었다.⁸²⁾ 나아가 이것은 해당 지역으로 들어오는 각각의 상품에 대하여 독점권을 획득하는 것이므로 이를 악용하여 상품의 가격을 마음대로 조절해 유통이익을 챙기는 도고상인(都賈商人)으로 성장해갈 수 있었다.⁸³⁾ 더욱이 주인권은 매매가 가능하여 그 거래 가격으로 주인권의 인기와 수요를 짐작할 수 있다. 아래의 표는 김포에서 발생한 여객주인권 매매가격을 정리한 것이다.

82) 이병천(1983), p.106

83) 이정수·김희호(2007), 「18~19세기 流通資産의 매매를 통해 본 商業構造 변화」, 『朝鮮時代史學報』 43, p.248

[표 7] 김포 1郡8面 여객주인권 매매 가격

매매 일자	가격	비고
1753.02.17.	50냥	
1788.04.29.	300냥	6面 주인권
1822.06.30.	1,310냥	
1828.04.	1,310냥	환퇴(還退)
1828.05.	1,925냥	
1829.05.01.	2,350냥	환퇴(還退)
1829.05.01.	2,300냥	시곡(柴穀) 주인권
1830.03.27.	3,463냥	환퇴(還退)
1830.03.27.	3,500냥	어물(魚物) 주인권 시곡(柴穀) 주인권
1831.01.04.	2,300냥	시곡(柴穀) 주인권
1834.04.	2,300냥	시곡(柴穀) 주인권
1856.10.	4,000냥	
1862.02.	4,000냥	
1865.06.	5,500냥	

출처 : 이정수 · 김희호(2007), pp.250-251 재구성

김포의 여객주인권 매매가는 18세기 중반부터 19세기 초까지 상승하는 양상을 보인다. 전국적으로 보면 18세기에서 20세기 초까지 가격상승을 이루고 있음을 알 수 있다.⁸⁴⁾ 주인권은 사람들이 가지고 싶은 특권이었기 때문에 그 수요가 증가하였음을 짐작할 수 있다.

앞서 반인의 현방 운영과 같이, 모민 역시 조정의 보살핌으로 여객주인권을 보호받을 수 있었다. 상품을 바로 시전으로 유통했던 기존의 상업체계와 달리, 여객주인이 중간에서 거래함으로 인해 여객주인과 기존의 시전상인과의 대립은 격화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조정은 기존 시전상인의 요구를 무시하고 여객주인의 편을 들어주며 이들의 권한을 유지

84) 이정수 · 김희호(2007), pp.249-257

할 수 있도록 해주었다.⁸⁵⁾ 국가의 보호 아래 이들은 성장하여 부를 축적할 수 있게 되고, 사상으로 불리는 집단 중 하나인 여객주인을 국가가 공식적으로 경모궁 모민에게 인정해줌으로써 새로운 상업체계가 전개된다.

모민에게 부여한 혜택 중 두 번째 형태는 시전을 가설(加設)한 것이다. 가설한 시전은 아래와 같다.

[표 8] 경모궁 모민의 시전 가설

점포	시기	호수	위치	비고
현방 (懸房)	1782.01		웅란교천(凝鑾橋川) 동쪽	· 반인(泮人) 63호 · 2년간 속(贖)을 면(免)함
우방전 (牛肪廛)	1782.08		본궁(本宮) 남북쪽 담 밖	· 신구(新舊) 거주민 42호가 하나의 전(廛)을 이룸 · 1784년 2월 반인의 폐단으로 혁파함

출처 : 오세옥·박현순 옮김(2013), pp.391-394; 김동철(2001) p.17 재구성

경모궁 모민을 통해 반인은 경모궁 동구(洞口) 근처에 1개의 현방을 가설하였다. 그 이유는 반인의 인구가 점차 증가하고 신역(身役)이 갈수록 더해져가 21개의 현방으로 생계를 꾸릴 수 없었고, 경모궁 주변에 현방을 세우면 인가(人家)가 점점 모여들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이다.⁸⁶⁾ 그리고 이들이 경모궁 주변으로 이주해 와 집을 짓고 현방을 새로 설치함을 수고롭게 여겨 현방의 속(贖)을 일정 기간 면해주는 혜택을 주었다.⁸⁷⁾ 본 연구의 3장 2절(성균관과 반인)에서 서술하였듯이, 반인은 현방 운영에 대한 독점권을 가지고 있고 독점을 지속할 수 있도록 불법으로 행해

85) 김동철(2001), pp.31-32

86) 『日省錄』 正祖 6년(1782년) 1월 24일 (출처 : 한국고전번역원 [검색일 : 2016.09.05.]

87) 『日省錄』 正祖 6년(1782년) 3월 9일 (출처 : 한국고전번역원 [검색일 : 2016.06.27.]

지는 도살을 막아주는 등 조정으로부터 지원을 받았다. 이는 현방으로부터 거둘 수 있는 수입을 유지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모민에게 주어진 경제적 혜택으로 인하여 경모궁 부근에 민가가 들어선 이후 동부의 행정구역은 개편되었다. 1789년 숭교방(崇敎坊)의 행정구역을 편제하면서 동부 내 경모궁방(景慕宮坊)을 신설하였다.

[표 9] 동부의 방제 변화

시기	방제(坊制)
1405	연희방(燕禧坊) · 숭교방(崇敎坊) · 천달방(泉達坊) · 창선방(彰善坊) · 건덕방(建德坊) · 성덕방(聖德坊) · 서운방(瑞雲坊) · 연화방(蓮花坊) · 숭신방(崇信坊) · 인창방(仁昌坊) · 관덕방(觀德坊) · 흥성방(興盛坊)
1750	숭교방(崇敎坊) · 창선방(彰善坊) · 건덕방(建德坊) · 연화방(蓮花坊) · 숭신방(崇信坊) · 인창방(仁昌坊)
1789	숭교방(崇敎坊) · 창선방(彰善坊) · 건덕방(建德坊) · 연화방(蓮花坊) · 숭신방(崇信坊) · 인창방(仁昌坊) · 경모궁방(景慕宮坊)

출처 : 고동환(1998b), p.51 재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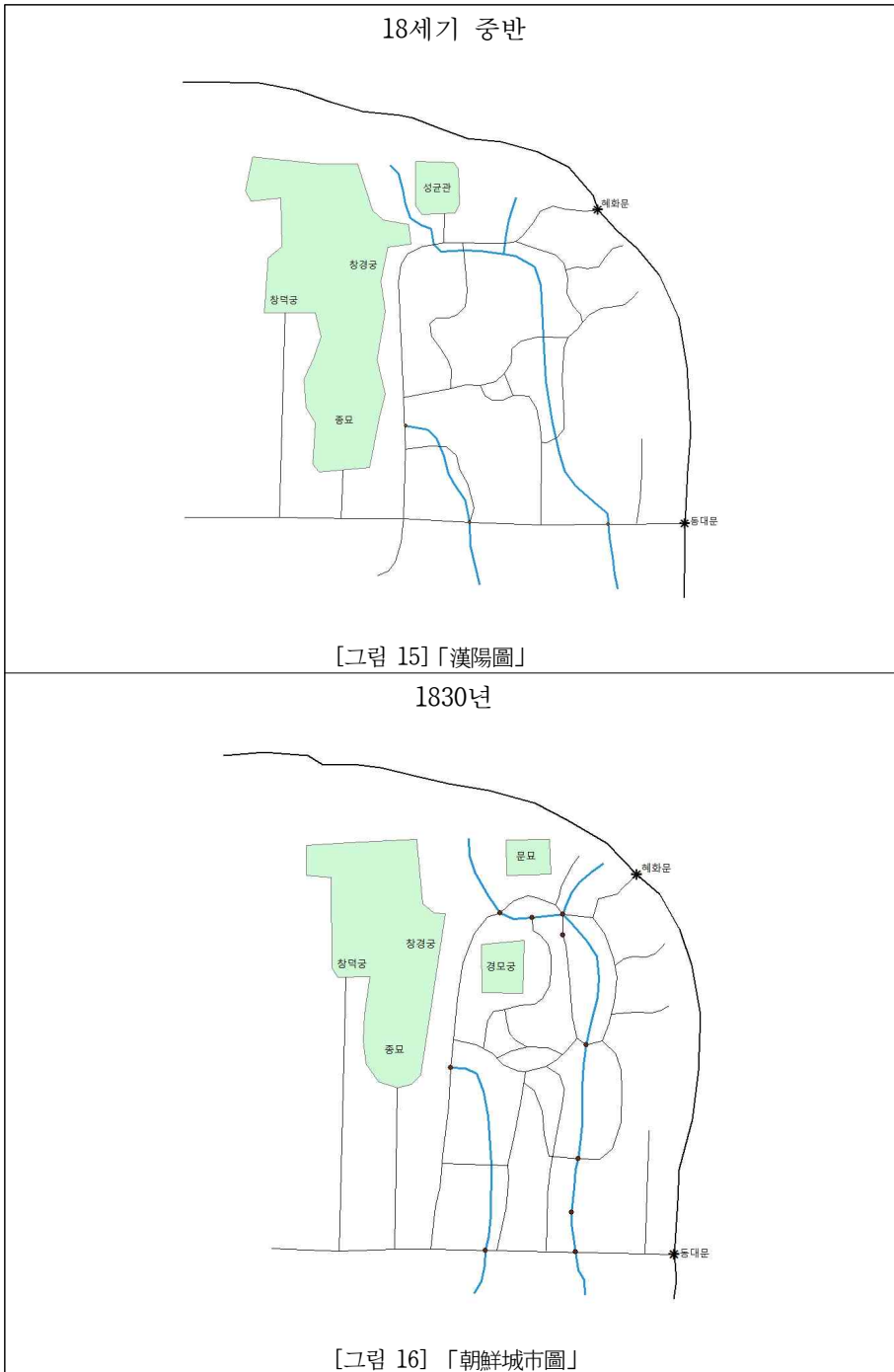
4. 이현시장 형성

본 장에서는 조선시대 한양 동북부 지역의 정체성을 파악하기 위해서 이곳에 위치한 혜화문과 성균관, 경모궁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이 세 가지 시설은 조선 초부터 자리하거나 조선 중후기에 설립되어 존재해옴으로써 사람들의 생활에 영향을 미쳐 지역의 변화를 야기한다. 혜화문은 한양의 4대문인 북문을 대신하는 문으로 이용됨으로써 사람과 물자의 왕래가 활발했다. 이러한 곳에 민가가 들어서지는 것은 당연한 순리일 수 있으나, 동북부 지역만큼은 지형상의 이유로 예외였다. 한 편, 성균관 노비인 반인은 성균관에 도사를 설치하여 소를 도살할 수 있는 독점권을 획

득하였고, 15-16세기 전쟁과 흉작으로 인한 성균관의 재정 위기로 도사를 시전체제인 현방으로 전환하여 운영하게 되었다. 이를 통해 이들은 소를 도살하여 쇠고기를 판매하고 소의 부속물을 다른 시전에 판매할 수 있는 경제적 혜택을 얻게 되었다. 정조 즉위 후에는 경모궁을 개건하면서 모민을 실시해 그들에게 여객주인권과 시전을 가설할 수 있는 혜택을 주었다. 여기서 여객주인권을 부여했다는 것은 북문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혜화문으로 많은 물자가 오고가는데 이에 대하여 독점권을 가질 수 있는 막강한 권력을 제공한 것을 의미한다. 반인이 운영하는 현방을 가설하도록 하여 이들이 더 많은 경제적 이익을 취할 수 있도록 했다. 반인과 모민은 각각 성균관과 경모궁에 역을 수행하는 이들로 성균관 유생과 조정의 보호 아래 경제활동을 지속해나갈 수 있었다. 특히, 성균관의 경우는 현방 수익의 일부를 재원으로 삼았기 때문에 반인의 현방 운영에 대해 보호해야 할 대상으로 인식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반인과 경모궁 모민은 자신이 가진 경제적 특권을 활용하여 경제적 부를 축적할 수 있었고, 동북부를 포함한 한양 동부 전역의 상업이 융성해지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고지도를 GIS 작업을 통해 시각화하여 지도의 시계열적 변화를 보면 아래와 같은 동부지역의 변화상을 파악할 수 있다.

[표 10] 지도상 나타나는 동부지역의 물리적 변화





비고 : 필자가 GIS 작업을 통해 제작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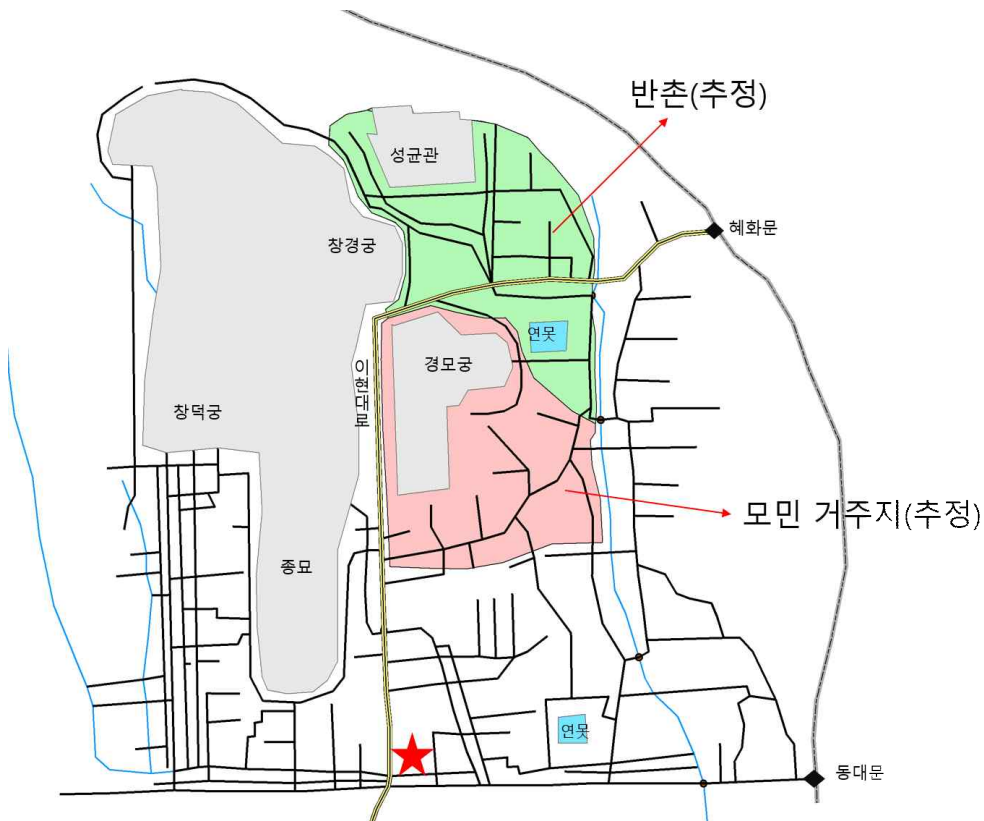
조선시대의 지도는 축척을 고려해 제작한 것이 아닌 그림같은 지도이기 때문에 정확한 면적 및 위치 등을 파악할 수는 없다. 하지만 지도가 제작된 시기에 따라 그 변화상을 파악할 수 있다는 점에서 지도를 분석하는 작업은 의미있다. 위의 비교를 통해 경모궁이 조성된 후 인근의 도로를 확충하였음을 알 수 있고, 점차 세세한 도로까지 형성해갔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동부지역 곳곳에 사람들의 생활공간이 형성되어가고 그에 따른 유동인구의 편의를 위해 길이 형성되었음을 의미한다. 그리고 이러한 변화는 이현시장의 형성과도 관련을 갖는다.

한양에서 동부는 5部 가운데 가장 인구가 적은 곳으로, 정조 즉위년까지만 하더라도 황량한 지역이었다. 그러나 조선 후기에 들어와서 동부에는 조선의 3대 시장 중 하나로 꼽히는 이현시장(梨峴市場)이 형성된다. 황량한 지역에 사람들이 북적이는 시장이 형성된 점은 모순적일 수 있지만, 앞서 살펴본 혜화문과 성균관, 경모궁을 통해 이현시장의 형성 과정

에 대해 그 실마리를 풀 수 있다.

이현시장의 위치는 아래 지도에서 보는 바와 같다.

[그림 18] 「首善全圖」 상에서의 이현(★) 위치



비고 : 필자가 GIS 작업을 통해 제작함

혜화문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문을 통해 도성 안으로 들어와 창경궁의 월근문(月觀門) 앞을 지나서 남향하다보면 종로거리에 다다른다. 당시 이 길은 ‘이현대로(梨峴大路)’로, 큰 길의 역할을 했다.⁸⁸⁾ 현재의 대학로 거리는 위의 지도에서 알 수 있듯이 개천이 흘러 보행로의 역할은 하지 않았다. 조선시대에는 혜화문-창경궁 월근문-종로거리로 길이 형성돼 이

88) 『朝鮮王朝實錄』 成宗 20년(1489년) 5월 15일·23일·25일 (출처 : 한국고전번역원 [검색일 : 2016.06.27.]); 尹愔, 『無名子集』 詩稿 2冊「泮中雜詠」19수 (출처 : 한국고전번역원 [검색일 : 2016.06.27.]

길이 한양의 북쪽과 연결되는 길이었다. 혜화문을 통해 들어오는 상품 역시 이 길을 따라 간다. 즉, 혜화문을 통해 도성으로 들어온 상인은 중심가로 이어진 길을 따라 가다가 여객주인에게 상품을 팔고, 여객주인은 기존의 육의전이 아닌 인근의 새로운 상점으로 물건을 납품하면서 육의전과 다른 상업체계의 시장 형성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현시장의 형성 시기는 정확히 알 수 없으나, ‘이현시(梨峴市)’라는 표현이 처음 사용된 시기로 미루어 보아 17세기 말에서 18세기 초로 짐작할 수 있다.⁸⁹⁾ 특히, 영조가 1760년 이현지역 부근인 於義洞에 민가를 입주시키기 위하여 남대문밖의 시전을 이 지역에 입주할 수 있도록 허락하였다는 기록이 있다.⁹⁰⁾ 이를 통해 적어도 이전까지는 혜화문과 종로를 잇는 큰 길이라는 점에 있어서 사람과 상품의 집결지 의미로 열리는 일시적인 시장이었을 것이라 유추 가능하다. 혹은 상업도시화 과정을 겪는 중 나타나는 난전(亂廛)의 양상이었을 것이다. 경모궁 모민에게 사상의 일종인 여객주인권을 부여함으로써 국가는 난전을 인정하게 되고, 이것이 성균관 반인의 현방을 비롯한 여러 상점들과 합하여 1800년대 본격적인 대규모의 이현시장으로 발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특히 이현시장은 칠패시장과 함께 어물과 채소 판매에 있어서 육의전보다 10배 이상의 판매 및 유통량을 보였다.⁹¹⁾ 이는 성 밖에서 생산되는 상품이 성문을 통해 도성 안으로 들어오면 바로 접촉할 수 있는 성문과 도심 사이의 길목에 자리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라 생각된다.

이현시장의 형성 전후 시기의 한양은 상업도시로 발전해나가고 있었다. 두 차례의 전란 이후 한양과 주변 지역으로의 인구가 증가하고, 17세기 초부터 대동법 시행과 더불어 농업 및 수공업의 상품생산이 확대됨에 따라 상품유통체제가 발전해 한양의 상업도시화 과정을 가속화시켰다.⁹²⁾ 인조代 군인들에게 시패(市牌)를 지급하고, 숙종代 군인들에게 시

89) 고동환(2013), 『조선시대 시전상업사』, 서울 : 지식산업사, p.155

90) 『備邊司謄錄』 英祖 36년(1760년) 4월 7일 (출처 : 한국고전번역원 [검색일 : 2016.06.27.]

91) 고동환(2013), p.161

92) 고동환(1998a), pp.27-37

전상인과 같이 국역(國役)을 지는 대가로 시안(市案)에 등록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군인들의 상품판매 행위를 허락한 것 또한 상업도시 형성의 계기가 되었다.⁹³⁾ 이와 같은 이유로 상업이 발달함에 따라 기존의 시전과 품목이 겹치거나 난잡한 양상의 난전이 점차 확대되어 갔다. 기존에 계획된 시장의 형태인 육의전 외에 새로 형성된 이현시장 또한 난전상인들의 상설시장에서 시작한 것이다.⁹⁴⁾

이현시장은 조선의 3대 시장이라 불렸던 만큼 단순히 하나의 원인에서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주체들의 복합적 원인으로 형성되었을 것이다. 동북부 지역에는 한양의 4대문과 같은 역할을 했던 혜화문이 있다. 사람과 물자가 오가는 길목이었음을 주목해야 한다. 두 번째로, 동북부 지역에 위치한 성균관에서 일하는 반인은 도사를 설치하여 소의 부속물을 판매할 수 있었다. 이들의 상업 활동은 조선 초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에 상업에 능한 소질을 갖추기 충분한 시간이었다. 이후 경모궁 개건과 함께 이루어진 모민은 상업 활동에서 특수한 권한을 부여한다는 조건에서 온 이들이기 때문에 상업 활동에 대한 욕망을 가진 사람들이었을 것이다. 동북부 지역에 존재하는 이 세 가지 요소는 혜화문을 출발해 종로와 맞닿는 길의 점점인 이현지역에 시장이 형성되는데 결정적 역할을 했을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이현시장이 번성함으로 인해 반인과 경모궁 모민은 상업활동을 통해 이윤을 창출하여 신흥계층으로 성장할 수 있었다. 즉, 지역의 입지시설에 따라 그리고 그 역사적 맥락에 따라 주어진 특권에 따라 한양 동북부 지역은 상업이 융성한 지역으로 발전하게 되었고, 그 주체가 된 이들은 경제적인 부를 축적해 신흥계층으로 성장할 수 있었다.

93) 이태진 외 7인(1998), pp.119-120

94) 고동환(1998a), p.73

IV. 개항기-일제강점기 동북부 지역

1876년 조일수호조규(朝日修好條規) 즉, 강화도조약이 체결되었다. 이 조약으로 인하여 일본은 조선의 정치와 경제로 침투해 나갈 거점을 형성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특히, 일본인은 차지(借地)·건축·주거의 자유를 얻게 되었고, 일본 상인에 대한 조선인 관리의 간섭을 불허함으로써 조선 내에서의 입지를 다져갈 수 있었다.⁹⁵⁾ 조선은 강화도조약을 시작으로 세계열강들과의 조약을 잇달아 체결하면서 조선으로의 외세 유입이 빠르게 확대되었다. 이에 따라 경성 또한 외세의 유입으로 5부(部) 각각의 도시 공간과 구조가 서서히 변화해가고, 청일전쟁으로 조선에 대한 일본의 영향력이 확대되어 갔다.

본장에서는 외세의 영향이 커져가는 개항기, 특히 1900년대에서 시작한다. 조선시대 성균관 반인과 경모궁 모민의 향방, 혜화문과 반인·모민의 경제적 혜택을 바탕으로 형성되게 된 이현시장의 변화를 먼저 파악한다. 이후 1900년대 동북부 지역에 자리하게 되는 학교와 병원, 그리고 종교 시설을 통해 동북부 지역의 변화상을 살펴본다. 1910년대에서는 기존에 세워진 학교와 병원의 확대, 10년대의 시구개수사업 실행, 1920년대에서는 경성제국대학이 설립되고 시구개수사업이 뒷받침됨으로써 신흥 세력이 유입되는 양상을 분석한다. 이로써 주거지가 개발되고 주민구성의 변화를 겪으면서 최종적으로 동북부 지역이 문화촌으로 형성되는 과정을 담아낸다.

1. 1900년대

95) 한우근(1970), 『開港期 商業構造의 變遷』, 서울 : 한국문화연구소, p.45

18세기 동부지역에 이현시장이 형성됨에 따라 동촌은 상업이 발달한 지역으로 부상하였지만, 19세기 세도정치로 인한 부정부패와 그 폐단으로 인하여 조선 사회도, 상업의 질서도 모두 어지러워졌다. 이에 따라 18세기의 동부와 19세기의 동부는 팔목할만한 변화와 발전없이 20세기로 넘어갔다. 이현시장 역시 인근지역으로의 확대를 이루지 못한 채 20세기 외세(外勢)와 마주하게 되었다.

20세기에 들어선 1900년대 동부는 여전히 다른 지역에 비해 개발이 미진한 상태의 지역이었다. 서·남·북·중부는 개항 이후 외국인들이 들어오면서 각각의 지역에 터전을 마련해가며 지역을 변화시켜 나갔지만, 동부는 소외된 지역으로 개발되지 않은 채 남아있었다.⁹⁶⁾ 외국인 이주(移住)의 영향이 닿은 지역의 주택가격은 1년 전에 비해 2배 이상으로 폭등하였지만, 동부는 예외였다.⁹⁷⁾ 동부지역이 도성 내 유일한 미개발 지역이었기 때문에 대규모 부지를 필요로 하는 시설들이 이곳으로 들어오게 되었다. 1907년 경성공업전습소가 동숭동에 10,000여 평의 규모로 들어섰고, 1908년 연건동에 49,000여 평의 대한의원, 1909년 혜화동에 독일 베네딕도회의 수도원이 30,000여 평의 부지에 설립되었다.⁹⁸⁾ 이와 같은 대규모의 시설이 들어설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공사 부지에 존재하는 민가(民家) 매입 과정을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을 만큼 동북부 지역의 개발이 미비했기 때문이다. 박석고개(창경궁 월근문 밖)와 혜화문, 돈암고개 세 곳이 험준하여 왕래에 불편을 겪으니 평탄하게 해달라는 일본 병참사령관의 요청을 다룬 1904년 기사에서 알 수 있듯이, 1900년대 동북부는 미개발 지역이었다.⁹⁹⁾

96) 박은숙(2009), 「개항기(1876~1894) 한성부 5부의 차별적 변화와 자본주의적 도시화」, 『한국사학보』 36, pp.162-184

97) 한우근(1970), p.53

98) 서울공고백년사 편찬위원회(1999), 『서울工高百年史』, 서울 : 서울공업고등학교 동창회, p.33; 朝鮮總督府醫院(1928), 『朝鮮總督府醫院二十年史』, p.4; 김정신(2015), 「선교 베네딕도회 수도원의 배치와 건축양식에 관한 연구 : 백동수도원, 덕원수도원 및 왜관수도원의 비교」, 『한국건축역사학회 학술발표대회논문집』 2015(추계), p.54

99) “한성부에서 내부로 보고하기를 일본 병참사령관 … 경성 원산 간 도로 중에 월근문 밖 박석고개와 혜화문과 돈암고개 세 곳이 다 험준하여 왕래하는데 매번 불편하니

1) 기존 동북부 지역민의 향방

1894년 개화파에 의한 갑오개혁은 동북부 지역에 거주하고 있던 성균관 노비인 반인의 향방(向方)에 영향을 미쳤다. 1894년 7월부터 12월까지 약 210건의 개혁안이 제정되었고, 그 중 하나가 공사노비(公私奴婢)의 폐지이다.¹⁰⁰⁾ 이로 하여금 성균관 노비였던 반인 역시 노비라는 신분적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이들은 현방 운영을 통해 노비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그들만의 경제적 이익을 취할 수 있었다. 갑오개혁 이후의 사회는 그들에게 유일한 한계였던 노비 신분에서 벗어나, 오로지 자신들의 경제적 부(富)를 활용하여 살아갈 수 있는 사회로 변화한 것이다. 유교에서 입신양명(立身揚名)을 실현하는 것은 유교에서의 덕목을 수행하는 방법이었다.¹⁰¹⁾ 이것은 곧 교육을 통해 성공하는 것이 유교적 삶의 실현인 것이다. 반인은 입신양명과 무관한 신분적 제한을 가진 이들이었지만, 가장 측근에서 성균관 유생들의 입신양명을 위한 노력을 보았고 이에 대한 환상을 품고 있었을 것이다. 그랬던 이들에게 19세기 말 신분제가 폐지되고 서양인들에 의해 근대적 학교가 들어서면서 신분상승의 기회가 생긴다. 이를 계기로 이들은 그동안 노비의 신분으로 자신들이 축적한 경제적 자산을 기부해 학교를 세움으로써 자녀들에게 성공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고자 했다. 이것이 바로 숭교의숙(崇敎義塾)이다. 1909년부터 설립 준비를 시작하여, 쇠고기 판매상들이 세운 조합에서는 1909년 사현동의 건물을 빌려 학교를 세우고, 도살하는 소 한 마리 당 10전(錢) 씩, 그리고 설렁탕 집에서 매일 5전(錢) 씩 기부해 재정을 지원하였다.¹⁰²⁾ 학교는 숭2동에 편입된 당시의 사현동(四賢洞)에 세워

그 험준한 곳을 끊어 평탄하게 하라 하였기에 …”(「治道督促」, 『大韓每日申報』, 1904.11.05.)

100) 한국민족문화대백과 [검색일 : 2016.05.10.]

101) 최봉영(1998), 「조선시대 유교문화와 한국인의 교육열」, 『한국교육사회학회 학술대회 발표 자료』 제124차, pp.1-3

졌다.¹⁰³⁾ 당시 설립자는 김태훈으로, 1936년 명륜정(明倫町)의 총대(總代)가 될 만큼 지역 유지였다. 이후 학교는 1913년 숭의동 44번지로 옮겨갔다가 숭정보통학교, 숭이공립보통학교 라는 교명(校名)을 거친 뒤, 1928년 혜화동 12번지로 이전해 혜화공립보통학교가 된다.¹⁰⁴⁾ 1923년 학교 유지를 위해 모인 학부모 회의에서 언급된 시내 어느 정육상(精肉商) 고용인으로 있는 학부모의 말을 통해 이들이 왜 학교를 설립하고자 했는가를 분명하게 알 수 있다.

“우리도 상당한 학업에 힘썼더라면 오늘날 남의 고용을 면할 수 있었을 것을 이와 같이 되었으니 지금이라도 우리 힘으로 이 학교를 유지하여야만 한다.”¹⁰⁵⁾

학부모 본인은 교육을 받지 못해 정육점에서 일하고 있지만, 내 자식만큼은 교육을 받고 성장해 사회적 지위를 상승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들은 학교를 건립했다. 이들은 학부모 회의에서 기부금을 모았고 이는 학교 운영비로 쓰여 재정 문제가 발생할 일이 없었다고 한다.¹⁰⁶⁾

102) 「學校歷訪: 私立崇正學校(四賢洞)」, 『每日申報』, 1914.03.14.; 「熱誠으로 結晶된 崇正校, 신입한 교장 俞星濬씨의 노력과 靑島주민의 善 담배갑 으로 유지」, 『朝鮮日報』, 1923.03.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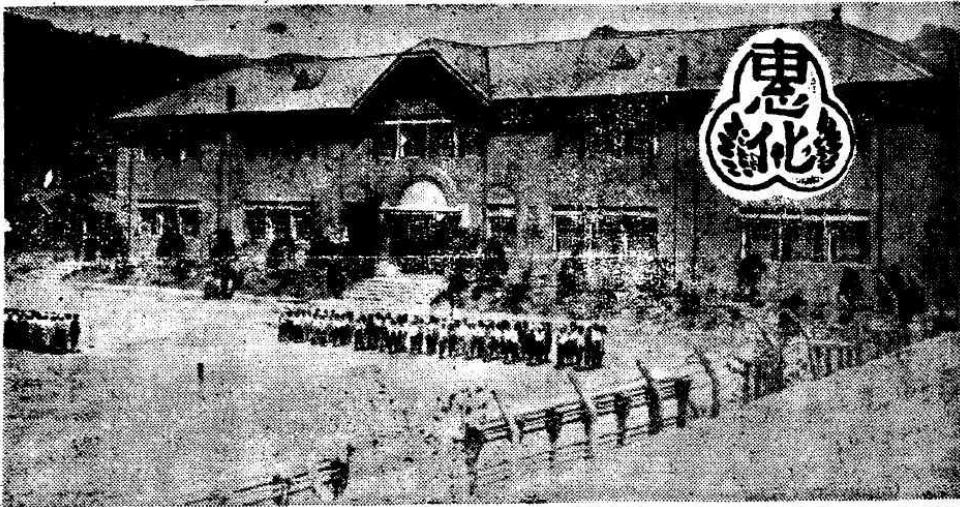
103) 「學校歷訪: 私立崇正學校(四賢洞)」, 『每日申報』, 1914.03.14.; 두산백과

104) 「우리 아들 딸 학원들이. 崇敎, 崇正, 崇二, 惠化 四次改名코 今日에 二十七年前에 贊務會에서 設立. 步步發展 隆昌의 足跡. 惠化公普篇 (4)」, 『朝鮮日報』, 1936.05.12.

105) 「崇正校의 維持」, 『朝鮮日報』, 1923.05.08.

106) 「崇正校의 維持」, 『朝鮮日報』, 1923.05.08.

[그림 19] 1936년 혜화공립보통학교 교사



출처 : 「우리 아들 딸 학원들이. 崇敎, 崇正, 崇二, 惠化 四次改名코 今日에 二十七年前에 贊務會에서 設立. 步步發展 隆昌의 足跡. 惠化公普篇 (4)」, 『朝鮮日報』, 1936.05.12.

한 편, 반인과 함께 동북부 지역의 상업발달의 주역이었던 경모궁 모민들의 개항 이후 향방(向方)에 대하여 기록을 통해 알 수 있는 바는 없었다. 그러나 앞서 언급한 여객주인권의 매매 가격의 상승은 이들이 신분제가 흔들리던 시기를 틈타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주인권을 팔고 다른 지역으로 이주해갔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또한 1882년 朝·淸상민수륙무역장정(朝·淸商民水陸貿易章程)으로 한양의 양화진(楊花津) 개항은 또 다른 가능성을 제기한다. 개항 후 외국 상인과 외국 상품의 대거 유입은 이들이 가지고 있던 전통적인 상업에서의 특권을 무용지물로 만들었을 가능성이 높다. 기존의 조선 사회에서 유통되던 물건이 아닌 다양한 품목이 거래됨에 따라 그들이 가진 특권의 효력 범위는 점차 축소된다. 더욱이 새로운 지역에서 거래를 시작하는 외국 상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사회에 잔존해있는 기존의 상업적 특권은 이들에게 불리하게 작용한다고 생각할 수 있다. 따라서 개항 이후 여객주인권은 그 효력을 다해 점차 사라졌을 것이고, 경모궁 모민들이 가졌던 특권 역시 무용지물이 되어 외국 상인들과의 경쟁에서 도태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다만, 여객주인권

을 더 이상 행할 수 없더라도 선행연구에서 살펴본 해외의 부르주아 성장 사례와 같이, 상업자본을 산업자본으로 전환한 이들이 모인 중에 있었다면 일제강점기동안에도 그 부(富)를 지속할 수 있었을 것이다.

2) 경성공업전습소

갑오개혁(1895) 이후 조선에는 근대 교육제도의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1899년 실업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되면서 「학교교육 진흥 및 상공학교 개설」에 관한 조칙을 내렸다.¹⁰⁷⁾ 그러나 예산 문제로 인하여 진전되지 못하다가 1904년 관립 농상공학교(農商工學校)로 확대 및 개편되면서 학교를 설립함에 이른다.¹⁰⁸⁾ 그러나 학비 전액을 지원해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농공상(士農工商)의 실업을 천시하는 사상의 잔존과 취업할 수 있는 자리가 부족해 한 과에 2-3명 혹은 10명, 30명 정도로 학생 수가 적었다.¹⁰⁹⁾ 1905년 일본의 개입이 본격화 된 이후 농상공학교는 농·상·공으로 분리되어 그 중 공업은 1907년 공업전습소(工業傳習所)로 개편되었다.

1906년, 실업교육의 필요성을 지각한 민간인 재력가 이순동(李舜東)은 몇몇 사람과 함께 농상공부 대신(大臣)인 권중현(權重顯)에게 이를 전달하였고, 내각회의에 상정하여 설립을 허가받았다. 이것이 곧 공업전습소이다. 동부 낙산 근처(현재의 동송동)에 권중현이 기부한 5,000여 평을 포함한 총 만 여 평의 부지에 본관과 교실, 실습 공장, 기숙사, 관사 등 건축하였다.¹¹⁰⁾ 1회 입학식은 당시 통감이었던 이토 히로부미(伊藤博文)와 각 부 대신, 그리고 귀족 1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다.¹¹¹⁾ 통

107) 서울공고백년사 편찬위원회(1999), p.26

108) 서울공고백년사 편찬위원회(1999), p.27-28

109) 서울공고백년사 편찬위원회(1999), p.30

110) 최공호(2000), 「官立工業傳習所 연구」, 『한국근대미술사학』 8, p.159; 서울공고백년사 편찬위원회(1999), p.33

111) 서울공고백년사 편찬위원회(1999), p.35

감부의 공업전습소에 대한 인식을 엿볼 수 있는 참여 인사이다.

공업전습소는 도기(陶器)·염직(染織)·목공(木工)·금공(金工)·응용화학(應用化學)·토목(土木) 학과가 개설되었고, 실습위주의 학교였다. 학생들은 실습대가로 월 6원의 수당을 받았다. 일본의 조선 공업화 정책의 일환으로 공업전습소를 설립한 후 운영 경비를 지원했다는 것이 일반적인 설립 동기에 대한 해석이다. 그러나 공업전습소를 입학하고자 지원한 학생 수가 첫 해에 천 여 명 이상임을 감안하면 일반 조선인에게도 공업에 대한 인식이 점차 필요한 것으로 인식되어갔음을 알 수 있다. 조선 왕조의 몰락으로 인한 사농공상의 서열구조 변화는 조선인들로 하여금 전습소에서 기술을 습득해 전문기술자로서 사회적으로 성장한 삶을 살 수 있다는 인식을 심어주었다.¹¹²⁾ 신분의 굴레에서 벗어난 일반 조선인들에게 공업전습소는 지위를 격상시킬 수 있는 기회의 공간이었다.

[그림 20] 공업전습소



출처 : 서울공고백년사 편찬위원회(1999), 『서울工高百年史』, p.34

3) 대한의원

112) 서울공고백년사 편찬위원회(1999), p.38

1905년 을사조약 이후 통감부(統監府)가 설치되면서 일본은 조선의 식민지화를 위한 여러 시설들을 건설하고자 했다.¹¹³⁾ 이 일환으로 1906년 통감부 하에 탁지부 건축소(度支部 建築所)를 신설하여 건축공사의 집행 기관 임무를 부여하였다.¹¹⁴⁾ 통감부는 관사와 경찰서, 재판소 등 식민 통치 시설의 건설을 계획하였다. 병원은 당시 계획된 식민 통치 시설 중 하나였다. 적십자병원 및 광제원과 같은 기존의 병원들과는 다른 새로운 병원을 설립함으로써 조선의 왕권과 무관함을 바탕으로 두고자 하였다.¹¹⁵⁾ 이러한 배경으로 1908년 개원식을 거행한 대한의원(大韓醫院)은 연건동에 위치한 영희전(永禧殿)¹¹⁶⁾ 남쪽의 마등산(馬凳山)¹¹⁷⁾과 그 인근의 민가를 매입하여 약 49,000여 평으로 건설되었다.¹¹⁸⁾

113) 이규철(2016), 「대한의원 본관의 건축 과정과 건축 계획적 특성」, 『醫史學』 25(1), pp.4-5

114) 이규철(2016), p.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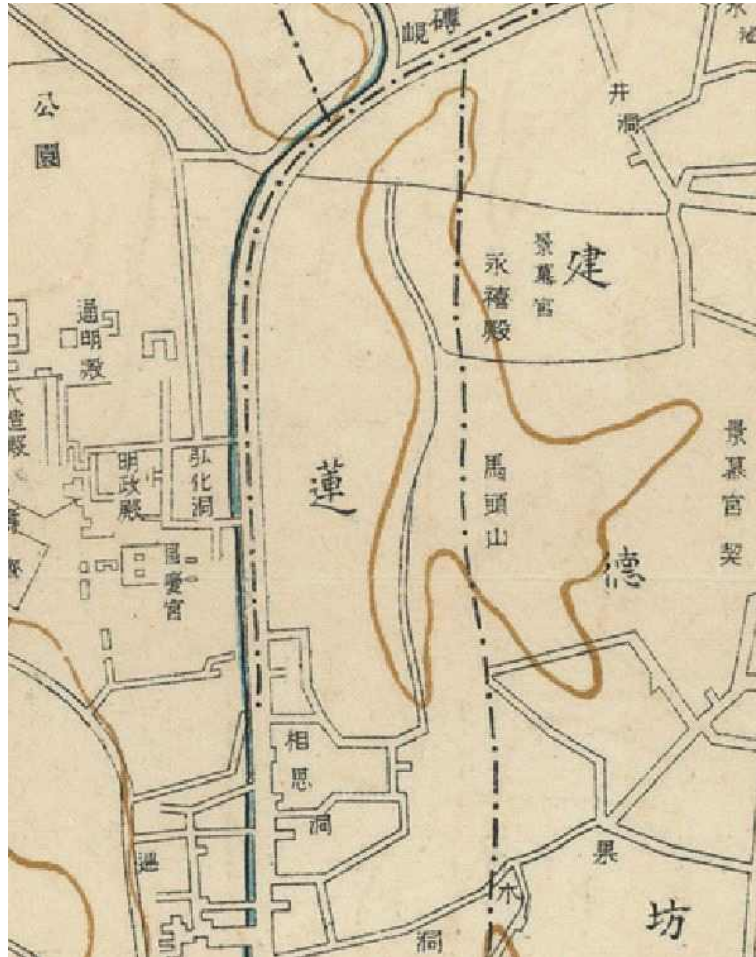
115) 신규환(2007), 「대한의원의 설립배경과 성격」, 『延世醫史學』 10(1), pp.236-237

116) 영희전(永禧殿)은 경모궁의 존재 이유였던 정조의 아버지 사도세자의 신위가 1899년 종묘로 옮겨짐에 따라 그 기능을 잃게 된 후 변화하게 된 명칭이다. 기존에 있던 정조·순조·익종의 어진에 현종·철종의 어진을 옮겨 봉안하고, 1900년에는 태조·세조·성종·숙종·영조·순조의 어진을 봉안하던 곳인 영희전을 옮겨 세웠다. (출처 : 네이버지식백과 [검색일 : 2016.09.10.]

117) 「最新京城全圖」(1907)에 표기된 명칭은 마두산(馬頭山), 이규철(2016)의 연구, 그리고 백과사전 상에서의 명칭은 마등산(馬登山)으로 표기하고 있으며, 조선총독부의원에서 1928년 출판한 『朝鮮總督府二十年史』에서는 마등산(馬凳山)으로 표기했다. 본고에서는 해당 기관에서 발행한 자료에 수록된 명칭을 따라 마등산(馬凳山)으로 사용한다.

118) 이규철(2016), pp.12-13; 「病院基址에 價額」, 『大韓每日申報』, 1906.09.23.; 朝鮮總督府醫院(1928), p.4

[그림 21] 「最新京城全圖」에 표기된 영희전과 마등산



대한의원은 조선인과 일본인 모두 이용 가능한 병원이었지만, 고가의 진료비로 인해 이를 지불할 수 있는 일부의 조선인과 일본인이 이용할 수 있었던 병원이었다. 대한의원은 예산의 일부를 국가로부터 지원 받는 다른 병원들과 달리 1/3 이상을 진료수입으로 재원 마련을 했기 때문에 그 가격이 높을 수 밖에 없었다.¹¹⁹⁾

119) 신규환(2007), p.243

[표 11] 1909년과 1910년 국적별 대한의원 이용률 비교

단위 : 명, %

	조선인			일본인		
	이용자 (입원+외래)	경성 거주민구	이용률 (%)	이용자 (입원+외래)	경성 거주민구	이용률 (%)
1909	6,682	233,092	2.87	9,111	32,528	28.01
1910	7,497	238,499	3.14	10,376	38,397	27.02

출처 : 朝鮮總督府(1910), 『朝鮮總督府統計年報』, pp.61・504; 손정목(1986), p.372

위의 표와 같이, 대한의원의 주요 이용자는 조선인이 아닌 일본인이었다. 경성의 일본인 거주인구 중 20%가 넘는 상당수가 동북부에 자리한 대한의원을 왕래하였다. 그에 따라 이곳을 오고가는 도로를 정비할 필요가 있었고, 1910년대 시구개수사업(市區改修事業)을 통해 사업이 본격화된다.

[그림 22] 대한의원



출처 : 朝鮮總督府醫院(1928), 『朝鮮總督府醫院二十年史』

4) 백동 수도원

1909년 독일 성 베네딕도회는 보니파시오 사우어(Bonifatius Sauer)와 도미니쿠스 엔쇼프(Dominikus Enshoff) 2명의 신부를 조선으로 보냈다.¹²⁰⁾ 이들은 독일 공사관과 일본 통감부의 도움으로 동북부 지역 혜화동에 약 30,000 평의 대규모 수도원을 설립했다.¹²¹⁾ 1914년 혜화동으로 지역 명칭이 변하기 전에는 백동(柏洞)이었기 때문에 백동 수도원이라 불린다.¹²²⁾ 당시 경성에는 두 개의 본당(本堂)이 존재했다. 약현(藥峴, 현재의 중림동) 본당과 종현(鍾峴, 현재의 명동)본당이 그것이다.¹²³⁾ 이들이 혜화동에 정착하게 된 이유는 천주교가 조선에 전해져온 18세기 정약용과 이승훈 등 몇몇 성균관 유생들로 하여금 천주교 모임이 형성되고 그 모임의 여파로 성균관 주변의 반촌에까지 전파되었던 천주교의 역사적 배경을 담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이다.¹²⁴⁾ 또한 독일에서 혜화동을 주목한 이유는 저렴한 가격으로 대규모의 부지를 확보하여 자급자족의 생활이 가능할 수 있도록 조성하고자 했기 때문이다.¹²⁵⁾

120) 선지훈(2007), 「‘선교 베네딕도회’의 한국 진출과 선교 활동 -일제시대 한국과 만주에서의 활동을 중심으로-」, 『教會史研究』 29, p.78; 天主教惠化洞教會(1977), 『柏洞 半世紀 - 惠化洞聖堂50年史 -』, 서울: 天主教惠化洞教會, p.79

121) 장정란(2003), 「독일 베네딕도회의 한국 진출과 교육 활동」 『인간연구』, 5, p.127

122) 天主教惠化洞教會(1977), pp.47·82

123) 天主教惠化洞教會(1977), p.79

124) 天主教惠化洞教會(1977), pp.48-51

125) 김정신(2015), p.53

[그림 23] 혜화동의 명물인 풍차를 소개한 기사



출처 : 「惠化洞 風車」, 『東亞日報』, 1924.07.24.

“동소문 안 혜화동에 덕국사람들 사는 데가 있습니다. 그 안에 공장이 있고, 학교가 있고, 기숙사가 있고, 나물밭이 있고, 가지각색의 것이 다 있고, 교당까지 있습니다. 덕국사람의 촌입니다. 아니올시다, 덕국을 즐겨다 놓은 것입니다. 물산장려를 주창하고 자작자급을 말씀하는 이들을 본떠올 만합니다. … 아직은 덕국사람의 촌으로 있는 이곳에 괴상야릇한 물건이 하나 있습니다. 이것이 풍차(風車)인 줄 아는 사람은 더러 있으나, 무엇에 쓰는 것인지 아는 사람은 드문 모양입니다. 아는 사람의 말을 들으니 이것이 무자위랍니다. 바람 힘을 이용해서 깊은 우물에서 물을 올리니 신식 두레박이랍니다. 세포(洗浦) 사람은 눈이 시도록 보는 것이지만, 이 혜화동 것이 희귀한 명물 노릇을 한답니다.”¹²⁶⁾

기사와 같이, 수도원은 독일인 마을과 다름없었다. 학교와 기숙사, 공

126) 「惠化洞 風車」, 『東亞日報』, 1924.07.24.

장 및 작업장, 정원과 농장 등 그 안에서 자급자족이 가능할 만큼 넓은 부지의 공간이었다. 베네딕도적 사상에 의하면, 선교 생활의 터전은 본당이고 이 안에서 삶의 학교가 만들어지면서 그리스도교적인 가정 정신을 이룰 수 있기 때문에 선교사들의 공동 생활과 본당의 넉넉한 부지 확보는 필수였다.¹²⁷⁾ 승려 300여 명과 학교 생도 100여 명이 생활하는 곳으로 과연 경성 안 독일인 마을이라 불릴 만 했다.¹²⁸⁾ 베네딕도회는 실업 교육을 통한 조선인의 생활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1910년 숭공학교(崇工學校)와 1911년 교사를 양성하는 사범학교인 숭신학교(崇信學校)를 설립하였다. 숭신학교는 사범학교를 유지하기 위해 고등중학교로 개편해야하는데 이를 따르기 위해서는 일본인 교사 채용과 일본어 위주의 수업을 해야 했다.¹²⁹⁾ 베네딕도회는 이를 수긍하지 않고 1913년 숭신학교를 폐교하였다. 숭공학교는 1921년 폐교하기 전까지 꾸준히 신입생의 수가 증가하였고, 이들의 기술 또한 성장하여 작업장으로 들어오는 주문량이 많아 그 기한을 지키지 못할 정도였다.¹³⁰⁾

127) 선지훈(2007), p.74

128) 朴勝喆, 「獨逸地方의 二週間」, 『開闢』 제26호, 1922.08.01.

129) 장정란(2003), p.149

130) 장정란(2003), pp.139-142

[그림 24] 1920년대 백동 수도원 모습



출처 : 노르베르트 베버(1927), 『고요한 아침의 나라에서』

대규모의 시설이 마을에 자리해있으면 거주민들로 하여금 관심의 대상이 될 것이고, 시설의 주체와 주민들 간의 소통이 존재했을 것이다. 수도원의 선교사와 신도들이 해화동을 비롯한 인근의 동북부 지역 주민들과 어떠한 커뮤니티를 형성하였는가에 대하여 자세히 알 수는 없다. 하지만 일본인 소유의 국토로 변해가는 조선을 걱정하고 인근의 병원과 고아원 등의 시설을 방문하면서 조선 사회와 조선인에 대해 관심을 가진 베버 신부의 모습을 통해 수도원 사람들은 주변의 동북부 지역민들과의 소통을 소홀히 하지 않았을 것이라 생각한다.¹³¹⁾

수도원은 일제강점기 동안 해화동에서 지속하지 못하고 1927년 덕원으로 이전한다.¹³²⁾ 독일 본국의 세계대전으로 인한 재정난이 원인이 될 수도 있겠으나, 앞으로 후술(後述)할 1920년대 동북부 지역의 상황을 통

131) 박일영(2012), 「노르베르트 베버의 한국 선교정책 연구」, 『종교연구』 67, pp.128-130

132) 「獨逸修道院 德源으로 移轉」, 『東亞日報』, 1927.10.02.; 이와 더불어 베버는 『고요한 아침의 나라에서』(1927)라는 영상기록물을 제작하였다. 이것은 1925년 당시 조선인의 모습을 담은 영상물로, 베버의 조선에 대한 관심을 엿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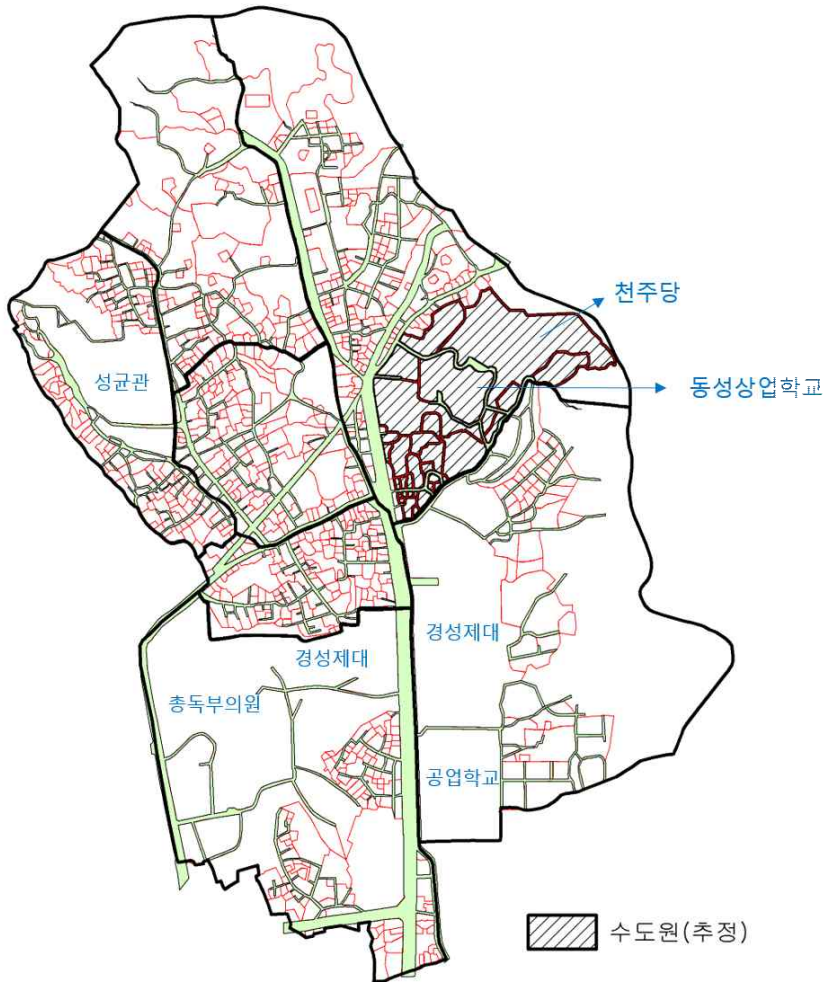
해 보면 동북부 지역으로 밀려들어오는 새로운 세력들을 감당하지 못하고 떠난 것과 다름없다. 이후 현재의 혜화동 성당에 해당하는 부지만 한국 천주교회의 본당으로 종교를 이어가고 나머지의 대규모 토지는 매각된다.

“당시 낙산 수도원 아래를 굽어보면 그 일대(동숭동 전 서울대학교 문리대와 현 동성 중·등학교, 혜화동 성당, 대·소신학교)가 모두 수도원 땅이었는데 수도회는 덕원으로 옮겨 가게 됨에 따라 재정 곤란으로 동숭동 포도원 땅은 경성제대 기지로 매각하였으나, 나머지 땅은 정부나 일반에 매각 처분하기가 아까워 서울 교구에서 매입해 주도록 권유했다.”¹³³⁾

위의 인용문에 근거하여 1936년 지도를 바탕으로 백동 수도원이 자리했던 위치와 그 범주를 1927년 지적목록을 참고하여 추정해 표시하면 아래와 같다.

133) 天主教惠化洞教會(1977), p.81

[그림 25] 백동 수도원의 영역 범위 추정도



비고 : 1917년 · 1927년 『京城府管內地籍目録』의 필지 면적과 소유자를 참고하여 1936년 『大京城精圖』의 지번을 바탕으로 필자가 제작함

2. 1910년대

1910년 한일합병조약 체결 이후 총독부는 1900년대 동북부 지역에 설립한 시설들을 토대로 점차 지역을 총독부 산하의 시설들로 장악해갔다.

기존에 세운 경성공업전습소를 경성공업전문학교로 승격시키고, 중앙시험소를 추가 설립하여 전문기술가를 양성하는 공간으로 형성해갔다. 또한 의학강습소를 경성의학전문학교로, 대한의원을 조선총독부의원으로 승격 및 개칭하여 발전해나갔다. 당시 동북부 지역은 도성 안 다른 지역에 비해 개발이 미진하였던 곳이었으므로 대규모의 부지를 확보할 수 있는 장점이 있었다. 이는 1910년 한일합병 후 조선에 대한 지배를 시작해 나가던 총독부에게 매력적인 지역으로 다가왔고, 대규모 부지에 총독부 시설을 입지시킴으로써 식민지를 겪고 있는 조선인들에게 일본에 대한 위압감을 느끼게 했다. 또한 동북부 지역에 관립 시설을 증축해나가는 과정을 통해 이 지역에 대한 이미지가 점차 개발로부터 소외되지 않는 영역으로 인식되어가 점차 사람들의 관심을 환기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경기도 진위군청에서 1912년 건문을 넓히고자 파견한 130여 명의 경성관광단은 경성의 시가지 뿐 아니라 동북부 지역의 학교 및 병원까지 방문하였다.¹³⁴⁾ 이것을 통해 동북부 지역의 시설들은 경성의 중심시가지와 함께 경성의 자랑으로 여기기 충분한 것이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발전에 발맞춰 해당 시설들을 왕래할 수 있도록 도로 연결망이 필요했다. 1912년 계획한 시구개수예정노선에는 동북부 지역에 설립한 총독부 중요시설들을 지점으로 하여 경성 내 다른 중요지점들과 연결하는 도로를 형성하고자 했다.

1) 중앙시험소과 관립학교

1907년에 설립된 경성공업전습소는 1910년 농상공부령 제50호 발표 이후 이전의 기능교육과 더불어 1912년 중앙시험소를 설립해 공업에 대한 분석과 시험연구까지 그 역할범위를 확대했다.¹³⁵⁾ 공업전습소를 통해

134) 「振威의 京城觀光團」, 『每日申報』, 1912.04.11.

135) 이태희(2013), 「제국 일본의 공업시험연구체제와 1910년대 조선총독부 중앙시험소의 공업화 전략」, 『역사와 문화』 25, p.134

공업교육을 실시하고, 중앙시험소를 통해 공업 분야의 연구 및 실험을 이어가 공업화를 이루고자 했다.¹³⁶⁾ 조선의 원료를 활용한 제조공업의 육성을 위하여 중앙시험소에서의 실험은 필수적이었다. 또한 이것은 조선의 공업을 발전시킬 뿐 아니라 제국 일본이 전쟁을 위한 물자의 공급량을 증대시키는 것과도 연관되어 있다. 일본 총독부의 중앙시험소에 대한 관심은 투입한 예산액을 통해 알 수 있다. 중앙시험소는 일본 농상무성의 공업시험소보다 예산액의 격차가 크지 않거나 더 많았고, 일본 지방에 있는 공업시험장과 비교하면 그 차액은 훨씬 컸다.¹³⁷⁾ 그만큼 총독부에게 중앙시험소는 일본의 것과 다름없이 중요한 시설이었음을 알 수 있다. 총독부의 관심사 중 하나인 중앙시험소가 동북부 지역에 있다는 것은 해당 지역에 대한 관심 역시 증대될 가능성을 비춘다.

한 편, 1916년 4월, 총독부는 공업전습소와 의학강습소, 전수학교(專修學校) 이 3개의 교육기관을 전문학교로 승격한다. 공업전습소는 경성공업전문학교, 의학강습소는 경성의학전문학교로 개칭되고, 전수학교는 그대로 그 명칭을 사용한다.¹³⁸⁾ 이후 1922년 4월 관립전문학교개정규정에 따라 경성공업전문학교는 경성고등공업학교로, 전수학교는 경성법률전문학교로 개칭되고 경성의학전문학교는 그대로의 명칭을 따른다.¹³⁹⁾ 광화문통에 위치한 전수학교를 제외한 공업전문학교와 의학전문학교는 각각 동숭동과 연건동에 자리해있는 것으로, 동북부 지역에 관립학교를 세운 것은 의미있는 일이다. 이는 3개 중 2개의 관립전문학교가 동북부 지역에 위치함으로써 동북부 지역에 대한 가치가 일부분 상승했을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또한 이 지역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도 증가했을 가능성이 농후하다. 총독부는 점차적으로 동북부 지역 내에 교육기관과 같은 중요

136) 이태희(2013), pp.122-1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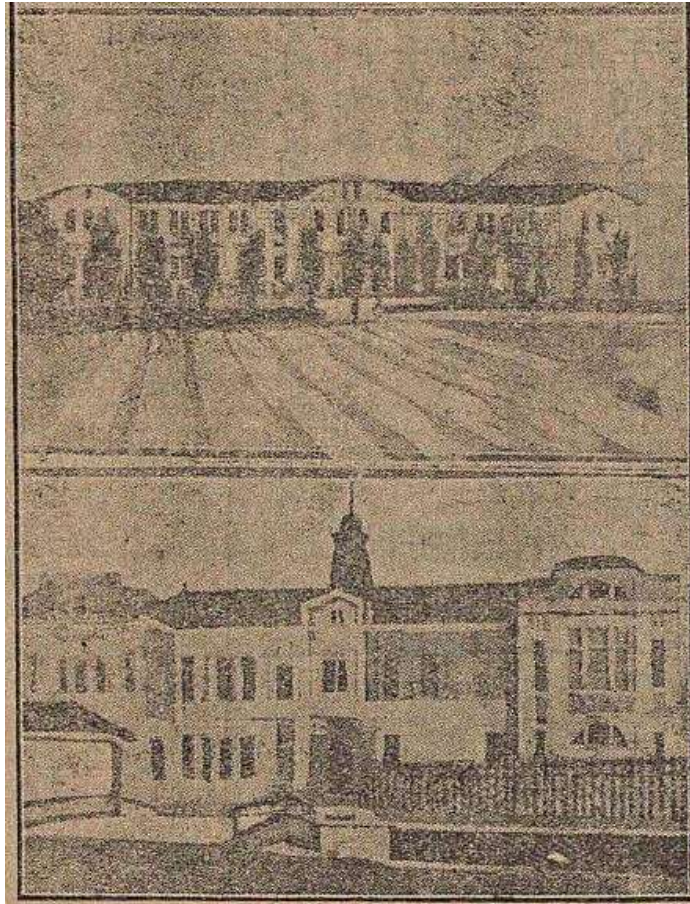
137) “설립 당시의 농상무성 공업시험소와 중앙시험소의 예산액을 비교하면, 전자는 5만 5221엔, 후자는 4만 8481엔으로 격차가 심하지 않았다. … 1915년의 경우 오히려 중앙시험소가 농상무성 공업시험소보다 4398엔이 더 많았다. 일본의 지방 공업시험장과 비교해보면 예산액이 더 많았음을 알 수 있다. 1912년~1915년 오사카공업시험장의 평균 예산액은 5만 7256엔이고, 교토시 도자기시험장은 3만 992엔이었다. 같은 기간 동안 중앙시험소의 평균 예산액은 8만 488엔이었다.” (출처 : 이태희(2013), p.140)

138) 「專門學校昇格」, 『每日申報』, 1916.04.03.

139) 「專門學校 改正規程發布」, 『每日申報』, 1922.04.05.

시설을 입지시키면서 개발로부터 소외되었던 지역까지 식민지 도시로 만들어나갔다.

[그림 26] 전문학교가 될 의학강습소와 공업전습소 건물



출처 : 「半島學界의 新光景」, 『每日申報』, 1916.01.01.

2) 조선총독부의원

1907년 설립된 대한의원은 1910년 8월 한일합병(韓日合併) 이후 9월 칙령 366호 의원관제를 발포하여 총독부의원으로 개칭하였다.¹⁴⁰⁾ 이와

더불어 병원의 부지를 확장하였다. 병원의 확장 부지는 영희전(永禧殿)으로, 대한의원과 붙어있으면서도 녹지가 보존되어 있는 장소였다.

“영희전(永禧殿) … 이 터는 본래 세조(世祖)의 딸 의숙공주(懿淑公主)의 사저(私邸)로 중종의 왕비인 단경왕후(端敬王后) 정(愼)씨가 순위(遜位)한 후 이곳에 은거하여 남별전(南別殿)이라 칭하더니 광해군(光海君)代 태조(太祖), 세조(世祖) 양 대왕의 초상을 봉안하고 비로소 영희전(永禧殿)이라 칭하고 그 후 역대 군주의 초상도 또한 안치하여 100년을 보존하더니 광무4년(光武4年, 1900년)에 총독부병원의 정원 즉 지금의 위치 총독부의원 뒤로 이전하였다. 지금에 영희전(永禧殿)이 되어 있는 건물은 원래 정조(正祖)가 그의 부왕인 장헌세자(莊祖大王=思悼世子)의 비명(非命)에 죽은 것을 애도하기 위하여 세운 사도묘(思悼廟) 일명 景慕宮이었다.”¹⁴¹⁾ (→필자 재풀이)

위의 기록에서 설명하듯이, 영희전은 정조代 조성한 경모궁(景慕宮)이었다. 정조는 모민을 실시하면서 경모궁 일대를 위엄 있는 곳으로 만들어 나갔지만, 일제강점기 이후 경모궁은 총독부의 계획에 의해 사라지게 된다. 이 부지는 다수의 민가가 들어선 곳이 아니기 때문에 토지 매입의 과정에서 오랜 시간을 투입할 필요가 없고 매입 과정에서의 마찰을 겪을 필요가 없는 곳이었다. 또한 본래 이곳은 사당(祠堂)이기 때문에 조용하고 한적하며 자연의 풍경이 보존되어 있던 곳이다. 그렇기 때문에 총독부의 입장에서 비교적 손쉽게 얻을 수 있는 땅이었고, 사람들에게 신 체적·정신적 치료와 안정을 돕는 병원으로 확장하기 적합한 땅이었다.

“明治43년 10월1일 육군군의총감(陸軍軍醫總監) 藤田嗣章(후지타 스구아키) 원장이 맡고난 이후 의원은 점차 확장 증축을 계획

140) 朝鮮總督府醫院(1928), pp.1・11

141) 「京城이 가진 名所와 古蹟」, 『別乾坤』 제23호, 1929.09.27.

한다. 明治44년 10월 이왕가(李王家)의 영희전 부지 전부(약 4,000평)를 받았다. 이에 의원은 건평 1,994평을 증축하고 본관 병실 4동, 별병실(別病室) 3동, 분병실(分病室) 3동, 간호부 기숙사 1동까지 본관 양측에 증축하는 등 894평을 더하여 총 2,892평의 광대하게 건축하였다. 마등산 꼭대기 일대 미관을 이루어갔다.

의원 안의 진료를 내,외,눈,이비인후,부인,소아과,피부,치과를 가설해 8개의 진료과목을 두었다. 각 과에 부과장, 직원, 조수, 간호부의 수도 증원하였다. 또한 병실을 확장해 분만실, 세균실, 배양기실, 수술실, 임상강의실, 전기치료실, X광선실, 사진실 등을 설치하였다. 뒤뜰의 녹수(綠樹)가 울창해 회춘원 내에는 3동의 병실을 건설하고 산부인과, 일반 회복기 환자를 수용하였다. 소위 ‘세너토리엄’ 식을 본받아 이 병동을 희망하는 조선귀족 환자가 적지 않았다.”¹⁴²⁾ (→필자 번역)

위의 사료를 보면, 총독부의원은 이왕가(李王家)의 영희전(永禧殿) 부지 전부인 약 4,000평에 병실과 기숙사 등 증축하여 마등산(馬躋山) 꼭대기의 미관을 형성해갔다. 나무가 울창하고 고요한 병원의 정원에는 세동(棟)의 병실이 있는데, 소위 ‘サナトリ-ウム(세너토리엄)’ 식¹⁴³⁾이라 불리는 이 병동은 조선 귀족의 환자들이 머무르기를 희망하였다고 한다. 이를 통해 1910년대 총독부의원은 영역을 점차 확장해나가고 화려한 외

142) “明治四十三年十月一日陸軍々醫總監藤田嗣章院長に任せらる。此時に當り醫院は漸く狹隘を感じ擴張増築を圖らんとす。明治四十四年十月李王家より永禧殿敷地全部(約四千坪)の交付を受けたり。是に於て醫院の建坪1,994坪を増築して本館病室4棟へ、別病室3棟、分病室3棟な、看護婦寄宿舍1棟、及る本館兩側の増築等と894坪を加へて、合計2,892坪の宏大なる建築となり。馬躋山頭一大美觀を呈するに至れり。

醫院内の診療は、内、外、眼、耳鼻咽喉、婦人、小兒科に、更に皮膚、齒科を加へて八科と爲し。各科に副科長、醫員、助手、看護婦の數を増員せり。又病室擴張に伴ひ分娩室、細菌室、培養基室、手術室、臨床講義室、電氣治療室、X光線室、寫眞室等を設けたり。後庭綠樹鬱蒼せる幽邃閑雅の回春園内には3棟の病室を建設して、産婦妊婦、一般恢復期患者を收容す。所謂「サナトリ-ウム」式に倣ふ。朝鮮貴族の患者は此病棟を希望するもの少なからず”(출처 : 朝鮮總督府醫院(1928), p.12)

143) sanatorium, 고원과 해변 등지에 설치한 요양소 (출처 : 네이버 일본어사전 [검색일 : 2016.11.01.]

관과 한적한 병동을 구성하여 재조일본인(在朝日本人)과 경제적으로 여유있는 조선인들에게 그 매력을 어필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27] 조선총독부의원 전경



출처 : 朝鮮總督府(1913), 『朝鮮總督府救濟機關』

3) 시구개수사업

1912년 총독부는 고시 제78호를 통해 경성의 시구개수 예정계획을 발표했다. 1888년 동경에서 실시한 동경시구개정조례(東京市區改正條例)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경성에서의 시구개수사업을 시행하고자 했다.¹⁴⁴⁾

[표 12] 1912년 경성시구개수예정계획노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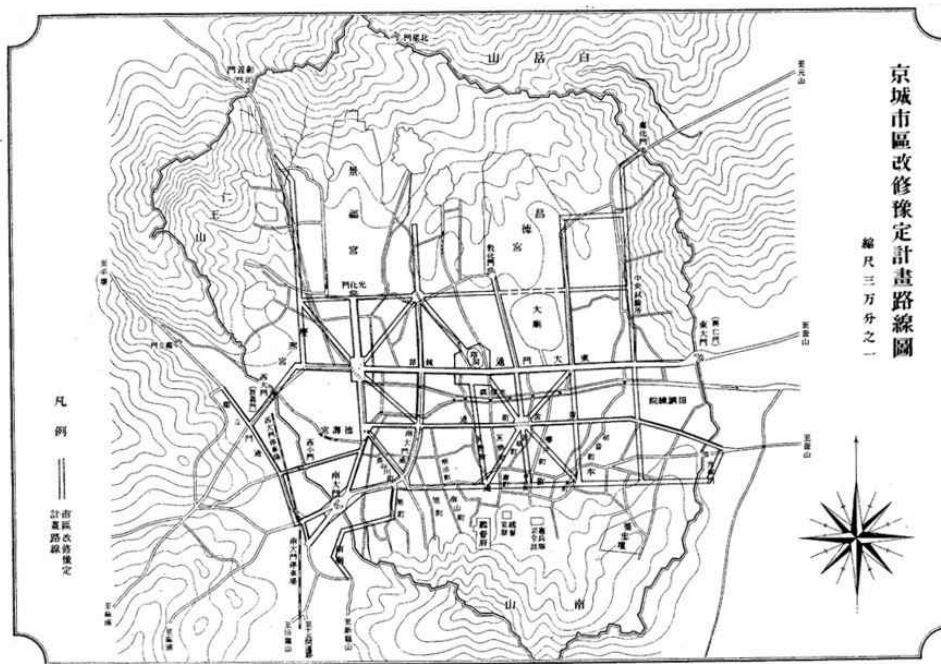
노선	구간	비고
제1	광화문 - 황토현 광장	
제2	남대문 - 남대문 정거장	
제3	황토현 광장 - 대한문 앞 광장 - 남대문	
제4	동대문 - 종로 - 경희궁 앞	
제5	남대문 - 조선은행 앞 - 종로	

144) 손정목(1990), pp.98-101

제6	광화문 앞 - 대안동 광장 - 돈화문통 횡단 - 총독부 의원 남부 - 중앙시험소 부근	
제7	종로 - 북부 대안동 광장	
제8	대한문 앞 광장 - 황금정 직통 - 광희문 밖	
제9	돈화문 앞 - 황금정 광장 - 본정6정목 횡단 - 대화정	
제10	중앙시험소 부근 - 황금정통 횡단 - 본정	
제11	식물원 앞 - 총독부의원 직통 - 본정9정목 횡단 - 대화정	
제12	혜화문 - 중앙시험소 부근	
제13	조선은행 앞 광장 - 본정 직통 - 광희문 밖	
제14	대한문 앞 광장 - 조선은행 앞 광장	
제15	경희궁 앞 - 서대문 - 독립문통	
제16	광화문 앞 - 서부 은행동	
제17	북문 부근 청풍계동 - 경희궁 앞	
제18	대한문 앞 광장 - 서소문통 - 독립문통	
제19	독립문통4정목 - 마포가도	
제20	남대문 - (마포를 향해 -) 철도 건널목	
제21	마포가도 - 남대문 정거장	
제22	조선은행 앞 - 옥정1정목 - 남묘 앞 - 길야정	
제23	경복궁 서부 은행동 - 황토현 광장 - 남대문통 - 황금정의 교차점	
제24	대안동 광장 - 북부 화개동	
제25	대안동 광장 - 탑공원	
제26	탑공원 앞 광장 - 황금정 광장 - 본정8정목	
제27	탑공원 앞 광장 - 황금정 횡단 - 영락정1정목 - 본정5정목	
제28	본정5정목 부근 - 황금정 광장 - 동대문통	
제29	식물원 부근 - 혜화문통 횡단 - 상백동 부근	
제30	황금정통 - 본정통	1917년 2월 추가계획
제31	동대문 - 승인동	1917년 2월 추가계획

출처 : 「朝鮮總督府告示第78號」, 『朝鮮總督府官報』, 1912.11.06.; 「朝鮮總督府告示第24號」, 『朝鮮總督府官報』, 1917.02.02.

[그림 28] 1912년 경성시구개수에정계획노선도



출처 : 「朝鮮總督府告示第78號」, 『朝鮮總督府官報』, 1912.11.06.

위의 노선 중 동북부를 포함한 동부 지역에 해당하는 노선은 6호선 · 10호선 · 11호선 · 12호선 · 29호선이다.

동부, 특히 동북부 지역에 계획된 노선은 앞서 1900년대와 1910년대 통감부와 총독부에 의해 동북부 지역에 입지하기 된 시설들과 연관 있다. 혜화문을 제외하고는 모두 노선의 시작과 끝, 혹은 경유지가 총독부 의원과 중앙시험소, 창경궁 내에 조성한 식물원¹⁴⁵⁾이다. 즉, 총독부의 계획에 의해 설립된 시설은 시구개수를 계획함에 있어서 우선순위가 되는 기준점이었다.

시구개수사업을 시행하기에 앞서서 이루어져야 할 기반사항은 재정 마련이다. 이를 위해 총독부는 관유지(官有地)를 경매로 불하(拂下)하여

145) 통감부는 동물원과 식물원, 박물관 건설하기로 하여 소용이 없는 공랑(公廊)은 몰수하고 훼손하기로 계획하고 조성 과정을 거쳐 1909년 11월에 개방하였다.(「三苑新設」, 『大韓毎日申報』, 1908.02.12.; 「구경낫군」, 『大韓毎日申報』, 1909.11.02.)

사업의 경비를 마련하고자 하였다.¹⁴⁶⁾ 개발이 미진했던 동부, 특히 동북부 지역은 매각할 수 있는 토지가 상당했다. 더 이상 지대가 높아 왕이 사는 궁 내부를 내려다볼 수 있다는 이유로 민가의 진입을 불허하는 조선시대가 아니기 때문이다. 비어있는 땅과 산 아랫자락인 북악산 아래와 낙산 아래 모두 매각할 수 있는 토지였다. 1911년부터 전국적으로 여러 차례 관유재산(官有財産)을 조사하였고, 1911년 조사를 마친 경성의 관유재산은 300필로 약 60만평이었다.¹⁴⁷⁾ 1913년과 1914년 불하한 경성 내 관유지는 대부분 동부 및 동북부 지역의 토지로, 창덕궁 뒤의 과수원, 숭1동 북묘(北廟) 외 37필, 동소문 서쪽의 21필, 종로6정목 동창학교의 19필, 북묘 인근의 밭이 그것이다.¹⁴⁸⁾

관유재산 경매 참여한 사람들은 조선인과 일본인에 따라 그 목적이 상이했다. 조선인의 경우, 거주를 목적으로 토지를 입찰받기 원했고, 일본인의 경우 투자의 목적으로 토지를 입찰받기 원했다.¹⁴⁹⁾ 관유재산 불하를 통해 관(官) 소유의 토지가 민간 소유지로 전환되었고, 이것은 주로 주택지 개발로 이어졌을 것이다. 또한 부를 축적해왔던 조선인들은 경매 낙찰을 통해 도성 안이라는 전통적으로 정치와 상업의 중심이 되어온 의미있는 지역으로 진출하게 되었다.¹⁵⁰⁾

결과적으로, 1912년부터 계획된 노선은 재정문제로 인하여 빠르게 진척되지는 않았다. 또한 1915년 9월 개최하는 조선물산공진회(朝鮮物産共進會)를 목전(目前)에 둔 시점에서 일차적으로 도성 밖에서부터 안으로 들어와 공진회 장소인 경복궁으로 향하는 노선만 공사를 완료하였다. 그 중 하나인 식물원 앞에서 대화정까지 가는 제11호선(일명 의원통)은 1915년 공사를 시작하였다. 제11호선의 종로 남쪽 부근을 먼저 시행한

146) 「官有財産의 賣却」, 『每日申報』, 1913.05.21

147) 「官有財産筆數」, 『每日申報』, 1911.12.22.; 「官有財産調査現況」, 『每日申報』, 1912.12.17.; 「官有財産의 整理」, 『每日申報』, 1913.04.12.

148) 「官有財産競爭入札」, 『每日申報』, 1913.07.03.; 「第三回拂下土地」, 『每日申報』, 1913.08.08.; 「京城官有財産競賣」, 『每日申報』, 1914.07.11.

149) 「官有財産入札盛況」, 『每日申報』, 1913.06.12.; 엄복규(2009), 『日帝下 京城도시 계획의 구상과 시행』,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p.34

150) 엄복규(2009), p.34

후 1915년 9월에 숭2동과 숭4동, 그리고 혜화동의 일부 토지를 수용하여 공사를 시행했다.¹⁵¹⁾ 이 시기에 완공된 노선은 아래와 같다.

[표 13] 1915년 공진회 전까지 완공된 시구개수 노선

노선	구간	비고
제2	남대문 - 남대문정거장	
제3	황토현광장 - 대한문 앞 광장 - 남대문	태평통
제5	남대문 - 조선은행 앞 - 종로	남대문통
제8	대한문 앞 광장 - 황금정 직통 - 광희문 밖	황금정통
제9	돈화문 앞 - 황금정광장 - 본정6정목 횡단 - 대화정	돈화문통
제11	식물원 앞 - 총독부의원통 직통 - 본정9정목 횡단 - 대화정	의원통
제14	대한문 앞 광장 - 조선은행 앞 광장	장곡천정통
제15	경희궁 앞 - 서대문 - 독립문통	서대문통

출처 : 염복규(2009), pp.34-51 정리

1915년 공진회 이후 시구개수사업은 진척이 없다가 1917년 다시 재개하였다.¹⁵²⁾ 이에 대한 설명은 다음 절(1920년대)에서 후술한다.

2. 1920년대

1925년 동숭동과 연건동에 설립이 결정된 경성제국대학 본과는 이전 시기 총독부에 의해 설립된 병원 및 학교 시설들과 함께 동북부 지역의 정체성을 확립해나가는 계기를 마련했다. 총 9만 여 평의 부지에 의학부 및 법문학부 건물과 대학관사, 도서관 등 대규모의 국가시설이 입지함으로써 인근의 토지 시세에 영향을 미치고, 지역의 모습을 변화시켜나갔다.¹⁵³⁾ 이와 더불어 1920년대 진행된 시구개수사업은 동북부 지역의 개

151) 「土地收用公告」, 『朝鮮總督府官報』, 1915.09.01.; 염복규(2009), p.46

152) 염복규(2009), p.53

153) 이충우(1980), 『京城帝國大學』, 서울 : 多樂園, p.104; 「學生街化 할 東村」, 『時代日報』, 1925.01.14.; 「京城大學의 竣工과 新學生村 出現」, 『每日申報』,

밭에 밭땃취 각 학교와 병원, 혜화문 밖 교외지역으로의 이동을 편리하도록 도왔다. 이는 사람들로 하여금 동북부 지역으로의 관심과 이주를 촉진시키는 계기로 작용한다.

1) 경성제국대학

1919년 3·1운동 이후 조선인들은 정치적 독립 뿐 아니라, 교육과 문화 등 조선인이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힘쓰기 시작했다. 민립대학 설립운동과 물산장려운동이 그것이다.¹⁵⁴⁾ 당시 조선 내에는 대학이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조선인들의 민립대학 운동에 대한 호응은 상당했다. 총독부는 조선인의 손에 의해 대학이 설립되고 조선인이 성장하게 됨을 두려워하여 이들의 요구를 삭힐 겸 조선에 거주하는 일본 관료들의 자녀를 교육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국대학을 설립하기로 결정하였다.¹⁵⁵⁾ 1923년 청량리 약 2만 평의 부지에 대학 예과를 건설하기로 하였다.¹⁵⁶⁾ 당시 예과를 건설할 부지는 평당 2원 정도의 가격으로 매수하여 공사계획이 확정된 상태였으나 6-7만 평이 요구되는 본과를 세울 부지는 미정인 상태였다.¹⁵⁷⁾ 1925년 최종적으로 선정된 본과 부지는 도성 안 동북부 지역의 동숭동과 연건동으로, 경기도립상업학교(京畿道立商業學校) 건축지로 매수했던 8,000여 평의 부지와 총독부 병원 및 공업전문학교 뒤의 19,000여 평, 그리고 개교 후 대학부속병원으로 수용할 총독부병원 65,000여 평을 포함하여 총 9만 2천 평을 확보하였다.¹⁵⁸⁾ 이는 동북부 지역이 1920년대 중반까지도 다른 도성 안 지역에 비해 여전히 저개발 지역으로 잔존해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다. 본과가 들어서는 연건동

1925.01.16.

154) 이충우(1980), p.54

155) 이충우(1980), p.5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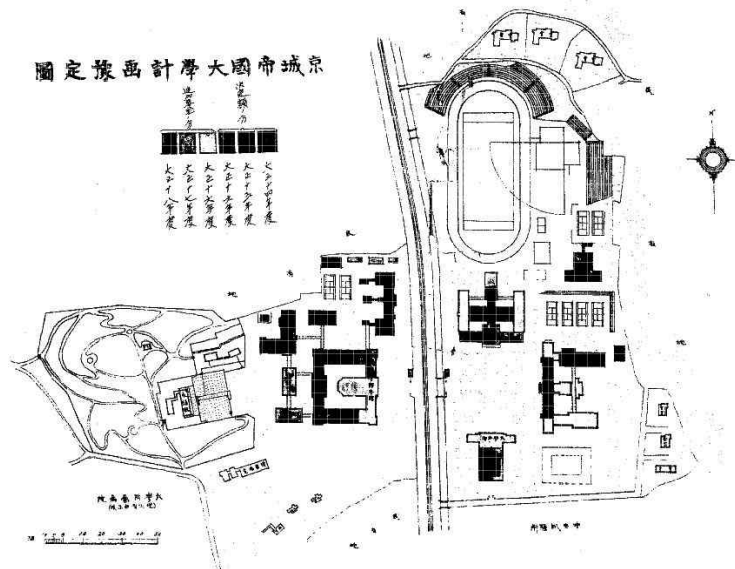
156) 「朝鮮大學本科基地 豫本科를 分離乎」, 『東亞日報』, 1923.03.27.

157) 「朝鮮大學本科基地 豫本科를 分離乎」, 『東亞日報』, 1923.03.27.

158) 「京大建築」, 『時代日報』, 1925.01.12.

과 동숭동을 비롯하여 주변 일대는 1923년까지만 해도 평당 5-6원이었던 토지 가격이 26-27원으로 폭등했다.¹⁵⁹⁾ 개발이 미진했던 지역이었기 때문에 관심받지 못했던 곳이 경성제대의 설립으로 하여금 관심이 모아졌고, 이는 지역의 변화를 야기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그림 29] 1926년 경성제국대학계획예정도



출처 : 『京城帝國大學建築計畫說明』 (CJA0004699, 1926년)

경성제국대학 본과 건축계획안은 크게 본관 및 대강당과 같은 공통건물, 도서관, 법문학부, 의학부, 부속병원, 관사로 구분되어 있다.¹⁶⁰⁾ 관사는 현재 경성에 있는 주택의 열악함과 경성의 주택난으로 인하여 주거지로 인한 대학의 교원 확보 위기를 방지하기 위해 새로 건설하는 것이다.¹⁶¹⁾ 예과 직원을 제외한 약 100여 명의 경성제국대학의 교수 및 직원은 대부분 일본인이었으므로 동북부 지역은 자연히 일본인 수가 증가하게 된다.¹⁶²⁾ 교수를 포함한 경성제대 직원을 위한 관사와 학생을 위한

159) 「京城大學新築과 附近土地價格暴騰豫想」, 『東亞日報』, 1925.01.15.

160) 『京城帝國大學建築計畫說明』 (CJA0004699, 1926년)

161) 『京城帝國大學建築計畫說明』 (CJA0004699, 1926년)

기숙사가 교내에 건설되지만, 이들은 학교 인근의 주거지로 들어간다. 그 이유는 본과 소속으로 지어진 관사의 수가 20여 동으로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수가 아니었기 때문이다.¹⁶³⁾ 또한 기숙사의 경우, 한 방에 6명이 생활하는 기숙사와 독방을 사용하는 하숙의 가격 차이가 월 2원이었던 청량리 예과의 상황으로 보아 상당수의 학생이 학교 인근 주거지역에서의 하숙을 선택하였음을 짐작할 수 있다.¹⁶⁴⁾

연건동과 동숭동에 경성제국대학이 들어선 것은 동북부 지역의 분위기 변화를 야기했다. 앞의 서술에서도 추론할 수 있듯이, 대학 교수와 직원, 그리고 학생들은 동북부 지역의 주요한 활동인구 및 거주민이 되어 주변 지역의 환경을 조성해가는데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의미에서 경성제대 교수와 직원, 그리고 학생들의 사회적 배경은 동북부 지역의 정체성을 알아가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

[표 14] 경성제대 직원 수

단위 : 명, %

	1927년	1932년	1937년
일본인	98(89.90%)	187(83.86%)	206(89.57%)
조선인	8(7.34%)	32(14.35%)	20(8.70%)
기타	3(2.75%)	4(1.79%)	4(1.74%)
계	109	223	230

출처 : 京城帝國大學(1927), 『京城帝國大學一覽』, pp.26-38; 京城帝國大學(1932), 『京城帝國大學一覽』, pp.149-175; 京城帝國大學(1937), 『京城帝國大學一覽』, pp.193-216 정리

위의 표를 통해 알 수 있듯이, 경성제대 교수를 포함한 직원의 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이 중 일본인 직원의 경우 80%이상의 비율을 차

162) 京城帝國大學(1927), 『京城帝國大學一覽』, pp.26-38

163) 「京城大學新築과 附近土地價格 暴騰 豫想」, 『東亞日報』, 1925.01.14.

164) 이충우(1980), P.84

지하고 있다.

[표 15] 경성제대 입학생 수

단위 : 명

	1927년 입학		1932년 입학		1937년 입학	
	법문학부	의학부	법문학부	의학부	법문학부	의학부
일본인	50	79	44	62	76	49
조선인	29	65	31	11	64	22
계	223		148		211명	

출처 : 京城帝國大學(1927), 『京城帝國大學一覽』, p.101; 京城帝國大學(1932), 『京城帝國大學一覽』, pp.182-196; 京城帝國大學(1937), 『京城帝國大學一覽』, pp.296-297 정리

또한 위의 표에서 보면 경성제대 입학생 수 중 일본인은 조선인보다 매년 많았음을 알 수 있다. 즉, 경성제대의 구성원인 직원과 학생 모두 일본인이 조선인보다 월등히 많았고, 이로 말미암아 경성제대의 입지로 하여금 상당수의 일본인이 동북부 지역에서 활동하였음을 유추할 수 있다. 한 편, 경성제대에 입학하는 조선인 학생들은 대부분 공무직의 자제(子弟)가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농업 및 상업 종사자의 자제, 무직(無職)의 부모를 둔 이들이 많았다.¹⁶⁵⁾ 이들은 전통적인 조선 양반층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매달 50-60원의 학비를 부담할 수 있는 경제적 여유가 있는 중상위 계층에 해당한다.¹⁶⁶⁾ 이들의 부모는 조선시대 후기 신분은 낮았으나 부를 축적하면서 개항기를 거쳐 일제강점기로 들어섰고 교육을 통해 자녀들이 사회적 지위를 상승할 수 있도록 경성제대를 선택한 것이다.¹⁶⁷⁾ 이를 통해 보면 조선인 학생을 포함한 경성제대 구성원 대부분이 당대 일반적인 계층이 아닌, 중간 이상의 경제적 또는 사회적 지위의 사

165) 차남희 · 이진(2010), 「경성제국대학과 식민지 시기 “중인층”의 상승 이동」, 『담론 201』 13(4), p.15

166) 차남희 · 이진(2010), p.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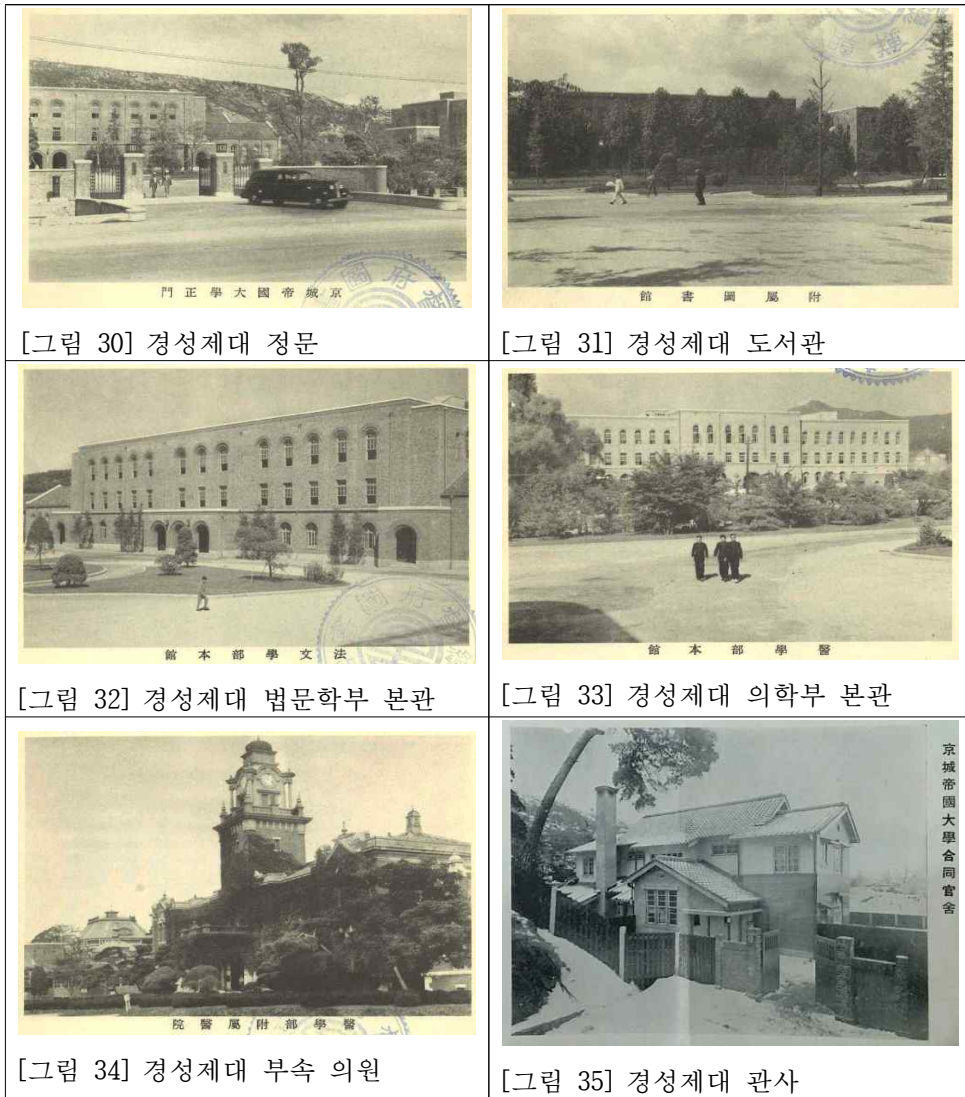
167) 차남희 · 이진(2010), pp.5-6 · 29-32

람들이었음을 알 수 있다. 동북부 지역은 이들의 주된 활동지역으로써 활동하는 이들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신흥부촌으로의 분위기를 형성하면서 발전해갔음을 짐작할 수 있다.

경성제대의 입지로 지역의 변화를 야기하는 또 다른 요인은 학교 건물의 건축양식에서 비롯된다. 처음 동숭동과 연건동이 본과 건물 건설을 계획할 때부터 건물의 건축양식은 지정되어 있었다. 계획된 설계에 의하면 근세식(近世式) 반철근(半鐵筋) 구조의 벽돌(煉瓦) 건물로 구성되었다.¹⁶⁸⁾ 서양식의 건축양식과 더불어 3층 이상의 건물들은 경성제대가 일본 제국대학의 하나로 그 위엄을 표출할 수 있도록 했다. 1929년 조선박람회를 개최하면서 발행한 『京城便覽』에는 경성 소재의 관광지가 소개되어 있다. 내용에는 명승고적 및 관공서와 함께 경성제대가 포함되어 있다. 이는 곧 경성제대가 총독부의 조선에 대한 행정경영을 보여주는 것 중 하나로, 그 행적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근대적인 형태의 건물을 지어야 했음을 의미한다.

168) 「京城大學新築과 附近土地價格 暴騰 豫想」, 『東亞日報』, 1925.01.14.

[표 16] 경성제대 본과 건물들 사진



[그림 30] 경성제대 정문

[그림 31] 경성제대 도서관

[그림 32] 경성제대 법문학부 본관

[그림 33] 경성제대 의학부 본관

[그림 34] 경성제대 부속 의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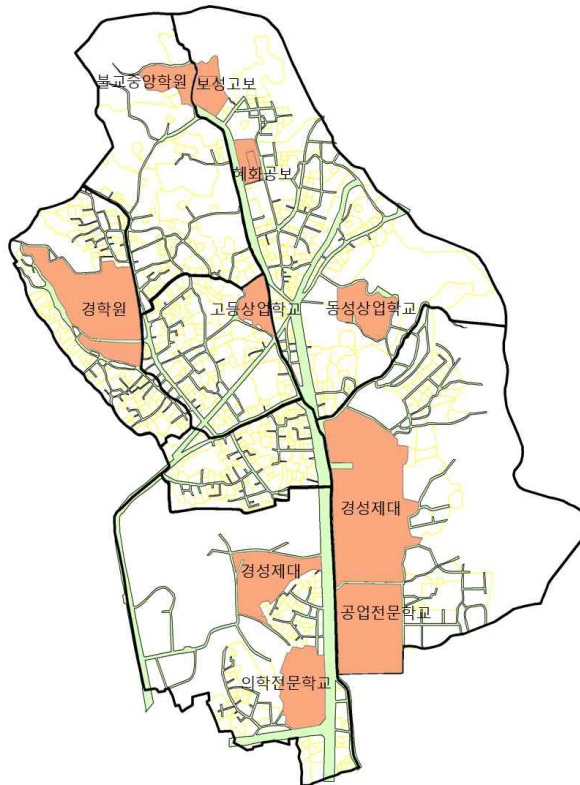
[그림 35] 경성제대 관사

출처 : 京城帝國大學(1937), 『京城帝國大學一覽』; 朝鮮建築會(1931), 『朝鮮と建築』10輯 2號

경성제대의 본과가 동북부 지역에 설립됨에 따라 기존에 있었던 학교들과 더불어 학교촌(學校村)을 형성하였다. 본래 동북부 지역에는 관립학교인 의학전문학교와 공업전문학교, 그리고 경학원, 불교중앙학원 등 사립학교가 자리해있었다. 이에 더하여 경성제대의 설립이 결정되면서 지

역 내 제복점과 문방구점, 서적점, 그리고 여관 등의 상점이 즐비하게 될 것이라 기대했다.¹⁶⁹⁾ 1927년 기사에는 “해화동에 있는 … 학교촌(學校村)이라는 이름을 전하는 동소문 안에는 머지않아 신문화촌이 이루어 지라더라.”¹⁷⁰⁾(→필자 재풀이) 해화동 일대를 학교촌이라 지칭하였음을 알 수 있는 내용이 있다. 이는 경성제대 설립 이후 학교와 관련하여 지역의 정체성이 형성되어진 것으로 보인다.

[그림 36] 1936년 동북부 지역 내 존재하는 학교



169) 「京城大學新築과 附近土地價格暴騰豫想」, 『東亞日報』, 1925.01.15.

170) 「櫻桃園에 文化村 주택지로 개방」, 『中外日報』, 1927.05.24.

2) 시구개수사업

1915년 개최한 조선물산공진회 이후 1917년부터 다시 시구개수사업이 재개되었다. 1919년 6월, 시구개수계획 예정 노선을 발표하였다.¹⁷¹⁾ 1912년의 계획노선을 차용하면서 일부 노선을 삭제 및 추가하였다. 1919년 시구개수안은 1926년 경복궁으로 이전하게 될 총독부 신청사로의 연결망을 형성함과 동시에 이 중심부에서 용산과 마포로 향하는 길목을 형성하는 것에 주안을 두고 있다.¹⁷²⁾

171) 엄복규(2009), pp.61-6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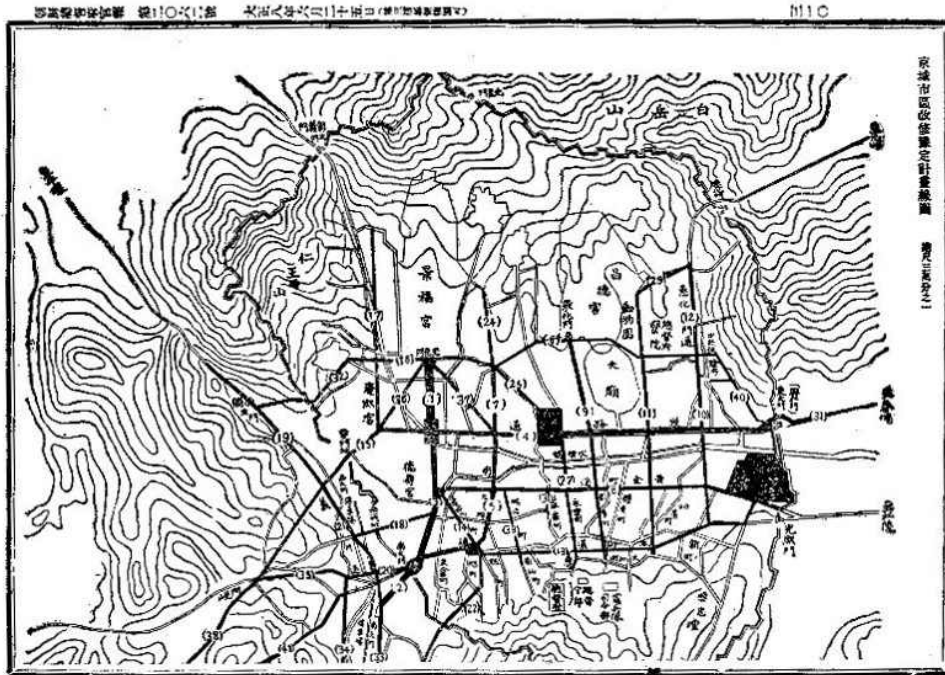
172) 엄복규(2009), p.59

[표 17] 1919년 경성시구개수예정계획노선

노선	구간	비고
제7	종로 - 송현동	
제13	조선은행 앞 광장 - 본정통 남부 직통 - 병목정	
제16	경복궁 앞 광장 - 내자동	
제19	교북동 - 의주통 - 마포가도	
제20	남대문 - (마포를 향해 -) 철도 건널목 - 봉래정2정목	
제22	조선은행 앞 광장 - 옥정2정목·1정목 - 남미창정 - 삼판통	
제23	삭제	
제26	삭제	
제28	삭제	
제29	식물원 부근 - 혜화동	
제30	황금정2정목 - 영락정1정목	
제32	내자동 - 사직동 - 의주통 교북동	
제33	남대문정거장 앞 - 강기정	
제34	봉래정2정목 - 청엽정3정목	
제35	봉래정2정목 - 아현	
제36	경복궁 앞 광장 - 경희궁 앞	
제37	경복궁 앞 광장 - 종로	
제38	죽림정2정목 - 마포동	
제39	황금정2정목 - 남산정1정목	
제40	중앙시험소 부근 - 동대문 안 황금정 - 병목정	
제41	봉래정2정목 - 신공덕리	
제42	강기정 - 한강통 철도 건널목	
제43	강기정 - 원정 - 마포동	
제44	원정3정목 - 마포가도	
제45	원정3정목 - 이촌동 - 한강통 철도 건널목	
제46	고시정 - 청엽정1정목	

출처 : 「朝鮮總督府告示第173號」, 『朝鮮總督府官報』, 1919.06.25.

[그림 37] 1919년 경성시구개수예정계획노선도



출처 : 「朝鮮總督府告示第173號」, 『朝鮮總督府官報』, 1919.06.25.

1917년 이전부터 필요에 의한 개발로, 용산 일본군기지로 가는 길인 33호선(남대문정거장 - 용산·마포)이 공사 중에 있었다.¹⁷³⁾ 이와 더불어 20호선(남대문 - 철도건널목 - 봉래정)과 34호선(봉래정 - 청엽정) 공사를 진행했다.¹⁷⁴⁾ 또한 1925년과 1926년에는 종로 일대 도로 확폭과 정비를 시행하였다.¹⁷⁵⁾

1920년대 시구개수사업은 1910년대에 비해 노선을 완공하기까지 오랜 시간이 소요되었다. 6호선(일명 종묘관통선, 광화문 앞 - 중앙시험소)과 재정 문제 때문이다. 6호선의 경우, 1912년의 시구개수안에도 명시되어 있었으나 진행되지 못하고 총독부 이전 계획과 함께 다시금 착수사업에 들어갔다. 그러나 조선 왕가(王家)의 반대로 광화문 앞 - 안국동 구간까

173) 엄복규(2009), p.62

174) 엄복규(2009), p.62

175) 엄복규(2009), p.70

지 완공하였다가, 1926년 순중 서거 이후 안국동 - 돈화문 구간, 1928년 종묘 동쪽인 원남동 - 중앙시험소 구간 공사를 진행했다.¹⁷⁶⁾ 최종적으로 돈화문 - 원남동을 잇는 종묘관통 구간은 1932년이 되어서야 완공되어 광화문 앞에서 중앙시험소까지 연결되었다.¹⁷⁷⁾ 한 편, 경성부는 1926년부터 수 차례에 걸쳐 시구개수안을 작성해 총독부에 제출하였으나 수익자 부담금제도를 시행한다는 가정 하에 예산과 맞지 않는 계획으로 매번 거절당하다가, 1928년 시구개수 예정 노선 통과와 함께 총독부에서 경성부로 시구개수사업이 이관되었다.¹⁷⁸⁾ 그러나 이것 역시도 총독부의 보조금이 감소하고 수익자부담금제도 시행에 대한 승인이 나지 않아 지지부진한 사업이 되었다.¹⁷⁹⁾

동북부 지역의 경우, 1929년부터 1932년까지 동북부 지역에 해당하는 10호선(중앙시험소 - 종로)과 12호선(혜화문 - 중앙시험소)이 완공되었다.¹⁸⁰⁾ 본래 해당 노선들은 1912년 총독부의 시구개수 사업안에 이미 계획되어져 있었을 뿐 아니라, 해당 지역 주민들의 요구가 상당했다.

“ 시내 동소문 부근 일대는 근년에 이르러 갑자기 번창하여 옛날과 면목이 다르게 되었으며 더욱이 숭1·숭2·숭3·숭4·혜화·동숭·연건동 등지에는 경성대학, 고등상업, 고등공업, 도립상업, 경학원 등의 학교와 기타 기관이 있어 학교촌을 이룬 형편으로 2,000여 호에 만 명이나 살고 통학하는 학생만 하더라도 2,000명 이상에 이르러 어디로 보든지 손색이 없는 신시가를 이루었으나 교통기관과 기타 모든 것이 지금까지의 관계상 준비되지 못한 점이 매우 많아 주민의 불편이 적지 않을 뿐더러 장래 그 이상 발전하는데 장애가 적지 않다 하여 대정15년(1926년) 이내로 창경원(昌慶苑)부터 동소문 밖 삼선평(三仙坪)까지 이르는 길을 확장하고 전

176) 염복규(2009), pp.64-67

177) 염복규(2009), pp.67-68

178) 「京城大邱의市區改正 國庫補助額 閣議서承認」, 『朝鮮日報』, 1928.12.27.

179) 염복규(2009), pp.92-93

180) 염복규(2009), p.62

차를 부설하도록 전기회사에 진정서를 그 지방 주민 유력자 50여 명의 이름으로 경성부윤과 조선총독에게 제출하였다.”¹⁸¹⁾ (→필자 재풀이)

“ 시내 동소문 안 주민들은 발전책으로 도로의 확장과 개수에 대한 것을 두루 부당국에 청원운동 하였으나 예산 관계상 실현의 목적을 이루지 못한 바, 동민(洞民) 일동은 당국의 성의가 부족하다 하여 동민대회(洞民大會)를 개최하여 맹렬히 운동을 개시하기로 하여 준비에 분망(奔忙)중이라더라.”¹⁸²⁾

이러한 주민들의 요구와 함께 1928년 동북부 지역의 시구개수 사업이 시작된다. 1915년 공진회 이후 시구개수를 시작하여 1930년대 초반까지 완공된 구간은 아래와 같다.

181) 「東小門附近住民 發展策을 陳情, 도로와 던차를 확장하라고 그 지방 주민이 당국에 진정」, 『東亞日報』, 1926.02.26.

182) 「府堂局의 無誠意로 東小門 洞民大會. 도로 시설과 기타 문제로」, 『朝鮮日報』, 1927.07.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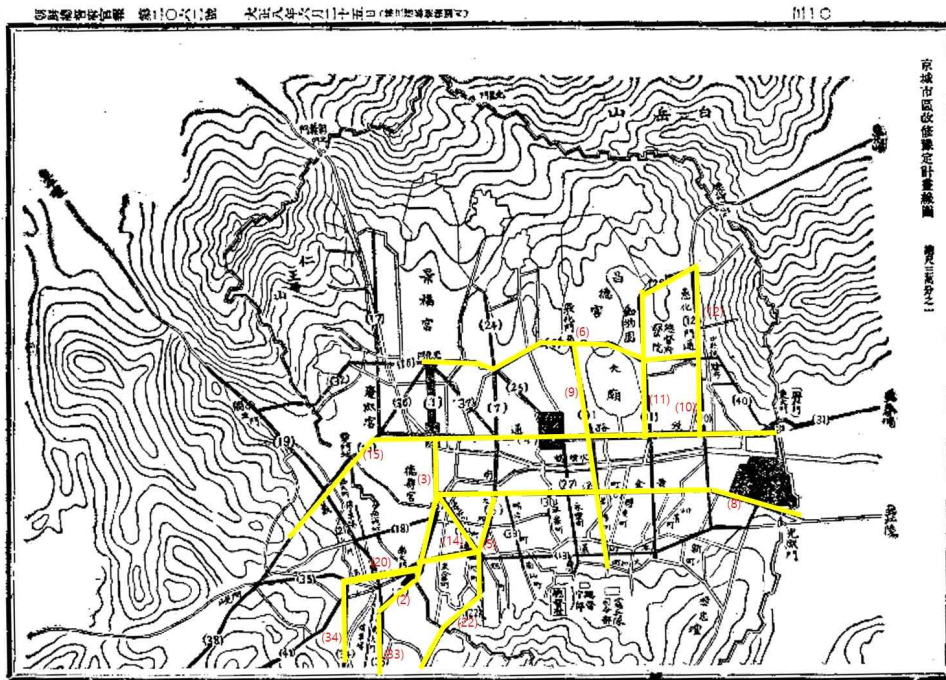
[표 18] 1915년-1932년 완공된 시구개수 노선

노선	구간	비고
제6	광화문 앞 - 대안동 광장 - 돈화문통 횡단 - 총독부의원 남부 - 중앙시험소 부근	1932년 완공
제10	중앙시험소 - 종로	1932년 일부 구간 완공
제12	혜화문 - 중앙시험소	
제20	남대문 - (마포를 향해 -) 철도 건널목 - 봉래정 2정목	
제22	조선은행 앞 - 옥정1정목 - 남묘 앞 - 길야정 - 삼판통	
제33	남대문정거장 앞 - 강기정	
제34	봉래정2정목 - 청엽정3정목	
동대문통	광화문우체국 - 종묘 앞 - 의원통	확폭 및 정비
	황토현 광장 - 종로4정목	

출처 : 엽복규(2009), pp.61-93 정리

위의 노선은 공사의 반발과 재정의 어려움 속에서도 완공된 노선으로, 총독부와 경성부에서 가장 필요로 했던 노선이라 할 수 있다. 특히, 동북부 지역은 총독부에서 운영하고 관할하는 병원과 학교들이 밀집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새로 이전하는 경복궁 총독부 신청사와의 연결이 필요했고, 동북부 지역의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왕래가 편리하도록 하는 도심지와의 연결이 급선무였다. 동북부 지역의 변화와 그에 따른 유동인구의 증가로, 1920년대까지 동북부 지역에 계획했던 모든 전차 노선을 구축하였다.

[그림 38] 1932년까지 완공된 시구개수 노선도



비고 : 1919년 계획된 노선도를 바탕으로 필자가 표기함

3. 동북부 지역의 변화

1900년대부터 대규모의 개발이 이루어진 동북부 지역은 지역의 정체성을 형성해가는 발판을 마련하고 있었다. 지금까지 살펴보았듯이, 이곳에 입지하게 된 시설들로 하여금 학교촌이라 불리게 될 정도로 지역 내 학교와 연계된 시설이 다량으로 포진되어 있었다. 이에 따른 다양한 시설들의 입지는 시구개수사업을 완공해야하는 이유로 작용하게 되었다. 조선시대 거주민이 몰려있던 곳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미개발지역으로 남은 채 1900년대부터 대규모 시설이 들어서게 되던 동북부 지역은 빠르게 변화해갔다. 그 변화는 1920년대 경성제국대학의 설립을 기점으로 눈에

띄게 나타난다. 동북부 지역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은 이곳으로의 인구 유입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른 주거지 개발은 농경지와 대지의 토지 비율을 바꾸어 놓았고, 중간계층 이상을 대상으로 한 문화 주택지를 조성하는 것으로까지 이어졌다. 동북부 지역으로 유입되는 주민들은 교수와 교사, 회사원, 언론인 및 자본가 등 중간계층이라 할 수 있는 신흥 세력이었다. ‘문화촌’¹⁸³⁾을 형성한 동북부 지역은 신흥계층에 의해 주거지로서 살기 좋은 지역으로 선택되어 지역 발전을 지속한다.

1) 주거지 개발

아래 표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1920년대 경성의 인구는 폭발적으로 증가한다. 일본의 토지수탈로 몰락한 조선인 농민계층은 일자리를 구하고자 경성으로 상경하였는데 이것이 첫 번째 원인이다.¹⁸⁴⁾ 당시 경성은 1920년 회사령 철폐 이후 대량의 공장들이 들어서면서 생산도시로 변화해 수많은 노동력을 필요로 했다.¹⁸⁵⁾ 개항 이후 일본인의 조선으로의 꾸준한 유입이 두 번째 원인이다. 일본인은 조선(朝鮮) 운영을 위한 관료와 교사 및 의사 등의 유입이거나 새로운 지역에서의 상업활동을 통한 자본 축적을 위한 형태로 이주해왔다.¹⁸⁶⁾

183) 당시 발행된 기사에서는 동소문 안 근방 지역을 문화촌(文化村)이라 지칭한다. 기사에서는 이곳에 거주하는 사람들 대개가 회사원이거나 월급쟁이, 식자급(識者級)의 사람들이고, 한적한 곳을 찾아 들어와 주택을 새로 지어 간편하고 깨끗한 살림을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출처 : 「大京城의 特殊村」, 『別乾坤』 제23호, 1929.09.27.)

184) 「大京城의 자람은 이것? 死線에 선 五百의 어린 魂! 都市化한 象徵은 僵屍뿐!」, 『時代日報』, 1925.12.13.; 「草草한 行色으로 京城方面集中, 방향 업시 서울로 올라오는 黃海 江原農民」, 『東亞日報』, 1928.08.25.; 「水旱地 農民 殺到로 京城에 求職者 激增」, 『東亞日報』, 1928.12.02.

185) 「京城府內工場趨勢」, 『朝鮮日報』, 1921.07.28.; 「京城工場統計」, 『朝鮮日報』, 1923.10.19.; 「京城에 工場激增 昨今엔 九伯十四處 소비도시로부터 생산도시로 일변 십사년전과 비교하면 룩배가 늘어」, 『朝鮮日報』, 1928.10.17.

[표 19] 경성부 인구 수 변화

단위 : 명

	조선인	일본인	외국인	계
1910	238,495	38,397	2,062	278,958
1915	176,026	62,914	2,145	241,085
1920	181,829	65,617	2,762	250,208
1925	220,176	77,811	4,724	302,711
1930	241,228	97,758	6,440	355,426
1935	284,633	111,321	6,248	404,202
1940	632,118	138,023	4,145	774,286

출처 : 朝鮮總督府(1911~1941), 『朝鮮總督府統計年報』

이러한 당시의 사회적 상황은 인구 증가와 더불어 토지 시장에 영향을 미쳐 지가 상승으로 인한 토지의 압축적이고 집약적인 사용을 야기했다.¹⁸⁷⁾ 이로 인해 나타난 결과가 필지분할이다. 하나의 대규모 필지로 구성되어 있던 것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여러 개의 필지로 쪼개 여러 세대, 여러 사람을 수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1910년대 시구개수사업을 실시하기 위해 관유지 경매를 실시하여 동북부 지역의 약 60만 평의 토지가 농경지에서 주거 용도로 변화하였음을 앞선 4장 2절의 3소절(일제강점기 1910년대 시구개수사업)에서 살펴보았다. 1920년대 또한 총독부에 의해 토지 불하가 이어졌다. 시가지 확장으로 인하여 경성 안에 남아있는 임야를 주택지로 개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였다. 총 2만평이 넘는 토지를 불하하는데, 그 중 혜화동 660평과 숭1동 4,260평이 포함되어 있다.¹⁸⁸⁾ 이는 토지의 용도가 변경되었음

186) 김중근(2003), 「서울 中心部の 日本人 市街地 擴散 : 開港期에서 日帝強占 前半期까지(1885~1929년)」, 『서울학연구』 20, pp.196-202

187) 구경하·김경민(2014), 「1920년대 근대적 디벨로퍼의 등장과 그 배경」, 『한국경제지리학회』 17(4), p.677

은 물론, 용도의 전환과정에서 개발과 함께 필지 분할이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크다. 현존하는 1917년과 1927년 『京城府管內地籍目錄』을 확인하면 그 변화를 확인할 수 있다.

[표 20] 1917년에서 1927년으로의 필지 수 변화량

단위 : 개, %

	1917	1927	변화량(%)
혜화동	251	291	+15.94
동숭동	205	305	+48.78
숭1동	108	129	+19.44
숭2동	265	401	+51.32
숭3동	156	255	+63.46
숭4동	222	299	+34.68
연건동	337	377	+11.87

출처 : 京城府(1917·1927), 『京城府管內地籍目錄』 정리

1910년대 토지 경매에서 비롯한 토지 개발에서 뿐만 아니라, 동북부 지역은 지속적으로 개발되면서 필지가 분할되었다. 특히, 필지의 증가량이 50%가 넘는 숭2동과 숭3동의 경우 조선시대 초기부터 반촌이 형성되어 있던 기존의 거주지역이다. 기존 주거지의 필지 분할은 이미 마련되어진 주거 기반을 바탕으로 대거 인구 유입이 이루어졌음을 의미한다. 숭4동 또한 조선시대 반촌 및 모민 거주지로 기존의 주거지역에 해당하므로 동일한 의미에서 필지 분할이 진행된 것으로 보인다. 동숭동의 경우에는 경성제대 관사 조성과 낙산 아래 가까이까지 확대 개발되면서 필지 분할이 이루어진 것으로 생각된다. 이 외 행정동의 경우에도 필지 수

188) 「市街地擴張으로 市内林野를 拂下. 住宅地 팔리게 되어. 十二個所의 住宅地」, 『朝鮮日報』, 1929.09.07.

가 증가한 것으로 보아, 주거지의 필지 분할과 동시에 아직까지 개발되지 않은 대규모의 토지에 대한 개발이 시작된 것으로 해석 가능하다.

각 필지의 지목별로 비율을 계산해보면 필지의 증가와 함께 어떤 용도의 토지로 전환 및 생성되었는가를 확인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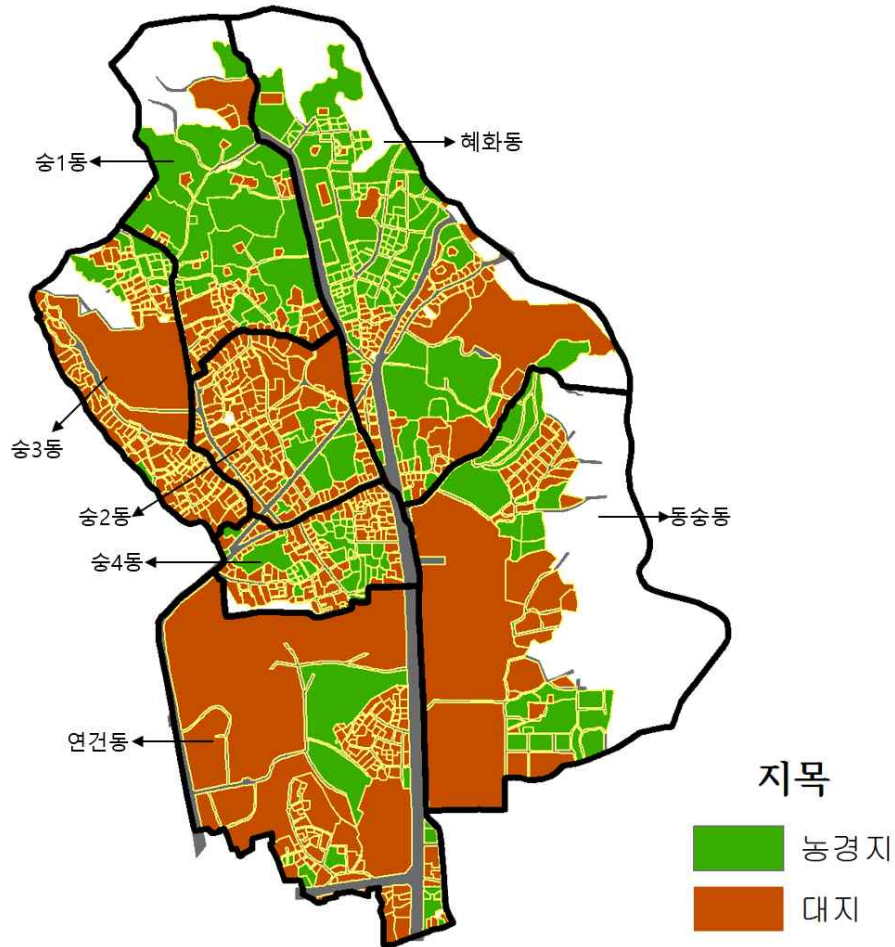
[표 21] 1917년과 1927년 지목별 토지 비율

단위 : %

	1917년			1927년		
	농경지	대지	기타	농경지	대지	기타
혜화동	31.47	68.13	0.40	24.40	75.26	0.34
동숭동	37.56	62.44	-	26.89	73.11	-
숭1동	40.74	58.33	0.93	17.83	82.17	-
숭2동	32.45	66.79	0.75	5.99	93.27	0.75
숭3동	49.36	50.00	0.64	5.10	94.51	0.39
숭4동	40.54	59.00	0.45	16.72	83.28	-
연건동	34.12	65.88	-	14.32	85.68	-

출처 : 京城府(1917・1927), 『京城府管内地籍目錄』 정리

[그림 39] 1927년 지목 현황



출처 : 京城府(1927), 『京城府管內地籍目録』; 「大京城精圖」(1936)
 비교 : 1927년 『京城府管內地籍目録』의 정보를 필지가 표기된 「大京城精圖」(1936)에
 대입시켜 GIS를 통해 시각화하고자 제작함. 1927년과 1936년의 필지가 일치하지 않을
 경우 가장 큰 면적을 기준으로 정보를 삽입함. 이하의 본문에서 위와 같은 지도를 사용
 한 것은 모두 동일한 방법으로 제작한 것.

[표 21]을 보면, 송2동과 송3동의 농경지 및 대지의 비율이 1917년과 1927년 확연히 변화한 것을 알 수 있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기존의 주거지로 이주민이 유입되어 함께 존재했던 농경지가 대부분 대지로 전환되어 1927년 농경지 비율이 5%대로, 대지의 비율이 90%이상으로 감소

및 확대되었다. 그 외의 다른 행정동 역시 농경지의 비율이 줄어드는 대신 대지의 비율이 상승하는 결과를 보이고 있다. 즉, 지금까지 살펴본 동북부 지역의 대규모 입지시설들로 하여금 토지가 개발되고 동북부 지역에 대한 관심도가 상승하여 거주민의 유입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특히, [그림 39]의 송2동과 송3동, 송4동, 그리고 연건동의 일부 지역은 작은 필지로 이루어진 대지의 총 면적이 농경지의 것보다 넓어보인다. 이는 조선시대부터 성균관 반인이 살던 반촌, 경모궁 모민들이 살던 거주지로 기존의 주거지역을 형성해 지속되어왔기 때문이다. 한 편, 위의 표에서 기타 항목은 절 또는 도로 용도의 필지로, 1917년에 비해 1927년 기타 항목의 비율이 감소한 것 또한 대지의 용도로 전환된 것이다.

1930년대에도 개발에 대한 요구와 사업 진행은 계속되었다. 동숭동 경성제대와 낙산 사이의 산림 부지는 학생들의 주거용 및 학생활동을 위한 용도와 인근 지역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을 위한 주거용도로 지속적인 토지 불하 청원이 이어졌다. 특히, 동숭동에 일반 민을 위한 운동장과 도서관 건설을 위한 청원서는 동북부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수준을 엿볼 수 있는 부분이다. 본인을 위한 신체적 및 지적 투자가 가능할 정도의 시간적 여유와 경제적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었음을 짐작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성곽과 맞닿은 송1동과 혜화동 소재의 산림 부지 또한 개발 요구가 있었다. 박희병 외 31명은 혜화동에 30채 내외의 모범촌(模範村)을 건설해 동북부 경제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공동주택지를 건설하고자 진정서를 제출하였다.¹⁸⁹⁾ 이들이 ‘모범촌’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이유는 당시 혜화동으로의 이주에 관심을 갖는 사람들, 또는 현재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의 수준이 다른 이들에게 모범을 보일 수 있는 수준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에 적합한 동네를 만들어보고자 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189) 『京城府内外國有林野願件處理ノ件-京畿道京城府惠化洞-朴晦秉外31名』 (CJA0010912, 1930년)

[표 22] 1930년 동북부 지역 국유 임야 불하 청원 목록

행정동	번지	면적 (평)	용도	청원자 국적
동승동	산2번지	1,481	학교 근처의 주택지	일본
동승동	산2번지	160	상인 거주 가옥	조선
동승동	산2번지	2,162	학생 기숙사	조선
동승동	산2번지	4,925	기숙사 · 집회당 · 강의당 · 자유연구 실 · 운동장을 포함한 학생관	조선
동승동	산2번지	1,910	大東문화협회 회관 · 미술품 공장 · 미 술학원	조선
동승동	산2번지	6,000	일반민 운동장 · 도서관 · 주택	일본
혜화동	산4-1번지	6,400	인도(人道) 및 교당(教堂)	조선
숭1동	산1-1번지			
혜화동	산4-4번지	3,050	공동주택지	조선

출처 : 『京城府内外國有林野願件處理ノ件-京畿道京城府東崇洞-德光美福』(CJA0010912, 1930년); 『京城府内外國有林野願件處理ノ件-京畿道京城府東崇洞-李覺鍾』(CJA0010912, 1930년); 『京城府内外國有林野願件處理ノ件-京畿道京城府東崇洞-金暻秀外2名』(CJA0010912, 1930년); 『京城府内外國有林野願件處理ノ件-京畿道京城府東崇洞-金在容』(CJA0010912, 1930년); 『京城府内外國有林野願件處理ノ件-京畿道京城府惠化洞-崇一洞-李泰浩』(CJA0010912, 1930년); 『京城府内外國有林野願件處理ノ件-京畿道京城府東崇洞-吳晴』(CJA0010912, 1930년); 『京城府内外國有林野願件處理ノ件-京畿道京城府惠化洞-朴晦秉外31名』(CJA0010912, 1930년); 『京城府内外國有林野願件處理ノ件-京畿道京城府東崇洞-有馬純吉外1名』(CJA0010912, 1930년)

“...주택지로 시내에서 사람이 나가기 시작하기는 5-6 혹은 6-7
년 전부터라고 볼 수 있는데 그것은 성북동과 인접한 동소문 안
숭2동, 숭4동 방면에 집이 많이 들어선 다음의 일이다. 즉, 성북동
의 발전은 동소문 안 발전 반영이라 볼 수 있다. 옛날 같으면 숭2
동, 숭4동 부근은 일종의 특수부락으로 취급하여 사람이 그리 살지
않았으나 중앙지의 주택이 조밀해지고 또 학교로 대학이며 의학전
문, 고등공업, 보성고보, 불교전문, 동성상업, 고등상업 등 여러 학
교가 들어서서 완전 학교촌을 이루게 되자 인가도 자연 더 늘어나

게 되었다. 이같이 동소문 안이 발전을 보면서 성벽 하나를 넘어 성북동으로 나가는 사람도 자연 많게 되었다.” 190)

위의 기사는 주거지로 개발되어간 동북부 지역의 상황을 말해주는 기사이다. 특히, 기사에서 말하는 송2동과 송4동 부근이 원래 특수부락이었다는 것은 조선시대 반촌과 경모궁 모민들의 거주지를 말하는 것으로 보인다. 옛날에는 이곳만 특별하게 허용된 주거지로 그 외의 지역은 인가가 들어서지 않았으나, 현재는 인가가 넘쳐서 도성 밖인 성북동으로까지 확대되어가고 있다.

“요즘 성북동과 혜화동엔 짓느니 집이다. 작년 가을만 해도 보성고보(普成高普)에서 버스 종점까지 혜화보통학교 외에는 별로 집이 없었다. 배추 밭이 시퍼런 것을 보고 다녔는데 올 가을엔 양관(洋館), 조선집들이 제멋대로 섞여 거의 공지(空地)없는 거리를 이루었다. ... 그래서 요즘은 조금만 집을 나서도 안 보려해도 안 볼 수 없고 새로 짓는 집들이 작고 눈에 띄는 것이다. ... 조선 기와집엔 결코 어울리지 않는 시뻘건 벽돌담을 쌓고 추녀 끝 올려쌓는다. ... 재목(材木)에 땀 흐르는 얼굴처럼 번질번질하고 끈적끈적해 보이는 기름칠들을 한다. ... 유리창도 편리하기는 하지만 큰 돈을 들여 지을 바에는 조선건물로서의 면목을 죽여가면서까지 유리창에 열광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 191)

위의 인용문은 새로 짓는 집들이 기존과는 다른 양식을 갖추고 있음을 알 수 있는 글이다. 혜화동 인근이 주거지로 변해가고, 그 주택은 이전의 조선 가옥과는 다른, 서양식의 건물과 재료를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동북부 지역의 주거지 개발 양상을 함의하고 있고, 건축

190) 「水石조흔 住宅地로 「인테리」 村된 城北洞. 성북동의 발전은 동소문 안 발전의 연장. 날개도친 東小門 밧 地價」, 『朝鮮日報』, 1933.10.11.

191) 李泰俊, 「집이야기」, 『三千里』 제7권 제8호, 1935.09.01.

에 사용되는 재료를 통해 새로 들어오는 이들이 어느 정도 재력을 갖추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1920년대 조선에는 서양식의 주거양식과 혼합된 새로운 형태의 주택이 생겨나기 시작했다. 새로움을 상징하는 용어인 ‘문화’를 넣은 ‘문화주택’이 그것이다.¹⁹²⁾ 위생적이지 못한 주거환경에 대한 문제를 인식하고 생활개선을 위한 주택개량운동이 활발하던 1920년대 경성에서 문화주택 단지가 형성되기 시작한다.¹⁹³⁾ 1925년 신당리(新堂里) 경성문화촌(京城文化村)과 청엽정1정목(靑葉町一丁目) 미도리가오카(緑ヶ丘)를 시작으로 조선의 중류계층인 재조일본인과 조선인을 대상으로 한 주택단지가 조성되었다.¹⁹⁴⁾ 문화주택은 크게는 100-120평, 작게는 40-80평의 크기로, 평당 평균적으로 20-30원이었기 때문에 1928년 목수의 평균 임금 2-3원인 것을 감안하면 일반인들이 거주할 수 있는 가격의 주택은 아니었다.¹⁹⁵⁾

동북부 지역 또한 문화주택지가 조성되었다. 1927년 1만 6천평의 혜화동 앵도원(櫻桃園)의 향후 개발 계획에 대하여 학교기지로 할 것인지 유원지로 할 것인지 여러 의견이 제기되었었다.¹⁹⁶⁾ 이에 대하여 다카무라 진이치(高村甚一)가 매수해 혜화동 4번지(3,034평)와 5번지(24평) 본인 소유의 토지와 함께 1928년 약 2만 평의 문화주택지를 건설하였다.¹⁹⁷⁾ 동북부 지역 내에 혜화동 외에도 1927년에는 숭1동의 1,400평, 1930년에는 동숭동 1,300평과 숭4동 1,500평의 문화주택지가 개발되었다.¹⁹⁸⁾ 문화주택지는 다음의 『朝鮮と建築』에서 명시하고 있는 이상적인 조건에 따라 위치가 결정된다. “① 상업의 번잡과 공업지의 불위생 등의 영향을 받지 않는 곳, ② 남향의 토지로 서북에는 산을 등지고 수목이 많아 조

192) 이경아(2006), 『日帝強占期 文化住宅 概念의 受容과 展開』,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p.2

193) 이경아(2006), p.37

194) 이경아(2006), pp.147 · 159

195) 이경아(2006), pp.161-162; 朝鮮總督府(1928), 『朝鮮總督府統計年報』, p.23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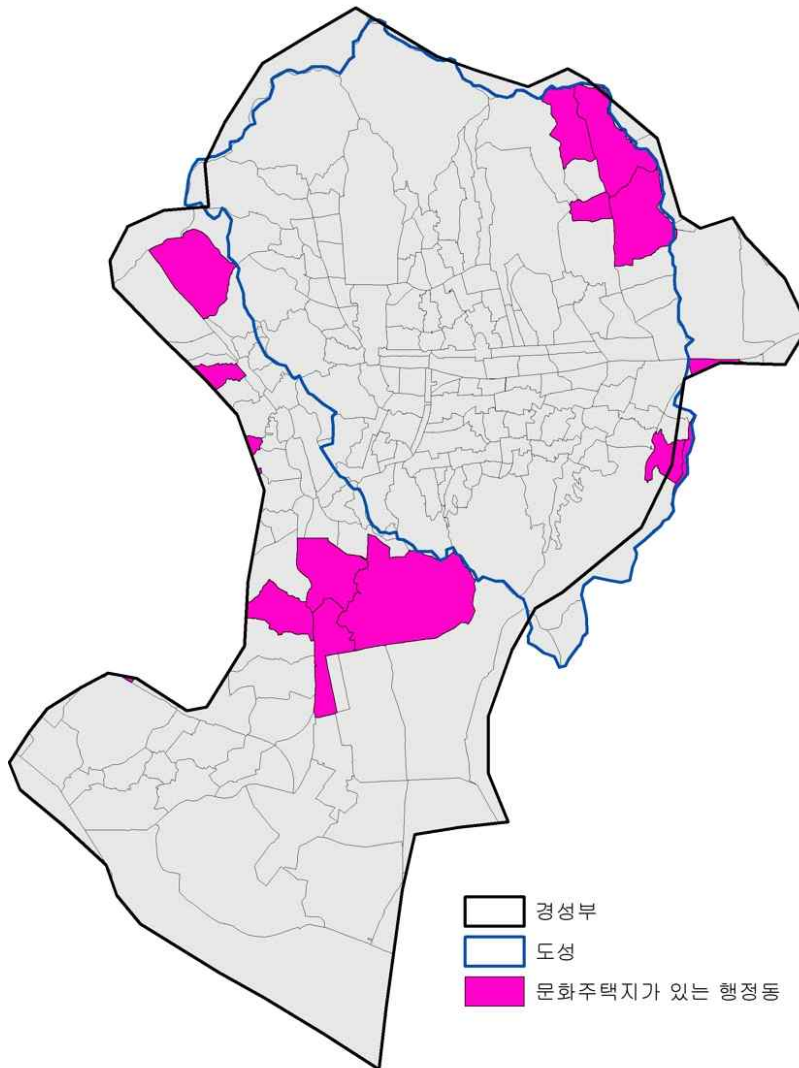
196) 「東小門櫻桃園 住宅地로 開放」, 『朝鮮日報』, 1927.05.24.

197) 京城府(1927), 『京城府管内地籍目錄』, p.64

198) 砂本文彦(2007), 「京城(現ソウル)の郊外住宅地形成の諸相」, 『日本建築学会計画系論文集』 613, p.204

망이 좋은 토지, ③ 시내에서 가깝고 편리한 토지” 199)가 그것이다. 이러한 조건에 따라 조성된 문화주택 단지는 대부분 교외지역으로 즉, 도성 밖에 위치해 있었다.

[그림 40] 문화주택지가 있는 경성부 내 행정동



출처 : 이경아(2006), pp.156-157

199) 朝鮮建築會(1925), 『朝鮮と建築』4輯 5號, p.20

비고 : 문화주택지 위치를 바탕으로 필자가 GIS 작업을 통해 제작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성 안이었던 동북부 지역에 문화주택지가 형성되었던 이유는 지역 내 입지한 시설과 토지 이용 때문이었다. 성균관과 경모궁 주변을 제외하면 대부분 농경지였고, 도성 안 저개발 지역으로 남아있던 유일한 곳에 저렴한 지가로 대규모의 시설들을 설립할 수 있었다. 총독부에서 운영하는 병원과 학교, 시험소는 주로 일본인 직원이고 이들의 직업은 의사와 교사 혹은 교수, 관료 등에 해당한다. 당시 이러한 직업은 ‘중산계급·중층계급’으로 분류되어졌다.²⁰⁰⁾ 이들은 문화주택 수요층이 되었다. 주민 구성에 관한 내용은 다음 소절에서 후술한다. 문화주택지의 이상적 조건에 충족하면서 직장과 가까운 곳에 조성되는 주택단지는 이들에게 매력적인 주거지로 인식되기 충분했다. 더욱이 대단지의 주택지를 형성할 수 있을 만큼 넓은 농경지가 남아있었고, 분할되지 않은 대규모 필지가 잔존해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동북부 지역은 도성 안 임에도 불구하고 교외지역과 마찬가지로의 조건으로 문화주택지가 건설될 수 있었다. 특히 혜화동은 도심에 비해 땅값이 저렴하고, 조망과 공기가 좋으며 조용하기 때문에 주택지로 인기였다.²⁰¹⁾

2) 주민구성

1920년대까지 동북부 지역은 꾸준히 국가에 의한 개발이 진행되었다. 국가에서 운영하는 대규모의 시설들이 들어서고, 시구개수 사업으로 도로가 정비되면서 앞선 1소절(주거지 개발)에서 본 바와 같이 민간에 의한 주거지 확대 및 개발까지 이루어졌다. 이러한 동북부 지역의 변화는 주변 환경 요인에 의해 이곳으로 이주해오는 사람들과 이곳을 떠나는

200) 별피, 「勞資戰의 埒外에 立한 中産階級의 將來」, 『開闢』 66호, 1926.02.01.

201) 趙白菡, 「돈 덜 드고 새롭고 便利한 집을 지은 이약이」, 『別乾坤』 제16·17호, 1928.12.01.

사람들이 발생하도록 야기했다. 이것을 통해 동북부 지역 거주민의 구성을 확인할 수 있고, 이는 곧 동북부 지역이 어떠한 지역적 특성을 함축하고 있는가를 파악하는 근거가 된다.

지역 거주민의 구성을 확인하기 위해 먼저 1917년과 1927년 『京城府管內地籍目錄』을 활용하였다.

[표 23] 1917년과 1927년 국적별 토지 소유자 비율

단위 : %

	1917				1927			
	조선인	일본인	국유	기타	조선인	일본인	국유	기타
혜화동	69.32	2.79	18.73	9.16	54.98	17.53	17.87	9.28
동숭동	74.63	11.22	10.73	3.41	11.15	21.64	66.89	0.33
숭1동	84.26	10.19	5.56	-	72.09	25.58	2.33	-
숭2동	69.81	16.60	13.58	-	61.60	18.95	17.96	0.25
숭3동	88.46	9.62	1.92	-	74.51	22.75	2.75	-
숭4동	86.94	8.11	4.95	-	64.55	31.10	4.68	-
연건동	62.61	15.73	20.47	1.19	41.38	24.93	32.63	0.8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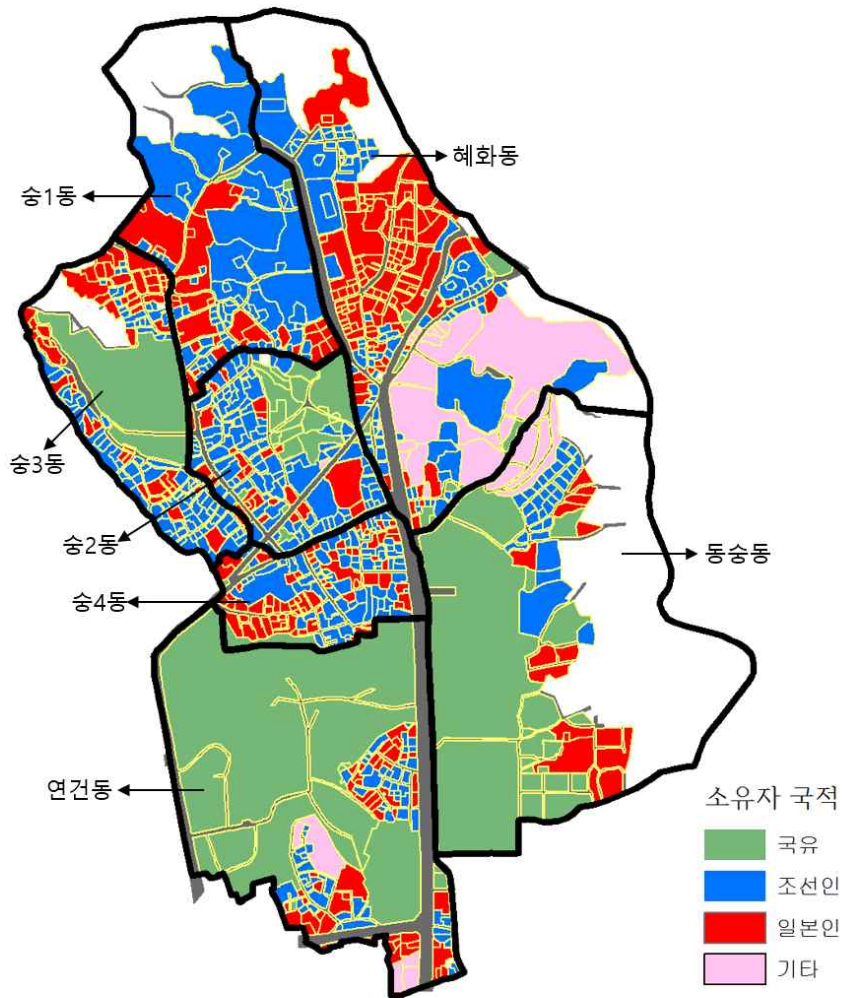
출처 : 京城府(1917·1927), 『京城府管內地籍目錄』 정리

위의 표는 동북부 지역의 토지 소유자를 국적별로 분류하여 계산한 비율을 나타낸 값이다. 국유지가 10% 미만인 지역 숭1동과 숭3동, 숭4동은 모두 조선인의 토지 소유율이 80%가 넘는다. 국유지의 비율이 10% 이상인 혜화동과 동숭동, 연건동은 앞의 행정동에 비해 조선인 토지 소유율은 60-70%이지만, 이 값 역시 일본인 토지 소유율 보다 월등히 높은 값이다. 특히, 혜화동과 숭3동, 숭4동은 일본인 토지 소유율이 10% 미만이다. 1917년 동북부 지역의 국적별 토지 소유자 비율은 조선인이

그 값을 주도했다. 반면, 1927년의 값은 변화가 있다. 동북부 지역 모든 행정동에서 조선인 토지 소유율이 감소했다. 그리고 감소한 값은 일본인 토지 소유율에서 채워졌다. 특히, 동승동에서 국유지를 제외한 나머지 토지에 대한 토지 소유율을 보면 일본인의 토지 소유율이 조선인의 그것보다 두 배의 값을 기록한다. 이 외에도 송4동과 연건동의 경우에는 조선인 토지 소유율의 절반 값이 일본인의 토지 소유율이다. 이와 같은 수치는 동북부 지역의 토지에 대한 일본인의 관심이 증가했음을 의미한다. 그리고 그것은 지금까지 살펴 본 동북부 지역의 개발에 따른 변화에 의한 것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토지 소유자를 국적별로 구분하여 지도상에 나타내면 아래와 같다.

[그림 41] 1927년 국적별 토지 소유자 현황



출처 : 京城府(1927) 『京城府管内地籍目録』; 「大京城精圖」(1936)

1927년 지적목록을 바탕으로 1936년 필지가 기록된 지도에 표기하면 위와 같이 소유자의 국적별로 나타낼 수 있다. 앞서 [표 23]에서는 토지 소유자 비율 상으로는 일본인이 조선인보다 낮았으나, [그림 41]을 보면 면적 상으로는 큰 차이가 없다. 다시 말해, 1927년 그들이 소유한 큰 필

지의 토지를 추후에 분할하여 개발할 가능성을 가지고 있고, 일본인은 동북부 지역에 대해 꾸준한 관심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곳에 들어올 사람은 일본인이 될 가능성이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그러나 지적목록의 정보로 지역 주민을 파악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지적목록을 통해 토지 소유자의 현황을 알 수는 있지만, 이는 토지의 실제 이용자와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소유자와 소유자의 주소가 적혀있는 지적목록에서 소유자 주소가 빈 칸일 경우 해당 토지는 소유자와 실제 이용자가 일치하는 것이고, 소유자 주소에 다른 주소가 적혀있을 경우 해당 토지의 소유자와 실제 이용자가 일치하지 않는 것이다. 즉, 토지 소유자와 실제 이용자가 다르다면 이것은 임대 형태로 이용된 것이다.

[표 24] 사유지 중 임대되는 토지 비율

단위 : %

	1917	1927
혜화동	17.64	38.49
동숭동	28.96	80.19
숭1동	32.37	53.17
숭2동	7.86	55.01
숭3동	36.60	51.61
숭4동	22.75	61.40
연건동	16.79	51.97

출처 : 京城府(1917·1927), 『京城府管内地籍目錄』 정리

각 행정동별 사유지 중 임대되는 토지의 비율을 보면 모든 행정동에서 1917년보다 1927년의 비율이 상승했음을 알 수 있다. 토지 임대 비율이 10년 사이에 숭2동은 약 8배, 동숭동은 약 3배 증가하였고, 나머지

행정동에서도 2배 이상 또는 이하의 증가량을 보인다. 이는 지적목록 상의 토지 소유자를 실제 거주자로 이해할 경우 지역 거주민의 특성을 파악할 때 오류를 범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자료의 한계로 인해 실제 동북부 지역 거주민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당대의 발행물을 활용하였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문화주택지 개발을 통해 지역 내 중간계층의 유입이 이루어졌다. 동북부 지역의 동숭동과 송4동의 경우, 문화주택 단지에 경성제대 교수들과 관료, 교사들이 거주했다.²⁰²⁾ 그러나 동북부 지역의 경우에는 다른 지역의 문화주택지와 달리, 이전부터 중간계층의 거주가 있어왔고 문화주택이 개발됨에 따라 중간계층의 유입이 가시화된 것으로 해석 가능하다. 중간계층을 당시의 표현으로 정의하면 “상공업자(商工業者) 또는 고등직업자(高等職業者)로, 자기일신(自己一身) 또는 그 자손만을 위하여 일하는 자들, 그 지위의 획득을 최대의 지망(志望)으로 알고 유일한 목적으로 아는 자들”이다.²⁰³⁾ 동북부 지역은 학교촌이라 불릴 만큼 상대적으로 좋은 교육시설들이 갖추어져 있는 지역이었다. 1900년대 동북부 지역에 거주했던 성균관 반인들의 후손이 송교의숙을 설립한 것에서 볼 수 있듯이, 이들이 여전히 지역커뮤니티에 안착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그들의 가업(家業)인 상업활동을 지속하였다면, 중간계층으로 편입되었을 가능성이 존재한다. 한 편, 청계천 이남의 본정(本町) 일대에 몰려 살던 일본인들은 1925년 종로 도로개수 이후로 북쪽으로 몰려들었다.²⁰⁴⁾ 그 중 송2동에 정착한 일본인들은 북부발전회를 조직하여 자신들의 생활 방식대로 지역을 바꿔나가고자 했다.²⁰⁵⁾ 이는 일본인이 경성부민 중 한 사람으로 자신이 앞으로 살아가야 할 삶의 터전을 가꾸면서 지역 내 함께 살아가는 조선인과의 마찰 또는 공존을 이루며 거주해나갔음을 함의한다. 이러한 지역의 상황들은 동북부 지역이 꾸준히 중간계층 이상의 사람들이 살

202) 「學校街のほより 惠化・崇四・崇一各洞の電車が通れば満點」, 『京城日報』, 1930.11.18.; 이경아(2006), p.161

203) 별피, 「勞資戰의 埒外에 立한 中産階級の 將來」, 『開闢』 66호, 1926.02.01.

204) 「鐘路道路改修와 日本人의 北進」, 『朝鮮日報』, 1925.06.18.

205) 「휴지통」, 『東亞日報』, 1928.11.20.

아온 곳이고, 1920년대 이후 그것이 더욱 심화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동북부 지역의 인구 수는 토지 소유율에서의 조선인과 일본인 차이와 다르게 조선인이 압도적으로 그 수가 많다.²⁰⁶⁾ 이는 일본인이 소유한 집에 세들어 살던 조선인이 다수를 이루고 있음이다.²⁰⁷⁾ 이곳에 거주하는 이들은 대부분 회사원이거나 그 외 여러 곳에서 월급쟁이로 다니는 사람들이다.²⁰⁸⁾ 당시에는 부유층과 중간계층에서 가장 선호하는 직업으로 월급쟁이를 꼽을 정도로 인기 있는 직업이었다.²⁰⁹⁾ 1924년에 발행된 소설 『운수 좋은 날』에서 주인공 김 첨지는 동소문 안으로 들어와 인력거꾼으로 일하는데 그의 손님은 마마님과 교원인 듯한 양복장이었다.²¹⁰⁾ 재력있는 집안의 여인과 선생이 혜화문 안 동북부 지역에 거주하고 있음을 유추할 수 있다. 어느 한 은행의 대금계에서 근무하는 이도 있고, 1936년 베를린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획득한 손기정(孫基禎) 마라톤 선수도 전세로 살고 있는 연건동 주민이었다.²¹¹⁾ 뿐만 아니라, 만주국(滿洲國) 총영사(總領事)인 있는 박석윤(朴錫胤)은 혜화동 주민, 정치인 겸 언론인이었던 최린(崔麟)은 명륜정1정목(송1동) 45번지 주민, 소설가 이광수(李光洙)도 송3동 주민이었다.²¹²⁾ 또한 언론인 이성환(李晟煥)은 1928년에 혜화동에 집을 짓고 살다가 1930-40년대에 명륜정1정목(송1동) 33-17번지로 이사해 동북부 지역을 떠나지 않고 살았다.²¹³⁾ 건양사(建陽社)를 운

206) 부록 1 참조

207) 「쫓겨가는 사람들! 런던동 경성대학 건축디라고 일인 디주가 모조리 헐어버려」, 『東亞日報』, 1925.03.25.

208) 「大京城의 特殊村」, 『別乾坤』 제23호, 1929.09.27.

209) 靜觀生, 「朝鮮學生의 社會思想的 聯合運動과 日本學生의 社會科學的 聯合運動」, 『開關』 제54호, 1924.12.01.

210) 憑虛, 「운수 조흔 날」, 『開關』 제48호, 1924.06.01.

211) 「五隊 記者出動(時日 10월 25일), 子正後의 大京城 探訪」, 『別乾坤』 제57호, 1932.11.01.; 姜福信, 「結婚式場」 行進記, 『三千里』 제12권 제4호, 1940.04.01.

212) 金昭姐, 「스위트 호-口 李光洙氏 家庭訪問記」, 『別乾坤』 제34호, 1930.11.01.; 崔雪鄉, 「夫君 朴錫胤氏 생각, 香港까지 愛兒를 다리고 갔다가」, 『三千里』 제12권 제3호, 1940.03.01.; 「令夫人層 藝術 愛玩記」, 『三千里』 제12권 제4호, 1940.04.01.

213) 趙白菽, 「돈 덜 드고 새롭고 便利한 집을 지은 이약이」, 『別乾坤』 제16·17호, 1928.12.01.; 「令夫人層 藝術 愛玩記」, 『三千里』 제12권 제4호, 1940.04.01.

영하는 자본가 정세권(鄭世權) 역시 1940년대 명륜정1정목 16번지에 거주했다.²¹⁴⁾

동북부 지역민의 직업적 특징을 파악하기 위해 일제강점기 임금을 살펴해보았다. 당대 발행된 통계자료는 직업의 분류가 세분화되어 있지 않아 『職員錄』과 시대상을 파악할 수 있는 신문과 잡지 기사를 활용했다. 지역에 거주하는 것으로 알려진 직업과 이들과의 비교를 위한 다른 직업의 임금은 아래와 같다.

[표 25] 1920-30년대 직업별 월급여

직업	월 평균 급여(원)	비고
조선총독	666	1930년
조선은행 총재	500	1930년
경성제대 교수	541-583	1930년
총독부의원 약제관	100-375	1930년
공립보통학교 교사	91-316	1930년
경성제대 사무관	91-316	1930년
동아일보 기자	65	1920년
조선일보 기자	60	1920년
외보(外報) 번역가	20	1914년 1927년 80원의 가치와 동일
소설가	40	1920년
점원	24	1931년

출처 : 朝鮮總督府(1930), 『(朝鮮總督府及所屬官署)職員錄』; 李相協·閔泰瑗·玄鎮健·韓基岳, 「첫 收入받는 때 이야기」, 『別乾坤』 제4호, 1927.02.01.; 金乙漢(作)·李承萬(畫), 「女人群像」, 『三千里』 제3권 제10호, 1931.10.01.
비고 : 노란색 표시의 직업은 동북부 지역민이 해당하는 직업군

214) 정세권 유가족 인터뷰(2016.11.18.)

1933년 당시 월 60원의 임금을 받는 사람이면 상당한 월급쟁이로 통했다.²¹⁵⁾ 이와 비교하여 목수(木手)와 석수(石手), 도지공(塗紙工), 우마차인부(牛馬車人夫) 등과 같은 노동자들의 평균 월 임금은 조선인이 11원, 일본인이 22원이었다.²¹⁶⁾ 더욱이 위와 같은 직업을 가지고 있는 이들은 조선 사회에서 소수에 불과 했다. 1929년 현주호구(現住戶口)를 직업별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조선인의 경우 농업·임업·축산업에 82%, 그 다음으로 상업 및 교통업에 6%가 종사하고 있는 한 편, 일본인의 경우 공무 및 자유업에 34%, 그 다음으로 상업 및 교통업에 31%가 종사하고 있었다.²¹⁷⁾ 같은 해 기준으로 일본인 수가 조선인 수의 2.6% 비율로 한반도에 거주하고 있던 것을 감안하면 조선인과 일본인 모두 위의 직업군에 해당하는 사람 수는 전체 인구 중 극히 일부였음을 짐작할 수 있다. 즉, 높은 임금을 받는 직업은 소수 집단에 해당하는데 이들이 동북부 지역민의 직업군이었다고 해석 가능하다. 이와 같이 동북부 지역의 거주민은 일본인과 조선인을 막론하고 소수의 중간 계층 이상의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어 신흥부층이라 불리기 충분했다.

도심지에 비해 지가가 저렴하고, 공기 좋고, 조망 좋은, 살기 좋은 주거지역으로 동북부 지역은 사람들에게 인식되어졌다. 주거지로서 그 역할을 수행했음은 학교가 많아 젊은 층의 유동인구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다방 하나 없이 유흥가(遊興街)를 이루지 않았다는 것에서 알 수 있다.²¹⁸⁾ 대신 지역에 입지한 병원과 학교, 종교시설과 관계있는 출판사 및 그림 학원, 서점이 입점했다.²¹⁹⁾ 또한 1933년에는 연건동에 조선일보의 사옥이 들어서기도 했다.²²⁰⁾

215) 諸葛範, 「都市의 生魔, 現世吸血鬼」, 『別乾坤』 제63호, 1933.05.01.

216) 「勞働者の 收支」, 『東光』 제27호, 1931.11.10.

217) 「朝鮮內人口와 職業別. 農林畜業이 一位」, 『朝鮮日報』, 1929.09.06.

218) 李軒求, 「「보해미앙」의 哀秋의 港口, 一茶房 보해미앙의 手記」, 『三千里』 제10권 제5호, 1938.05.01.

219) 及愚生, 「書畫界로 觀한 京城」, 『開闢』 제48호, 1924.06.01.; 「新刊紹介」, 『開闢』 제66호, 1926.02.01.; 「감프詩人集 ; 京城崇一洞 集團社發行」, 『東亞日報』, 1934.04.21.; 「美貌의 書店 매담, 文士 盧春城 부인 李俊淑씨」, 『三千里』 제9권 제4호, 1937.05.01.

[그림 42] 연건동 조선일보 사옥



출처 : 「本社歷代社屋」, 『朝鮮日報』, 1935.03.05.

이로써 동북부 지역은 학교와 언론사, 도서관, 청년회관이 있는 문화의 중심, 문화촌이라 지칭되기 충분했다.²²¹⁾ 그들의 생활상 측면에서도 화려하고 부유한 삶의 모습은 아니더라도 중간계층의 거주민으로서 화목한 가정과 정결한 살림살이를 이루고 있는 문화촌을 형성하고 있다.²²²⁾ 즉, 동북부 지역은 문화촌이라 일컬어질 정도의 신흥부촌으로 성장하게 되었다.

220) 車相瓚, 「朝鮮新聞 發達史」, 『開闢』 제4호, 1935.03.01.

221) 小春, 「네로 보고 지금으로 본 서울 中心勢力의 流動」, 『開闢』 제48호, 1924.06.01.

222) 「大京城의 特殊村」, 『別乾坤』 제23호, 1929.09.27.

V. 결론

1. 연구의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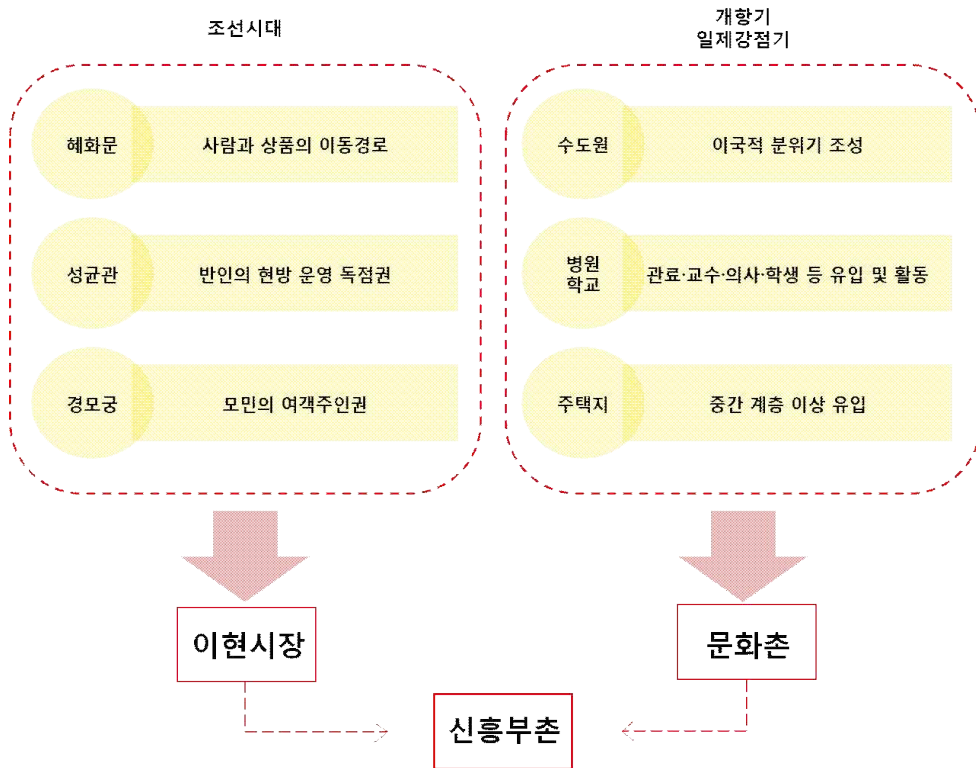
본 연구는 한양도성 안 동북부 지역이 조선시대부터 일제강점기까지 각 시대별로 신흥부촌으로 성장해나가는 과정을 다양한 측면에서 융복합적으로 서술하였다. 지역의 특성을 파악하기 앞서, 해당 지역에 입지한 시설에 대한 연구를 시작하였고, 지역의 시설과 지역민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지역의 특성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조선시대의 경우, 동북부 지역에는 혜화문과 성균관이 조선 초부터 자리해 있었고, 중후기에 경모궁이 조성되었음을 확인했다. 개항기 및 일제강점기의 경우, 수도원과 총독부 의원, 관립학교 및 제국대학이 들어섬을 확인했다. 이러한 시설과 지역민은 어떠한 관계를 형성해나가고, 이와 관련하여 어떻게 지역에 영향을 미쳐 지역의 변화를 야기해 나가는지에 대하여 연구하였다.

조선시대 초부터 동북부 지역에 있던 혜화문은 북문을 대신하는 성문으로, 한양 밖 동북 지역으로 오고가는 사람과 물자 이동 통로였다. 사람과 물건의 이동 경로임에도 불구하고 궁궐이 내려다보일 수 있는 높이의 지형적 요인으로 인하여 인가가 들어서지 못하였다. 그러나 조선 초기부터 존재하던 성균관에서 일 하는 반인들의 거주지인 반촌과 정조 즉위 후 조성된 경모궁에서 일 하는 경모궁 모민들의 거주지는 열외로 마을을 형성할 수 있도록 국가에서 허락하였다. 더욱이 이들에게는 국가로부터 부여받은 상업적 특권이 있었다. 반인은 소를 도살할 수 있는 독점권으로 시전에서 현방을 운영해 부를 축적할 수 있었고, 모민은 상품의 유통과정에서 중개인 역할을 하는 여객주인권으로 상인 중 최고의 지위

를 갖게 됨으로써 부를 축적할 수 있었다. 신분의 제약이 있었을 뿐, 반인과 모민은 상업도시화 되어가는 조선 후기 사회에서 경제적으로 힘 있는 신흥 세력이었다. 동북부 지역에 유일하게 존재했던 마을과 거주민, 이들은 해화문으로 향하는 길목에 자리함으로써 한양 동부의 상업을 촉진시키게 되었고 이것은 곧 18세기 이현시장으로 발전하여 조선시대 3대 시장 중 하나가 되었다.

개항기를 거쳐 일제강점기에 들어서서 기존의 입지 시설과 주거지역을 제외하고 대부분 농경지였던 동북부 지역은 대규모 시설들이 설립되기 시작한다. 독일의 수도원이 들어와 거대한 독일 마을을 형성해 이국적 분위기를 풍기고, 총독부는 병원과 여러 학교들을 설립함으로써 지역 개발을 진행해나갔다. 총독부에서 운영하는 시설들이 포진됨에 따라 중심 시가지와 동북부 지역을 잇는 도로를 정비할 필요가 있었고, 다른 노선들과 달리 계획된 시구개수 노선대로 문제없이 공사를 마쳤다. 동북부 지역의 이와 같은 개발은 사람들이 이주해오는 요인이 되었고, 이것은 주거지 개발로 이어졌다. 필지가 분할되면서 대량의 토지가 농경지에서 주거지로 전환되고 개발과 함께 토지 소유자의 변화가 일어났다. 또한 동북부 지역에는 문화주택지가 조성되었는데, 이것 역시 지역에 자리한 시설들에 의한 영향이다. 인근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관료와 교수 및 의사 등과 같은 중간 계층 이상의 사람들이었고, 회사원 및 은행원, 언론인과 자본가까지 몰려들어 주거지를 형성했다. 입지 시설에 따른 개발과 변화로, 도성 안의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오래 전부터 번잡했던 시가지와는 다른 매력이 당시의 신흥 세력을 끌어들이었다. 결과적으로 동북부 지역은 신흥부촌이라는 정체성을 가진 지역이었다.

[그림 43] 연구 결과 요약



2. 연구의 의의 및 한계

본 연구의 대상지인 도성 안 동북부 지역은 지금까지 미비하게 다루어졌던 공간이다. 본 연구를 통해 밝힌 동부, 특히 동북부의 지역적 정체성은 도성 안 동부·서부·남부·북부·중부 중 마지막 남은 의문의 지역을 풀이한 것에 의의가 있다. 도시 공간의 역사는 현대 도시 공간이 형성되는 과정의 밑바탕이 된다. 최근 들어 이루어지는 도시 공간에 대한 가치를 재평가하고 도시계획을 구상하는 작업에서 본 연구와 같은 도

시사 연구는 지역의 정체성을 담아낼 수 있는 기반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도시는 여러 가지의 것들이 서로 얹혀 공존하는 공간이므로 유기체적인 도시를 해석함에 있어서 다양한 학문적 접근이 요구된다. 시계열적으로 지역의 물리적 변화를 살펴보고 그것들과 지역민과의 상호작용을 통한 지역의 변화상을 그려냄으로써 지역의 정체성을 정립해나간 본 연구는 융복합적인 도시사 연구를 시도하였다. 또한 현대적 연구 방법 중 하나인 지리정보시스템(GIS)를 활용해 과거의 사실을 시각적으로 조망해보고자 시도하였다. 이는 글로 기록된 과거의 역사를 현재의 시점에서 이해하기 쉽도록 시각화하였다는 점, 앞으로 다양한 사람들이 지역의 역사에 대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그 연구방향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도시사 연구 분야의 새로운 도전이라 할 수 있다.

과거의 역사를 연구하는 것은 자료의 한계가 뒤따른다. 본 연구 또한 자료의 제약으로 인해 설명의 한계가 있다. 먼저, 이현시장에 대한 기록이 많지 않아 그 형성과정을 정확히 서술한 부분이 밝혀지지 않아 본 연구를 통해 연구자의 시각에서 제시한 형성과정에 대한 의문이 있을 수 있다. 또한 조선시대에는 현재와 같은 전·출입 인구 이동에 관한 통계자료가 없기 때문에 성균관 반인과 경모궁 모민의 20세기 향방을 정확히 가려낼 수 없었다. 18세기 이현시장 형성 이후 21세기가 시작하기 까지 지역민의 특성을 지속적으로 관찰하지 못하고 시대적 정황상으로 이들이 향방을 유추할 수 밖에 없었음은 연구의 한계로 남는다. 다음으로, 일제강점기 실질적인 데이터가 없었다는 점 역시 본 연구의 아쉬움으로 남는다. 여기서의 실질적인 데이터는 지번이 표기된 지도와 실거주자를 알 수 있는 자료를 말한다. 지번을 확인할 수 있는 지도가 주기별로 존재하지 않아 1936년 지도와 1927년 지적목록의 정보를 대입하는 것으로 자료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했고, 지적목록 상의 토지 소유자의 본적 주소가 다른 경우가 많아 당시 발행된 기사와 잡지를 통해 거주민을 확인하는 것으로 대체했다.

지금까지 도시계획 분야에서 도시사는 미비하게 다뤄졌던 분야였다.

도시를 계획함에 있어서 해당 지역에 대한 역사를 파악하는 것은 현재 지역의 모습을 분석하는데 기초적인 작업이 될 수 있다. 또한 더 나아가 역사적 맥락에서 정립된 지역의 정체성을 흐트리지 않고 미래의 도시계획을 이룰 수 있는 기반이 될 수도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도시사 연구는 도시계획 분야에서도 중요한 연구로 인식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를 통해 그 중요성이 환기될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

■ 참고문헌

1. 사료

1) 고문헌

『東國輿地備攷』
『萬機要覽』 「各處入直」
『無名子集』 「泮中雜詠」
『備邊司臚錄』
『承政院日記』
『日省錄』
『朝鮮王朝實錄』
『周禮』 「冬官考工記」
『太學志』

2) 공문서

『京城帝國大學建築計畫說明』 (CJA0004699, 1926년)
『京城府內外國有林野願件處理ノ件-京畿道京城府東崇洞-德光美福』 (CJA0010912, 1930년)
『京城府內外國有林野願件處理ノ件-京畿道京城府東崇洞-李覺鍾』 (CJA0010912, 1930년)
『京城府內外國有林野願件處理ノ件-京畿道京城府東崇洞-金暻秀外2名』 (CJA0010912, 1930년)
『京城府內外國有林野願件處理ノ件-京畿道京城府東崇洞-金在容』 (CJA0010912, 1930년)
『京城府內外國有林野願件處理ノ件-京畿道京城府惠化洞.崇一洞-李泰浩』

(CJA0010912, 1930년)

『京城府内外國有林野願件處理ノ件-京畿道京城府東崇洞-吳晴』(CJA0010912, 1930년)

『京城府内外國有林野願件處理ノ件-京畿道京城府惠化洞-朴晦秉外31名』(CJA0010912, 1930년)

『京城府内外國有林野願件處理ノ件-京畿道京城府東崇洞-有馬純吉外1名』(CJA0010912, 1930년)

3) 연속간행물

『京城日報』

『大韓每日申報』

『東亞日報』

『每日申報』

『時代日報』

『朝鮮日報』

『中外日報』

『開闢』

『東光』

『別乾坤』

『三千里』

『朝鮮と建築』

『朝鮮總督府官報』

4) 단행본

京城府(1933~1940), 『京城府戶口統計』

京城府(1926), 『第一回國勢調査』

京城帝國大學(1927・1932・1937), 『京城帝國大學一覽』

朝鮮總督府(1913), 『朝鮮總督府救濟機關』

朝鮮總督府(1911~1941), 『朝鮮總督府統計年報』
 朝鮮總督府(1930), 『(朝鮮總督府及所屬官署)職員錄』
 朝鮮總督府醫院(1928), 『朝鮮總督府醫院二十年史』
 서울공고백년사 편집위원회(1999), 『서울工高百年史』, 서울 : 서울공업고등학교 동창회
 서울특별시 시사편찬위원회(2013), 『국역 경성부사』 제2권, 서울 : 서울특별시 시사편찬위원회
 성균관대학교 교사편찬위원회(1998), 『成均館大學校六百年史 : 1398-1998』 天, 서울 :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오세옥·박헌순 옮김(2013), 『景慕宮儀軌』, 서울 : 한국고전번역원
 天主教惠化洞教會(1977), 『柏洞 半世紀 - 惠化洞聖堂50年史 -』, 서울 : 天主教惠化洞教會

5) 지도 및 영상자료

「漢陽圖」(18세기 중반, 서울역사박물관 소장)
 「首善全圖」(1861년, 서울역사박물관 소장)
 「朝鮮城市圖」(1907년, 서울역사박물관 소장)
 「最新京城京城全圖」(1936년, 서울역사박물관 소장)
 「大京城精圖」(1936년, 서울역사박물관 소장)
 Norbert Weber(1927), 『고요한 아침의 나라에서』, 베네딕도미디어

5) 인터넷 사이트

네이버 일본어사전(<http://jpdic.naver.com/>)
 네이버 지식백과(<http://terms.naver.com/>)
 한국고증세사전(<http://terms.naver.com/list.nhn?cid=42957&categoryId=42957>)
 한국고전번역원(<http://www.itkc.or.kr/itkc/Index.jsp>)
 한국민족문화대백과(<http://terms.naver.com/list.nhn?cid=44621&categoryId=44621>)

2. 선행연구

1) 저서

- 고동환(1998a), 『朝鮮後期서울商業發達史研究』, 서울 : 지식산업사
- 공제욱(1993), 『1950년대 한국의 자본가 연구』, 서울 : 백산사당
- 손정목(1977), 『朝鮮時代 都市社會 研究』, 서울 : 一志社
- _____ (1982), 『(韓國開港期)都市變化過程 研究 : 開港場・開市場・租界 居留地』, 서울 : 一志社
- _____ (1986), 『(韓國開港期)都市社會經濟史研究』, 서울 : 一志社
- _____ (1990), 『(日帝強占期)都市計劃 研究』, 서울 : 一志社
- _____ (1996a), 『(日帝強占期)都市社會相研究』, 서울 : 一志社
- _____ (1996b), 『(日帝強占期)都市化 過程 研究』, 서울 : 一志社
- 이승렬(2007), 『제국과 상인 : 서울·개성·인천 지역 자본가들과 한국 부르주아의 기원, 1896~1945』, 서울 : 역사비평사
- 이충우(1980), 『京城帝國大學』, 서울 : 多樂園
- 이태진 외 7인(1998), 『서울상업사연구』, 서울 : 서울학연구소
- 한우근(1970), 『開港期 商業構造의 變遷』, 서울 : 한국문화연구소
- _____ (2001), 『韓國開港期の 商業研究』, 고양 : 한국학술정보
- Eckert, Carter J.(1991), *Offspring of empire : the Koch'ang Kims and the colonial origins of Korean capitalism, 1876-1945*, Seattle : University of Washington Press (주익중 옮김(2008), 『제국의 후예 : 고창 김씨가와 한국 자본주의의 식민지 기원 1876~1945』, 서울 : 푸른역사)
- George Unwin(1904), *Industrial Organization in the 16th and 17th Centuries*, Oxford : At the Clarendon Press
- Hashiya Hiroshi, 김제정 옮김(2005), 『일본 제국주의, 식민지 도시를 건설하다』, 서울 : 모티브북

2) 학위논문

- 강창우(2015), 『일제강점기 민간필지개발에 의한 도시조직 변화과정 연구 : - 서울특별시 종로구 혜화동을 중심으로 -』, 서울시립대학교 일반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대한(2015), 『전차 개설에 의한 한양도성 문루 주변지역의 도시 변화에 관한 연구』, 서울시립대학교 일반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동수(2009), 『조선초기(朝鮮初期) 한성부(漢城府)의 성립과 도시기능의 발전』,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보영(2008), 『18세기 成均館 儒生의 생활과 활동 : 『泮中雜詠』과 『太學志』를 중심으로』, 숙명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영근(1999), 『일제하 일상생활의 변화와 그 성격에 관한 연구 : 경성의 도시 공간을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현욱(2003), 『『조선왕조실록』에 의한 한양의 입지와 도성관리』,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박지영(2013), 『조선후기 泮人의 존재양상과 泮村의 공간 변화』, 부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손후자(1989), 『윌리엄 드라폴(William de la Pole)의 성공 : 14세기 영국 상인의 토지 귀족으로의 성장에 대한 일 고찰』,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염복규(2009), 『日帝下 京城도시계획의 구상과 시행』,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경아(2006), 『日帝强占期 文化住宅 概念의 受容과 展開』,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정송이(2014), 『경모궁 입지와 공간구성 변화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조세호(2016), 『경성부 도시계획에서 나타나는 공원녹지의 계획 양상』, 서울시립대학교 일반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최은정(1996), 『18세기 懸房의 商業活動과 運營 - 牛肉 販賣活動을 중심으로 -』,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최인영(2014), 『서울지역 電車교통의 변화양상과 의미(1899~1968)』, 서울시립대학교 일반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五島 寧(1996), 『日本統治下 「京城」の都市計画に関する歴史的研究』, 東京工業大学 博士(工学)請求論文

3) 학술지 논문

- 고동환(1998b), 「조선후기 漢城府 행정편제의 변화 - 坊·里·洞·契의 변동을 중심으로」, 『서울학연구』 12: 37-81
- _____ (2006), 「조선후기 서울의 공간구성과 공간인식」, 『서울학연구』 26: 1-48
- _____ (2011), 「조선시대 한양의 수도성-도시의 위계와 공간표현을 중심으로」, 『역사학보』 209: 36-61
- _____ (2013), 「조선후기 서울 도시공간의 변동-상업발달과 관련하여」, 『서울학연구』 52: 149-175
- 구경하·김경민(2014), 「1920년대 근대적 디벨로퍼의 등장과 그 배경」, 『한국경제지리학회』 17(4): 675-687
- 구본현(2012), 「漢詩文에 나타난 漢陽城門의 성격과 의미」, 『서울학연구』 47: 37-65
- 김동철(2001), 「18세기 말 景慕宮 募民과 그들의 상업활동」, 『지역과 역사』 8: 5-43
- 김백영(2007), 「상징공간의 변용과 집합기억의 발명 : 서울의 식민지 경험과 민족적 장소성의 재구성」, 『공간과 사회』 28: 188-221
- 김정신(2015), 「선교 베네딕도회 수도원의 배치와 건축양식에 관한 연구 : 백동수도원, 덕원수도원 및 왜관수도원의 비교」, 『한국건축역사학회 학술발표대회논문집』 2015(추계): 51-58
- 김종근(2003), 「서울 中心部の 日本人 市街地 擴散 : 開港期에서 日帝強占 前半期까지(1885~1929년)」, 『서울학연구』 20: 181-234
- _____ (2010), 「식민도시 京城의 이중도시론에 대한 비판적 고찰」, 『서울학연구』 38: 1-68
- 김홍순(2009), 「조선 개국 초 한양 천도(遷都) 논쟁」, 『국토계획』 44(4):

- 노혜경(2014), 「조선후기 사상(私商)의 활동과 유통구조의 변화」, 『역사와실학』 54: 73-107
- 노혜경·노태협(2010), 「경상(京商)과 송상(松商)의 상거래 유통망에 관한 비교연구」, 『경영사학』 25(2): 5-41
- 박세훈(2000), 「1920년대 경성도시계획의 성격 : 경성도시계획연구회」와 ‘도시계획운동」, 『서울학연구』 15: 167-198
- 박은숙(2009), 「개항기(1876~1894) 한성부 5부의 차별적 변화와 자본주의적 도시화」, 『한국사학보』 36: 153-190
- 박일영(2012), 「노르베르트 베버의 한국 선교정책 연구」, 『종교연구』 67: 115-138
- 박정해·한동수(2011), 「서울 문묘입지의 풍수적 특징 분석」, 『동방학』 21: 139-180
- 박준식·김영근(2000), 「한국전쟁과 자본가계급」, 『아시아문화』 16: 373-423
- 선지훈(2007), 「‘선교 베네딕도회’의 한국 진출과 선교 활동 -일제시대 한국과 만주에서의 활동을 중심으로-」, 『敎會史研究』 29: 61-96
- 성백용(2006), 「중세의 부르주아 : ‘새로운 인간’에서 ‘새로운 귀족’으로」, 『프랑스사연구』 14: 5-35
- 신규환(2007), 「대한의원의 설립배경과 성격」, 『延世醫史學』 10(1): 234-245
- 안순태(2013), 「영조조(英祖朝) 동촌파(東村派)의 교유양상(交遊樣相)과 교유시(交遊詩) -오원(吳瑗), 남유용(南有容), 이천보(李天輔), 황경원(黃景源)을 중심으로」, 『韓國漢詩研究』 21: 185-217
- 오세현(2015), 「조선 후기 한양 동부(東部) 관동(館洞)의 인문지리와 연안이씨(延安李氏) 관동파(館洞派)」, 『서울학연구』 61: 31-72
- 오주환(1990), 「근세초 영국의 상인계층과 상업조직」, 『역사교육논집』 13·14(1): 1013-1055
- 윤종일(1986), 「김옥균 - 봉건사회 타파 꾀한 부르조아 개혁운동가」, 『廣場』 152: 196-201
- 이규철(2016), 「대한의원 본관의 건축 과정과 건축 계획적 특성」, 『醫史學』 25(1): 1-39
- 이병천(1983), 「조선후기 상품유통과 여객주인(旅客主人)」, 『經濟史學』 6:

- 이정수·김희호(2007), 「18~19세기 流通資産의 매매를 통해 본 商業構造 변화」, 『朝鮮時代史學報』 43: 213-265
- 이태진(1994), 「조선 시대 서울의 都市 발달 단계」, 『서울학연구』 1: 23-44
- _____(1996), 「‘小氷期’(1500~1750년)의 天體 現象의 원인 -『朝鮮王朝實錄』의 관련 기록 분석-」, 『國史館論叢』 72: 89-126
- 이태희(2013), 「제국 일본의 공업시험연구체제와 1910년대 조선총독부 중앙시험소의 공업화 전략」, 『역사와 문화』 25: 122-164
- 장재천(2010), 「조선시대 성균관의 반촌과 주변 환경 연구」, 『인문사회논총』 17: 105-118
- _____(2011), 「조선후기 성균관 반인의 현방과 본산대놀이」, 『韓國思想과 文化』 58: 153-167
- 장정란(2003), 「독일 베네딕도회의 한국 진출과 교육 활동」, 『인간연구』 5: 116-154
- 장지연(2000), 「개경과 한양의 도성구성 비교」, 『서울학연구』 15: 55-97
- 전상인(1998), 「양반과 부르조아」, 『한국과 국제정치』 14(1): 299-337
- 전우용(2001a), 「한말-일제초의 廣藏株式會社와 廣藏市場」, 『典農史論』 7: 557-584
- _____(2001b), 「종로(鐘路)와 본정(本町) : 식민도시 경성(京城)의 두 얼굴」, 『역사와 현실』 40: 163-193
- 조용욱(2003), 「근대 영국 엘리트의 형성과 특징, 1688-1914년」, 『西洋史論』 78: 111-139
- 주상훈(2012), 「일제강점기 경성의 관립 학교 입지와 대학로 지역의 개발 과정」, 『서울학연구』 46: 131-175
- 차남희·이진(2010), 「경성제국대학과 식민지 시기 “증인층”의 상승 이동」, 『담론 201』 13(4): 5-36
- 최공호(2000), 「官立工業傳習所 연구」, 『한국근대미술사학』 8: 153-188
- 최봉영(1998), 「조선시대 유교문화와 한국인의 교육열」, 『한국교육사회학회 학술대회 발표 자료』 제124차: 99-116
- 최은정(1997), 「18세기 懸房의 商業活動과 運營」, 『梨花史學研究』 23-24: 83-112

- 최인영(2007), 「1928~1933년 京城府의 府營버스 도입과 그 영향」, 『서울학연구』, 29: 219-250
- 최주희(2012), 「조선후기 왕실·정부기구의 재편과 서울의 공간구조」, 『서울학연구』 49: 131-172
- 허순철(1975), 「英國 初期 資本主義 時代に 있어서 商人資本의 産業資本 轉化 形態」, 『코기토』 14: 295-318
- 홍성찬(2014), 「서울 상인과 한국 부르주아지의 기원 -김씨의 사례를 중심으로-」, 『延世經濟研究』 21(2): 275-302
- 砂本文彦(2007), 「京城(現ソウル)の郊外住宅地形成の諸相」, 『日本建築学会計画系論文集』 613: 203-209

부록 1. 동북부 지역 각 행정동별 인구 수 (단위 : 명)

[표 26] 동북부 지역 인구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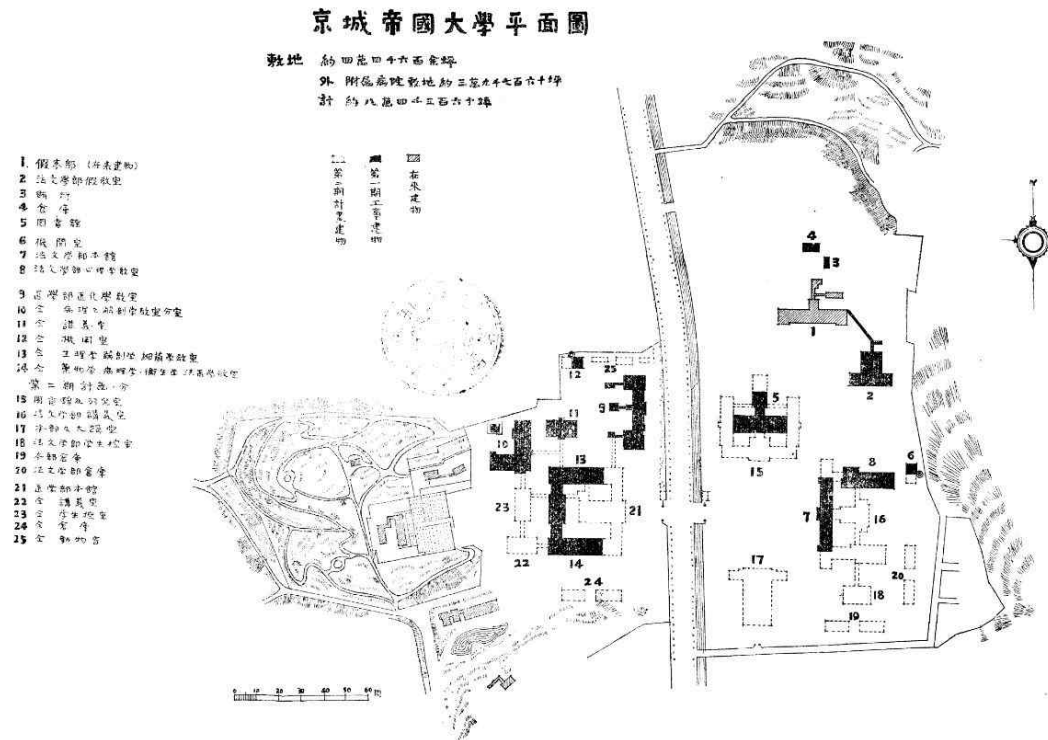
	1925			1932			1933			1934			1935		
	朝	日	其他	朝	日	其他	朝	日	其他	朝	日	其他	朝	日	其他
해화동	1,082	22	40	1,047	218	4	1,142	247	2	1,273	306	2	1,453	315	8
동송동	787	78	5	750	193	-	796	249	-	878	255	-	873	306	-
송1동	564	12	12	544	112	6	538	131	-	545	137	-	692	128	-
송2동	1,683	83	5	1,607	233	7	1,679	252	7	1,852	262	9	1,677	307	12
송3동	1,407	33	7	1,390	171	-	1,445	213	-	1,515	191	-	1,693	169	-
송4동	1,442	89	1	1,320	216	-	1,268	307	-	1,459	357	-	1,695	376	4
연건동	1,989	622	-	1,445	582	5	1,393	604	8	1,502	591	13	1,489	603	26

	1936			1937			1938			1940		
	朝	日	其他	朝	日	其他	朝	日	其他	朝	日	其他
해화동	1,948	340	24	2,282	357	5	2,047	323	2	3,362	292	8
동송동	981	205	-	1,157	360	-	1,279	393	-	1,607	394	-
송1동	1,016	136	2	1,323	141	-	1,879	143	-	2,887	145	-
송2동	1,881	289	24	1,938	304	-	1,799	292	8	2,544	293	17
송3동	1,945	202	-	2,058	200	-	2,189	217	-	2,814	228	-
송4동	1,870	440	12	1,726	433	8	2,003	423	8	2,417	483	18
연건동	1,732	719	32	1,809	768	3	1,892	704	2	2,639	757	2

출처 : 京城府(1926), 『第一回國勢調査』, 京城府(1933~1940), 『京城府戶口統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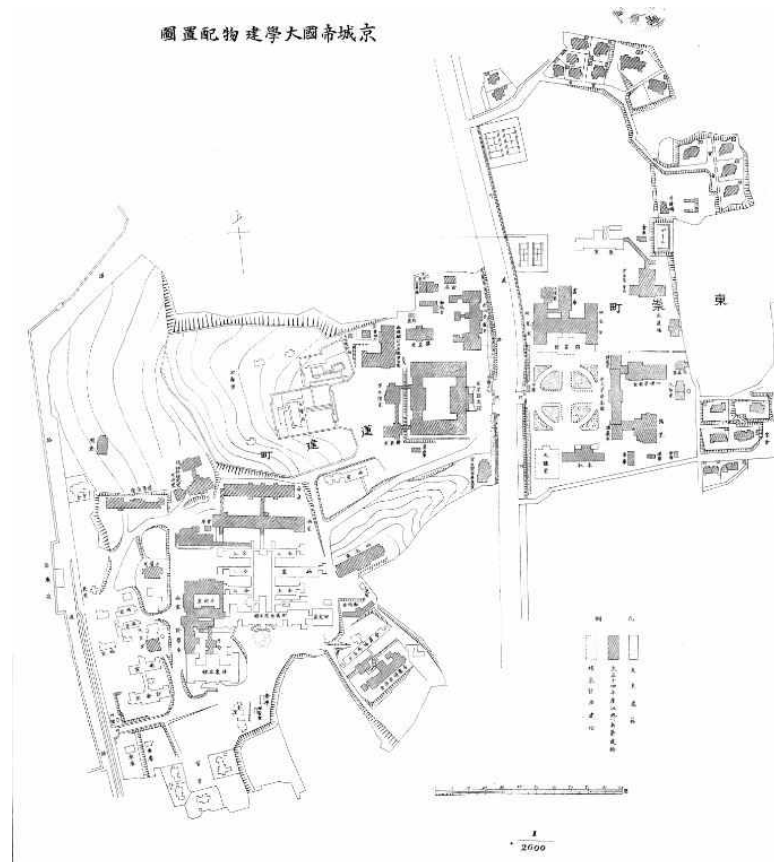
부록 2. 동송동·연건동 경성제국대학 평면도

[그림 44] 1927년 경성제대 평면도



출처 : 京城帝國大學(1927), 『京城帝國大學一覽』

[그림 45] 1937년 경성제대 평면도



출처 : 京城帝國大學(1937), 『京城帝國大學一覽』

부록 3. 동승동 산2번지 위치

[그림 46] 동승동 산2번지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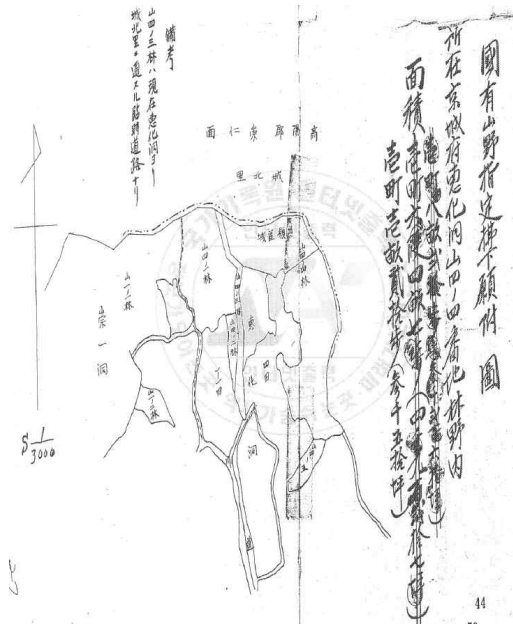
[그림 47] 「大京城精圖」 상에 표기한 동승동 산2번지



출처 : 『京城府内外國有林野願件處理ノ件-京畿道京城府東崇洞-金曙秀外2名』 (CJA0010912, 1930년) 비교 : 평면도를 참고하여 필자가 GIS로 작업

부록 4. 혜화동 산4-4번지 위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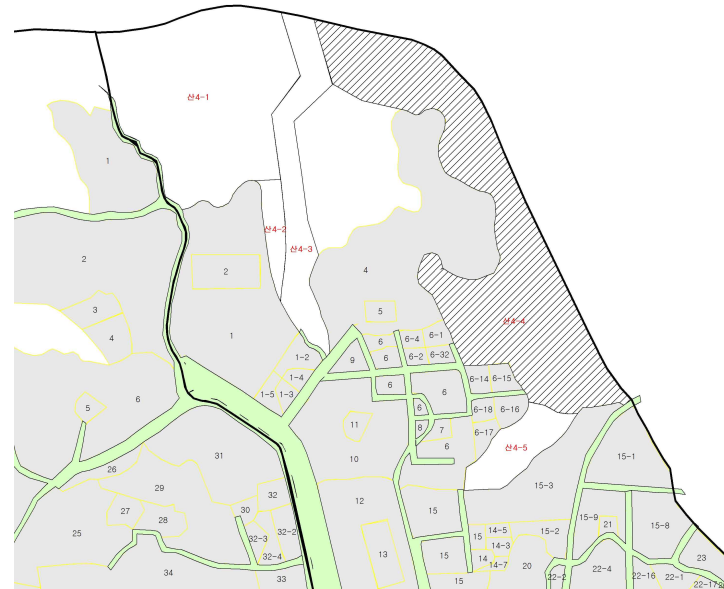
[그림 48] 혜화동 산4-4번지 평면도



출처 : 『京城府內外國有林野願件處理ノ件-京城道京城府惠化洞-朴晦秉外31名』

(CJA0010912, 1930년)

[그림 49] 「大京城精圖」 상에 표기한 혜화동 산4-4번지



비고 : 평면도를 참고하여 필자가 GIS로 작업

Abstract

The formation process of a newly rich town in Northeastern areas within city wall of Seoul

Seulki Yu

**Dept. of Environmental Planning
Graduate School of Environmental Studies,
Seoul National University**

Seoul has continued to be the capital city through the Joseon Dynasty, the Japanese colonization era and until now. Its administrative boundary has gradually widened as it has been renamed from Hanyang to Gyeongseong and the present Seoul, and throughout this time, areas within Hanyang city wall of the Joseon Dynasty remained as part of the capital city for more than 600 years. Research on historically old city can be quite valuable as it provides a basis to examine what kind of changes have taken place to form the current space. For this reason, studies have been steadily undertaken on analyzing urban space of Hanyang of the Joseon Dynasty and Gyeongseong during the period of Japanese colonization. However, most of them were geographically limited to areas reserved for royal families and aristocrats of the Joseon dynasty, or areas densely populated with Japanese and Joseon people during the Japanese colonization era.

This study focus on the Eastern region of Seoul within city wall, especially Northeastern areas (presently Hyehwa-dong,

Myeongnyun-dong, Dongsung-dong, Yeongeon-dong) that have been largely overlooked in previous research. This is a study on urban history that investigates regional identity of the region by looking at what kind of changes took place and how the region had been shaped from the Joseon Dynasty to the opening port era and the Japanese colonization era. Literature review and GIS (Geographic Information System) were used as research methodology. Based on these data, it was examined that urban facilities, which were established in the Northeastern areas of Seoul city wall, and urban planning applied to these regions, and also investigated how the changes in these areas affected lives of people in the area.

The Northeastern region within Seoul city wall was relatively less developed as the Joseon government disallowed establishment of private houses due to geographical reasons. However, through the course of developing into a commercial city in the mid-to-late Joseon Dynasty, the Northeastern areas went through changes in interactions with existing facilities and residents in the areas. More specifically, *Hyehwa Gate* became a channel for flows of people and goods between inner the place of city wall and outer city wall areas, replacing North Gate. *Sungkyunkwan* (成均館) granted authority to its servants, *banin* (泮人) to slaughter cows as well as an exclusive right to operate *hyeonbang* (懸房) to sell beef, thereby promoting their economic growth. After enthronement, King Jeongjo provided *yeogaekjuingwon* (旅客主人權) to immigrants, *momin* (募民) who came to this area for all work *Gyeongmo Palace* (景慕宮), and encouraged their commercial prosperity. These factors resulted in commercial revitalization in the Northeastern region of the capital city, giving birth to one of top-three markets of the 18th century, *Ihyeon Market* (梨峴市場) along the streets that

stretched from Hyehwa Gate to Jongro.

Still the Northeastern region remained largely underdeveloped as it was less influenced by foreign forces compared to other areas within city wall of the capital city. Due to cheap land price, the Japanese Government General established hospitals, public schools and imperial colleges in this region. Also, a large-scaled Germany monastery was established in the area, adding exotic atmosphere. Meanwhile, the government refurbished roads and expanded a track of trams in this region to serve workers and visitors. As a result, a civilized village was formed as people of the middle-or-higher classes flocked into the region including government officials, professors, and media people.

In other words, despite restriction of social class, the Northeast region of city wall during the Joseon Dynasty thrived economically due to commercial privileges. Later, during the Japanese colonization period, people in this region mostly consisted of well-to-do groups even if they were not high-rank officials or magnates. New classes of people emerged in the region under the circumstances of the time through interactions between existing facilities and residents of the region, and subsequently, the Northeastern region came to form a new identity as a newly rich area.

◆ Key words: A newly rising class, Ihyeon market, A civilized village,
Hanyang, Gyeongseong, Seoul city wall, Joseon dynasty,
Japanese colonization period

◆ Student Number: 2015-24812